

제12회, 학술토론회
평양조씨 석실공 (諱 鐵山) 연구

2015. 3. 27 (금) 10:00

성남시청 한누리홀



제12회 학술토론회

평양조씨 석실공 (諱 鐵山) 연구

일시 : 2015. 3. 27(금) 10:00

장소 : 성남시청 한누리홀

주최 : 성남문화원

후원 : 평양조씨 송산공종회

제12회 학술회의
평양조씨 석실공 (諱 鐵山) 연구

목 차

1. 개 회 사 / 김대진(성남문화원장)	
제12회 학술토론회, 平壤 趙氏 石室公(諱 鐵山) 연구	4
2. 학술회의 일정표	6
3. 학술회의 논문	
○ 주제발표1 / 문 수 진 (신구대학 명예교수)	
조선폭 평양 조씨 조건, 조철산(趙狷, 趙鐵山)의 위치	7
○ 주제발표2 / 윤 종 준(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두문동 72현과 평양 조씨 삼세삼충 연구	29
○ 주제발표3 / 손 환 일(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	
석실(石室) 조철산(趙鐵山), 그의 생애와 묘역	49
○ 주제발표4 / 손 미 숙(경기대학교 연구교수)	
석실 조철산(石室 趙鐵山)묘역 석물의 중요성과 가치.....	71
※부록 :	93

제12회 학술회의 개최사

제12회 학술토론회, 平壤 趙氏 石室公(諱 鐵山) 연구

김 대 진
(성남문화원장)

만물이 소생하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오늘 성남문화원은 제12회 학술토론회를 통해 문화원이 지향하는 내 고장 전통 찾기와 역사인물을 재조명하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978년 개원한 성남문화원은 우리 고장 성남의 문화적 전통과 뿌리 찾기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부설 기구인 성남학연구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남문화원은 그동안 학술회의(19회), 학술토론회(11회), 『성남문화연구』 논문집 발간(21호), 『성남인물지』 발간 등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성남시향토유적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문화유적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고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성남에는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대 변혁기에 평양조씨 송산 조건 선생의 가문에서 3대에 걸쳐 불사이군(不事二君) 충절의 역사인물을 배출하였고, 그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이번 제12회 학술토론회는 송산 조건 선생의 아드님인 석실공(휘 鐵山)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통해 우리 고장의 역사인물과 문화유산에 대해 재조명하여 향토문화를 진흥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권력을 추종하였지만, 두문동 72현으로 알려진 충신들은 강직한 충정심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절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마다 새롭게 재조명되어 왔으며 일제강점기에도 두문동72현 추모 사업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오늘의 학술토론회를 통해 우리 고장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를 바랍니다.

바쁜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서 논문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 학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문화원 임직원 여러분, 문화해설사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고마움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뜻깊은 학술행사를 지원해주신 평양 조씨 송산공종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제12회 학술회의 일정표】

-평양조씨 석실공 (諱 鐵山) 연구-

□ 개 회 식10:00

사회 / (김정진 성남문화원 사무국장)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 회 사 /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문중대표 인사 / (조종호 평양조씨 송산공종회장)

축 사 / 내빈 축사

□ 학술회의 / 좌장 : 한 동 익(성남학연구소 소장)

○ 주제발표1 / 문 수 진 (신구대학 명예교수)-10:15

조선초 평양 조씨 조건, 조철산(趙狷, 趙鐵山)의 위치

○ 주제발표2 / 윤 중 준(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10:35

두문동 72현과 평양 조씨 삼세삼충(三世三忠) 연구

○ 주제발표3 / 손 환 일(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10:55

석실(石室) 조철산(趙鐵山), 그의 생애와 묘역

○ 주제발표4 / 손 미 숙(경기대학교 연구교수)-11:15

석실 조철산(石室 趙鐵山) 묘역 석물의 중요성과 가치

□ 종합토론 / 좌장 : 한 동 익 (성남학연구소 소장) 11:35

서 평 일 (한신대학교 명예교수)

홍 대 한 (숙명여자대학교 건축환경디자인센터 연구위원)

송 중 관 (한양대학교)

이 재 목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조선초 평양 조씨 조건, 조철산(趙狷,
趙鐵山)의 위치

문 수 진
(신구대학 명예교수)

여 백

조선초 평양 조씨 조건, 조철산(趙狷, 趙鐵山)의 위치

문 수 진

(신구대학 명예교수)

목 차

- I. 머리말
- II. 고려 후기 평양 조씨의 성장
- III. 조선의 건국과 평양 조씨의 관계
 - 1. 조선의 건국과 조준(趙浚)의 활동
 - 2. 조건의 불사이군(不事二君)
- IV. 조선 초 조철산의 위치.
- 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귀족사회는 12세기 문벌귀족사회로 성장하면서 여러 모순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자겸의 난·묘청의 난·무신난 등으로 왕권이 흔들렸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집권세력이 등장하였다. 13세기 무신집권말기에 몽고의 침입은 고려사회를 흔들어 놓았다. 이 시대에 새로운 집권세력이 등장하였다. 1백년간 무신집권기, 또 1백년의 몽고의 간섭시대는 왕권의 약화와 더불어 새로운 세력으로 대체되었다.

평양 조씨의 시조 조춘(趙椿)은 송나라가 금나라에 밀려 남쪽으로 내려가 남송으로 있을 때 금나라를 정벌하여 큰 공을 세워 송나라의 상장군이 되었다고 한다. 조춘은 평안도 상원(祥原 현재 평안남도 중화)에 정착하여 4세손까지 내려오다가 5세손인 조인규(趙仁規)의 딸이 충숙왕의 비가 되자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에 봉하여진다. 이로 인하여 후손들은 평양으로 본관을 바꾸고 조춘을 시조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조인규가 몽고어 통역관으로 출세하여 최고위 관직에 이르며 원나라와의 외교에 공헌하여 평양 조씨가 기반을 다졌다. 조인규의 증손 조준(趙浚)은 고려 말 이성계를 도와 전제개혁을 실시하여 조선왕조를 개창하는데 개국1등공신이 되었다. 왕자의 난을 극복하고 태종을 도와 조선왕조의 기반을 닦는데 최고의 공헌을 한다.

조준의 아우 조견(趙狷)은 형과 달리 고려의 충신으로 조선건국에 반대하였다. 지조를 지키며 조선에서 준 공신을 거부하고 이름도 개건자로 바꾸었다. 청계산에 숨어살다 양주 송산(松山, 의정부 민락동)으로 옮겨 살다가 죽었다. 그의 묘는 성남시(향토유적3호)에 있으며, 그의 아들 조철산은 조선조에 사환하게 되었다.

당시 고려에 충절을 지키던 인물들의 후손이 1대 혹은 2세대 후손이 조선왕조의 국정에 참여하게 된다. 성남시에 근거를 가진 여러 문중 중에서 광주 이씨 문중은 고려의 충신 이집의 후손이 조선조에 벼슬하면서 번창하였고, 광산김씨도 고려에 절의를 지키던 김약시의 후손들이 조선조에 사환하면서 명문가로 성장하였다. 평양조씨 조준이 개국공신으로 뛰어난 공을 세웠지만 후손은 많지 않은데 비하여, 오히려 아우 조견의 후손이 성남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충청도 일대에 많이 거주하고 인물을 배출하여 명문가로 성장하였다.

필자는 고려와 조선의 전환기에 명문가로 성장한 평양 조씨의 조견과 조철산에 대하여 고려와 조선왕조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피고 그 위치를 알아보려고 한다. 1999년 7월 22일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필자가 『松山 조견(趙狷) 인물 연구』로¹⁾ 학술토론회에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이들에 대한 사료가 부족하여 당시의 시대상황을 살피면서 『고려사 高麗史』·『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연려실기술 練藝室記述』, 문중의 기록물을 자료로 삼아 작성하고자 한다.

필자는 조견과 그의 아들 철산이 고려의 충신으로 남고자 했고, 후손에게도 새 왕조에 벼슬을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겨 이를 문중의 자랑으로 삼고 따르고자 했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조선의 건국에 대한 조견이 갖지 못한 필자로서는 최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서술하고자 한다.

II. 고려 후기 평양 조씨의 성장

12세기말 고려왕조는 이자겸의 난·요청의 난·무신난 등으로 왕권이 흔들렸다. 특무신집권기인 100년 동안 왕은 유명무실하고 무신이 대를 이어 정권을 휘둘렀다. 최충헌의 집권이후부터는 무신이 집권하면서도 문인들을 대거 등용하고 문신 선발의 과거는 쉬지 않고 실시하여 문신들이 권력에 참여하였다. 이로 인해 사대부들이 대거 등장하여 고려후기 문화를 이끌어갔다. 무신집권 말기에는 몽고의 침입으로 고려왕조는 무신권력자는 배제되었으나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이에 앞서 대륙에서는 송나라가 금나라의 침략으로 북중국을 상실하고 강남으로 옮겨 남송을 이어가게 된다. 송·요·금의 세력이 서로 대립하는 동안 고려는 이들과의 외교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된다. 고려는 전통적으로 송나라와 친교를 했지만 북중국(契丹, 遼)·여진(女眞, 金)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특히 남송 때에는 거리가 멀어지고 북중국의 압력이 거세어졌다.

『평양조씨대동보 平壤趙氏大同譜』에 평양조씨의 시조 조춘(趙椿)은 남송에 파

1) 문수진, 『松山 조견(趙狷) 인물 연구』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1999. 7. 22.

건되어 공을 세운 것으로 되어있다. 조춘은 고려에서 금紫光祿大夫(金紫光祿大夫)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로서 남송에 들어가 금나라를 정벌한 공으로 상장군이 되었다고 한다.²⁾ 그의 선대는 중국에서 귀화했다고 하지만 어느 연대에 누가 어디로 왔는지는 알 수 없다. 『고려사 高麗史』에는 조춘이 살던 시대에 고려가 공식적으로 남송에 군대를 파견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윤관의 여진 정벌 후에 금나라와의 충돌이 적지 않았고, 금나라를 치는 것이 남송을 돕는 일이 되기에 금나라에 무력을 행사할 때의 장군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여진족과의 충돌이 잦았던 북방에 근거를 가졌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성씨가 통일신라시대까지는 일부귀족에게나 사용되던 것이 후삼국 통일과정에서 고려 태조 왕건이 공신이나 지방호족에게 사성을 하고, 호족의 거주지 역이나 인연 있는 곳을 본관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대부분의 성씨의 시조가 고려 초에 등장한다. 이에 비해 평양 조씨는 다른 성씨보다 2백여 년이 지난 비교적 늦은 시기에 등장한 성씨로 본다.

평양 조씨에서 가장 일찍이 역사에 기록되는 유명한 인물이 정숙공(貞肅公) 조인규(趙仁規 1227~1308)다. 그는 몽고어 통역관으로 활약했고, 딸이 충숙왕(忠肅王)의 왕비가 되고, 문하시중이 되어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에 봉하여지면서 평양 조씨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고려는 원나라의 정치적 간섭을 받으면서 몽고어 통역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제고되어, 원종 때 몽고어 통역관 양성요원을 선발하였다. 조인규는 『고려사』 열전에 어려서 재지(才智)가 영오(穎悟)하였으나 처음 이 선발에 참여하여 출중하지 못하여 문을 닫고 3년 동안 주야로 게으르지 않으니 드디어 이름이 알려져 훌륭한 몽고어 실력을 갖추고 제교(諸校)에 보임되었다.³⁾ 1269년(원종 10)년에 세자인 심(諶, 뒤의 충렬왕)이 원나라에 입조할 때 수행하여 충렬왕과의 친분관계를 두터이 하였다. 1274년에 세자가 원나라 세조의 딸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와 혼인하고 귀국하여 즉위하자 경성궁(敬成宮)에 안거한 공주와 그의 사속인(私屬人)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충렬왕과 공주의 친분관계를 배경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충렬왕이 즉위한 뒤 장군에 오르고, 1278년(충렬왕 4)에 대장군으로 궁궐에서 기무를 맡아보던 필도치(必蘭赤)에 임명되고, 곧이어 승지가 되어 왕명의 출납을 맡았다. 충렬왕은 조인규를 원의 중서성에 상서하기를

“배신 조인규가 몽·한어에 밝아 조정의 조칙문자를 번역함에 위오함이 없었으므로 내가 전일 천정[元]에 입시할 때 시종을 수종하였고 또 공주를 섬기기 조석으로 부지런 하였으니 청컨대 패면(牌面, 功牌)을 사하시고 왕경탈탈화손 겸 추고관두목(王京脫脫不孫 兼推考官頭目)에 충용하소서” 하였다⁴⁾.

2) 始祖(諱椿)史蹟 “高麗金紫光祿大夫 樞密院府使 南宋時 公爲上將軍助征金人 以功拜右職”, 『平壤趙氏大同譜』 卷1, 1979, 23쪽, 383쪽

3) 『高麗史』 卷105, 「列傳」 18, 趙仁規.

4) 『高麗史』 卷105, 「列傳」 18, 趙仁規.

탁월한 몽고어 실력으로 원나라 세조에게 인정되고 신임을 받게 되면서 원나라의 관직인 선무장군(宣撫將軍)·왕경단사관 겸 탈탈화손(王京斷事官兼脫脫禾孫)에 임명되어 정치적 지위를 더욱 높였다. 1287년 지도첨의사사(知都僉議司事)에 임명된 뒤 계속 요직을 역임하면서 수차 원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1290년에는 고려가 원나라로부터 동녕부(東寧府)를 되찾는 교섭에 공을 세웠고, 1295년에는 중찬(中贊)이 되었다. 1292년에는 그의 딸이 세자비로 간택되면서 국구(國舅)가 되어 명실 공히 가장 유력한 존재가 되었다. 1298년에 세자인 충선왕이 즉위하자 사도 시중 참지광정원사(司徒侍中參知光政院事)로서 개혁정책을 크게 뒷받침하여 주었다. 충선왕의 왕비인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主)의 조비에 대한 질투로 일어난 조비무고사건(趙妃誣告事件)으로 왕이 7개월 만에 퇴위되고 충렬왕이 복위되면서 조인규도 원나라에 끌려가 안서(安西)로 장류(杖流)되었다. 1305년 방면되어 즉시 원나라 황제의 명령으로 판도첨의사사(判都僉議司事)에 임명되었다. 1307년 원나라 무종(武宗) 옹립의 공으로 충선왕의 정치력이 복권되자, 다시 자의 도첨의사사 평양군(恣議都僉議使司平壤君)에 봉하여지고 선충익대보조공신(宣忠翊戴輔祚功臣)이 되었다. 원나라와의 외교가 어려울 때도 무려 30번이나 원에 봉사(奉使)하며 매번 뛰어난 몽고어로서 해결하였다. 미천한데서 일어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서도 항상 단정하고 마음이 바른 고로 사랑을 얻어 왕의 와내(臥內)에 출입하며 많은 전민(田民)을 모아 부를 이루고, 더욱 국구로서 권세가 일시를 기울이게 되니 아들 사위가 모두 장상(將相)에 참열(參列)하여 사람이 감히 비할 자가 없었다. 병이 남에 미쳐 아들 사위가 의사(醫士)를 맞아 진찰케 하니 인규가 말하기를

“‘내가 행으로부터 출발하여 관이 극품에 이르고 나이 칠순을 넘었으니 사생(死生)은 명이 있음이라 어찌 의를 쓰리오’ 하였다. 때에 여러 아들이 원에 있었고 오직 둘째 연(璉)이 시질(時疾)하였는데 일러 말하기를 ‘너희 형제자매가 또한 9인이니 삼가 분쟁(忿爭)하여 사람에게 웃음을 사지 말라. 너의 곤제(昆弟, 兄弟)가 오기를 기다려 함께 이를 교훈삼아 길이 가법을 삼으라.’ 하였다”.⁵⁾

그의 아들이 넷이니 서(瑞)·연(璉)·후(瑋)·위(瑋)가 모두 재상의 지위에 올라 가문을 번성하게 하였다.

첫째 조서(趙瑞 ?~1313)는 충렬왕초에 급제하여 직보문서(直寶文署)에 임명된 뒤, 1297년(충렬왕 23) 우승지에 오르고, 이듬해 충선왕이 잠시 즉위한 동안 광정승지(光政承旨)·전객경(典客卿)이 되었으나, 같은 해 아버지 인규가 딸 조비(趙妃) 충선왕

“…王上書中書省曰 陪臣趙仁規曉蒙漢語 譯朝廷詔勅文字無有違誤 予昔時天庭終始隨從 又事公主恪勤朝夕 請賜牌面充 王京脫脫禾孫 兼推考官頭目 元以爲宣武將軍王京斷事官兼脫脫禾孫 賜金牌 …”

5) 『高麗史』卷105, 「列傳」18, 趙仁規.

“…吾發跡行伍 官至極品, 年踰七旬 死生有命安用醫爲.’ 時諸子在元, 唯璉時疾, 謂曰 ‘汝家兄弟姊妹且九人, 慎勿忿爭 取笑於人. 待汝昆季來 具訓之. 永爲家法’ …”

비) 무옥사건에 연루되어 원나라에 압송되었을 때 동생들과 함께 동행하여 8년간을 수종하였다. 인구가 방환되자 귀국하여 1306년 좌승지에 복직되고, 이듬해 밀직부사가 되어 성절사(聖節使)로 원나라에 다녀왔다. 1308년 동지밀직(同知密直)으로 천추사(千秋使)가 되어 원나라에 파견되었는데, 이 때 장녀를 원나라의 총상(寵相)이며 뒤에 안길왕(安吉王)에 봉해진 야아길니(也兒吉尼)와 혼인시켰다. 이듬해 귀국하면서 원나라로부터 회원대장군 고려국부원수(懷遠大將軍高麗國副元帥)의 직을 받았다. 귀국한 뒤 검교찬성사(檢校贊成事)에 제수되고 벽상삼한삼중대광대사헌(壁上三韓三重大匡大司憲)을 가하여 평양군에 봉하여졌으며,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종2품)를 거쳐 삼사사(三司事)로 졸하였다. 장민(莊敏)이라 시호를 받고 아들은 평(宏)·천이(千裡)·천우(千祐)이다.⁶⁾

조인규의 둘째는 조련(趙璉 ?~1322)은 음서로 진출하여 1308년(충선왕 즉위년)에 평리(評理)가 되고, 이어 동지밀직사사·지밀직사사 등을 거쳐 1311년 첨의평리(僉議評理)에 오르고, 여러 번 원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하였다. 충숙왕 때 찬성사가 되어 최고위의 재상반열에 올라 중요한 일을 맡았다. 원나라로부터 중의대부 고려왕부단사관(中議大夫高麗王府斷事官)의 직임을 받았는데, 이는 부친이 지냈던 것을 물려받은 셈이며, 고려에서의 정치적 지위를 굳히는데 큰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심양왕(瀋陽王) 고(高)가 고려왕위를 넘보는 일로 원나라에 불려가서 국왕인(國王印)을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충숙왕이 원나라의 명령에 의하여 정동행성(征東行省)의 권성사(權省事)가 되어 왕의 직무를 대행한 바 있다.

충숙왕과 심왕의 싸움이 결말을 보기 전인 1322년에 죽었지만, 동생 연수와 함께 심왕의 편을 들어 절개를 잃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아들은 조덕유(趙德裕)로서 부친의 작(爵)을 이어 왕부단사관(王府斷事官)이 되었는데 성품이 청백하여 강어(強禦)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영리를 따르지 않고 비록 친척 고구(故舊)라도 국사를 맡은데 이르면 끊고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판이 판도판서(版圖判書, 정3품)에 이르러 죽었다. 아들이 다섯이니 후(煦)·린(璘)·정(靖)·순(恂)·준(浚)·견(狷)으로 이중 넷째 준과 막내 견이 이 논문의 주요 인물로 다음에 장을 달리하여 서술한다⁷⁾.

조인규의 셋째 아들 조후(趙珣 1278~1325)는 뒤에 이름을 연수(延壽)로 고쳤는데 충렬왕 때 급제하여 도진령(都津令)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으므로 왕의 노여움을 사 하옥되었다. 얼마 뒤 석방되어 원윤(元尹)이 되었다. 1316년(충숙왕 3) 밀직부사 겸 대사헌과 예문관 제학이 되었다. 그 뒤 밀직사·지밀직사사·찬성사·삼사사 등을 역임한 뒤 1321년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가 되었다. 1324년 충숙왕과 심양왕과의 알력이 심하였을 때 심양왕의 편을 들었다가 충숙왕의 미움을 사 순군(巡軍)에 하옥되었다. 가산을 몰수당하고 섬으로 유배당하였다. 그 뒤 원 황제의 명으로 사면되었다. 시호는 문극(文克)이다.⁸⁾ 증손 조박(趙璞 1356~1408)은 이방원과 동서간이며,

6) 『高麗史』卷105, 「列傳」18, 趙仁規傳 瑞.

7) 『高麗史』卷105, 「列傳」18, 趙仁規傳 璉.

조선개국1등공신이며,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정2품)을 역임하였다.

조인규의 넷째 아들 조위(趙瑋 1287~1348)는 9세에 음서로 창희궁(昌禧宮)의 권무(權務)가 된 뒤 여러 번 승진하여 대호군에 이르렀다. 충선왕 때 밀직대언(密直代言)을 거쳐 충숙왕 때 환부총랑전서(環部摠郎典書)를 역임하였다. 1320년(충숙왕 7)에 원나라의 사신 실리미(失里迷)가 황후책봉의 조서를 가지고 고려에 왔을 때 왕이 이를 불안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었는데, “왕이 병이 났다”고 해명하여 무마하였다. 충숙왕이 심양왕과 알력이 있을 때 형인 연연수[후 瑒]와는 달리 심양왕을 돕지 않았다. 그러나 모함을 받아 원윤의 직으로 있다가, 뒤에 누명이 벗겨져 지밀직으로 특진되었다. 얼마 뒤 판밀직으로 전보되고, 곧 첨의찬성사로 승진되어 평양군에 봉하여졌다. 1332년(충혜왕 2)에 사사로이 방문객과 더불어 국사를 비방하였다는 무고를 받고 복주목사(福州牧使)로 좌천되었는데, 조정의 재촉이 심하여 급히 부임하여 마침내 병을 얻었다. 1347년(충목왕 3)에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에 진봉된 뒤 죽었다⁹⁾.

조인규의 아들 넷이 모두 재상의 반열에 올라 원의 간섭시기의 어려운 외교관계를 잘 이끌어갔다. 딸이 충선왕의 왕비로 고려왕실과의 깊은 인연과 또 손녀는 원의 재상의 부인이 되어 고려와 원과의 관계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조인규와 그의 아들 손자가 주로 추밀원에 직을 가졌다. 이는 왕명출납과 군기장악을 맡는 비서직으로 왕의 측근을 오랫동안 평양 조씨 가문이 독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전횡하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었다. 조인규와 그 아들 둘, 첫째와 막내가 평양군에 봉하여진 것도 이들의 위치를 가히 알 수 있다.

공민왕 대에 반원정책의 와중에서도 기황후의 기철과 같이 척결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도 조인규로부터 조준까지 쌓아온 공덕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조인규와 그의 아들들이 고려 말 권문세가의 대열에 끼지 못했음에도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도 평양 조씨 일문의 장점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과천 청계산 청계사에는 이곡(李穀 이색의 부)이 쓴 평양부원군 「조인규의 사당기」가 있다고 하였다.¹⁰⁾ 청계사와 조인규의 평양 조씨의 인연을 알 수 있다.

III. 조선의 건국과 평양 조씨의 관계

1. 조선의 건국과 조준(趙浚)의 활동

조준(趙浚 1346~1405)은 조덕유의 아들이로서 조선의 건국과정에서 정도전 못지않

8) 『高麗史』 卷105, 「列傳」 18, 趙仁規傳 瑒.

9) 『高麗史』 卷105, 「列傳」 18, 趙仁規傳 瑋.

1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8, 果川縣 佛宇, “清溪寺 在清溪山 有李穀所撰 平壤府院君趙仁規祠堂記”

은 개국1등공신이다. 조덕유의 6남 중 5남으로 형제가 아무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여 어머니가 항상 개탄하였으므로 어려서부터 힘써 공부하였다. 1371년(공민왕 20) 책을 끼고 수덕궁 앞을 지나가자 왕이 보고 기특히 여겨 마배행수(馬倍行首)에 보하였다. 1374년 과거에 급제하고, 1376년 좌우위호군(左右衛護軍)으로서 통례문부사(通禮門副使)를 겸하고, 강릉도안렴사(江陵道安廉使)로 뽑혔는데, 정치를 잘하여 이민(吏民)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이어 전법판서(典法判書 정3품)를 거쳐, 1382년 병마도통사 최영(崔瑩)의 천거로 경상도에 내려가 왜구토벌에 소극적이던 도순문사를 징벌하고 병마사를 참하여 기강을 바로잡았다. 1383년 밀직제학(密直提學)을 지낸 뒤 상의회의도감사(商議會議都監事)가 되었다. 이어 도검찰사(都檢察使)로서 강원도에 쳐들어온 왜구를 토벌하여 선위좌명공신(宣威佐命功臣)에 오른 뒤, 권간(權奸)의 발호에 실망하여 우왕 말년 까지 4년 동안 은둔생활을 하면서 경사(經史)를 공부하였다. 윤소종(尹紹宗)·허금(許錦)·조인옥(趙仁沃)·류원정(柳爰廷)·정지(鄭地)·백군녕(白君寧) 등과 교우를 맺으면서 우왕의 폐위와 왕씨의 부흥을 꾀하였다.

이성계와 인연을 맺은 것은 이 무렵으로서 이성계가 1388년 위화도에서 회군한 뒤 중망이 있는 조준을 불러 일을 논의하고, 크게 기뻐하여 지밀직사사 겸 대사헌(知密直司事兼大司憲 중2품)에 발탁하고 크고 작은 일을 일일이 자문하였다. 조준은 크게 감격하여, 아는 것을 모두 이성계에게 이야기하여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해 이성계·정도전 등과 전제개혁을 협의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찬의를 얻고, 같은 해 7월 처음으로 전제개혁의 필요성을 상소하였으며, 다음해 8월과 12월에 잇달아 전제개혁소를 올려 이색(李穡)·이림(李琳)·우현보(禹玄寶)·변안열(邊安烈)·권근(權近)·류백유(柳伯濡) 등 전제개혁 반대파와 대립하였다. 전제개혁은 당시로서는 급선무였다. 비록 위화도회군으로 군사적·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더라도 경제적 실권은 여전히 권문세가인 구세력에게 있었다. 신흥사대부들은 녹봉조차 받을 수 없었고, 신흥 무장들은 군사비를 조달 할 수 없게 되었다. 또 관제·신분·국방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주장하고, 지문하부사 겸 대사헌(知門下府事兼大司憲)으로 추충여절좌명공신(推忠勳節佐命功臣)이 되었다. 이어 조민수(曹敏修)·이인임(李仁任) 등 권신을 탄핵하고 창왕을 폐위, 공양왕을 옹립하는데 참여하여 이성계·정도전 등과 중흥공신에 서훈되었다. 1389년(공양왕 1) 전제개혁을 단행하고, 다음해 9월에 기존의 토지문서를 불태우고, 1391년 5월에 과전법을 실시했다. 평리 겸 판상서시사(評理兼判尙書寺事)에 올라 전선(銓選)을 주관하였고, 찬성사로 승진하여 1391년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392년 정몽주 일파의 탄핵을 받아 정도전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가 정몽주가 죽자 풀려나와 찬성사·판삼사사(判三司事 중1품)가 되었으며, 이해 7월에 이성계를 추대하여 개국공신 1등으로 평양백(平壤伯)에 피봉되고, 문하우시중(門下右侍中)의 자리에 올랐다.¹¹⁾

조선 개국 후 정치적 실권이 점차 정도전에게 집중되자 그와 정치적 의견을 달리했다. 『조선왕조실록』의 조준의 줄기에

11) 『高麗史』 卷118, 「列傳」 31, 趙浚傳

“태조가 세자책봉에 대하여 강비 소생인 방번(芳蕃)을 세우려고 조준·배극렴(裴克廉)·김사형(金士衡)·정도전·남은(南閔) 등을 불러 의논하니 배극렴이 말하기를 ‘적장자를 세우는 것이 고금을 통한 의입니다’ 하니 태상왕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조준에게 물기를 ‘경의 뜻은 어떠한가?’ 조준이 대답하기를 ‘세상이 태평하면 적장자를 먼저 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공이 있는 이를 먼저 하오니, 원컨대 다시 세 번 생각하소서.’ 하였다. 강씨가 이를 엿들어 알고, 그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었다. 태상왕이 종이와 붓을 가져다 조준에게 주며 이방번의 이름을 쓰게 하니, 준이 땅에 엎드려 쓰지 아니하였다. 태상왕이 마침내 강씨의 어린 아들 이방석(李芳碩)을 세자로 삼으니 준 등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¹²⁾

정도전은 방석(芳碩)을 지지하였으나, 조준은 방원을 지지하였고, 문하좌시중·오도통사(門下左侍中五道都統使)가 되면서 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로서 병권을 장악하였다. 요동정벌을 계획하던 정도전과 대립하여 공요운동(攻遼運動)을 반대하였다.

조준의 정치적 입장은 자연히 이방원과 가까워져서 그와 친교가 두터웠고, 평소 방원에게 『대학연의 大學衍義』를 주고 읽기를 권장하였다.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에 백관을 이끌고 적장(嫡長)을 후사로 정할 것을 건의하여 정종(定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도와 정사공신(定社功臣) 1등에 피봉되었다. 1400년(정종 2)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로 있으면서 태종의 처남인 민무구(閔無垢)·민무질(閔無疾)에게 무고되어 한 때 투옥되기도 하였으나, 이방원에 의하여 석방되어, 11월 이방원을 왕으로 옹립하고 좌정승·영의정부사(左政丞·領議政府事 정1품)에 승진, 평양부원군에 진봉되었다.

조준은 사학(史學)을 잘하고, 경학(經學)과 시문에도 능하였으며, 문집으로 송당집(松堂集)을 남겼다. 또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로 하여금 국조의 헌장조례(憲章條例)를 모아 『경제육전 經濟六典』을 간행하게 하였으니, 이는 뒤에 『속육전 續六典』·『육전등록 六典謄錄』 등으로 보완되어 『경국대전 經國大典』 편찬의 토대가 되었다. 그의 전제개혁안은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에 목표를 둔 것으로서, 제1차 장소에서는 녹과전(祿科田)·구분전(口分田)·군전(軍田)·투화전(投化田)·외역전(外役田)·위전(位田)·백정대전(白丁代田)·사사전(寺社田)·역전(驛田)·외록전(外祿田)·공해전(公廩田) 등의 설치를 통하여 관리와 군인 그리고 국역담당자의 생계를 안정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2·3차 전제개혁상소에서는 세신거실(世臣居室)이 경기 이외의 외방에까지 사전(私田)을 두려는 움직임을 저지하고, 기내사전(畿內私田)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전제개혁의 지역적 안배를 설정하였다. 1391년(공양왕 3) 5월에 정하여진 과전법은 그의 개혁안이 토대가 된 것이나, 구분전·투화전·백정대전에 대한 분급규정

12) 『朝鮮王朝實錄』太宗 9卷, 5年(乙酉) 6月 27日(辛卯) 첫번째 기사, 趙浚의 卒記.
○辛卯/領議政府事平壤府院君趙浚卒. … 撫安君芳蕃, 次妃康氏出也. 太上絕愛之, 托以康氏有功於開國, 欲立爲世子, 召浚及裴克廉, 金士衡, 鄭道傳, 南閔議之. 克廉曰: “立嫡以長, 古今通義.” 太上不悅. 問浚曰: “卿意如何?” 浚對曰: “時平則先嫡長, 世亂則先有功, 願更三思.” 康氏覩知之, 哭聲聞于外. 太上取紙筆授浚, 使書芳蕃名, 浚伏地不肯書. 太上竟立康氏幼子芳碩爲世子, 浚等不敢復言. …

(分給規定)이 빠져있고, 그 대신 중흥공신전의 세습에 대한 규정이 첨가되었다. 그가 여말에 올린 국정개혁안은 『주례 周禮』에 바탕을 두어 총재(冢宰 재상)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간과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며 양천신분제(良賤身分制)를 확립하여 국역체제를 강화하고, 경연과 서연제도를 실시하며, 학교[향교 鄉校]제도를 강화하여 사장(詞章)을 폐하고, 사서오경을 배우도록 할 것, 『주자가례 朱子家禮』를 시행할 것, 의창(義倉)과 상평창(常平倉)·사창(社倉)의 법을 시행할 것, 향리의 출사를 억제할 것, 환자(宦者)의 정치참여를 막을 것, 과거시험에 복시제(覆試制)를 시행할 것 등 광범위한 사회개혁안을 포괄하고 있다. 그의 관제 및 사회개혁안은 정도전의 그것과 상통하는 점이 많으며,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 및 『경제문감 經濟文鑑』 편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며, 태조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조선왕조의 개창에 정도전·조준이 함께 거론이 된다. 조준은 증조부 조인규의 영달로 이미 명문가로 등장하였다. 이에 비해 정도전은 부친 정운경(鄭云敬) 이전의 봉화정씨 인물이 없다. 갑자기 등장한 인물에 출생도 적자로 인정할 수 없어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할 수 있다. 개국공신에 책록될 때도 문하좌시중 배극렴 다음의 우시중으로 두 번째 위치에 있었으며 정도전은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로 그 다음이었다.¹³⁾ 사실 조준은 문중만으로 보면 이미 고려 말 권문세가에 들 수 있었다. 조준이 개혁에 동참한 것은 가히 파격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을 건국한 인물 중 이성계를 제외한 최고의 3인은 정도전·조준·이방원이라 할 수 있다. 정도전이 야심이 많고 세자책봉에 갈등을 일으켜 거세되고, 이방원은 왕이 되었으니, 태종대에 최고의 개국공신은 조준이라 할 수 있다.

아들 조대림(趙大臨)은 태종의 딸 경정공주(慶貞公主)와 혼인하게 된 것도 두 가문 사이의 절친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조대림은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정1품)가 가자되고,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에 봉하여졌으며 명나라에 사신으로 자주 왕래하고 사신을 접반하였다.

2. 조건(趙狷, 1351~1425)의 불사이군.

조건은 판도판서 덕유의 6남 중 막내로 초명은 윤(胤), 호는 송산(松山)이다. 어려서 출가하여 여러 절의 주지를 역임하다가, 30세가 넘어 환속하고, 승직(僧職) 경력으로 인하여 좌윤(左尹)¹⁴⁾에 서용되었으며, 고려 말에는 안렴사(按廉使)¹⁵⁾를 지냈

13) 『朝鮮王朝實錄』太祖 1卷, 1年(1392 / 8月 20日(己巳) 2번째기사

개국 공신의 위치를 정하다

○敕定開國功臣位次曰: “...日生不已. 門下左侍中裴克廉, 右侍中趙浚, 門下侍郎贊成事金士衡·鄭道傳, 興安君李濟, 義安伯李和, 參贊門下府事鄭熙啓·李之蘭, 判中樞院事南闔, 知中樞院事張思吉, 僉書中樞院事鄭摠, 中樞院副使趙仁沃, 中樞院學士南在, ...”

14) 左尹: 고려시대 향직에 속하며 16계 가운데 6품에 해당하며 서열은 11위였다.

15) 安廉使: 고려시대 1276년(충렬왕 2) 지방관 안찰사를 개칭한 이름.

다. 1392년(태조 1) 상장군(上將軍 정3품)으로 이성계 추대에 참여하고 개국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¹⁶⁾ 1394년 경상도도절제사, 1397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종2품), 1400년(정종 2) 삼사우복야(三司右僕射 정2품)를 거쳐 1402년 도총제(都總制) 재직 중에 사은사의 명을 받았으나, 사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을 듣고 병을 칭하여 이를 사퇴하였다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직첩을 몰수당한 뒤 축산도(丑山島)에 유배되었다가 곧 사면되었다. 1403년 좌군도총제가 되고 평성군에 봉하여졌으며, 이해 진하사(進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07년 충청도도절제사 겸 수군도절제사를 거쳐, 이듬해 고의로 딸의 입명(入明)을 저지한 일로 개령에 부처되었다. 곧 사면되어 청성군에 봉하여지고, 1410년 봉안사(奉安使)가 되어 태조 진영을 완산부(完山府)에 봉안하였다. 1419년(세종 1) 판우군도총제부사(判右軍都總制府事)에 보임되고, 1421년 3월 71세로 퇴관하여야 하였지만 궤장(几杖)을 받고 계속 벼슬길에 있다가 같은 해 12월 평성부원군에 진봉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의 조건 줄기에는 위와 유사한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¹⁷⁾

“평성부원군 조건(趙狷)이 졸하였다. 견은 조준(趙浚)의 동복 동생으로 일찍이 감문위 상호군(監門衛上護軍)을 제수하였다가, 태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개국공(開國功)에 등록하고 협찬공신의 권을 내리고 평양군을 봉하여 다시 평성군으로 봉하고 부원군으로 승격되었다. 견(狷)은 타고난 성품이 굳세고 곧으나, 다른 특이한 기능이 없고, 그 형 준의 힘에 얹혀 훈맹(勳盟)에 참여함을 얻고, 네 임금을 내리 섬겨 지위가 1품에까지 이르렀다. 젊어서 중이 되어 여러 사원(寺院)의 주지를 역임하였다가, 나이 30이 지나서야 머리를 기르고 승직(僧職)으로 인하여 처음에 좌윤(左尹)에 임명되었다. 전일에 중이 되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어, 남들의 말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미치면 곧 노하였다. 집의 살림이 부요하였고 죽을 때의 나이 75세이었다. 조회를 정지하고, 부의를 하사하고 관에서 장사를 치워주었다. 시호를 평간(平簡)이라 하니, 다스려서 잘못이 없는 것이 평(平)이요, 화평하고 온순하여 시비가 없는 것이 간(簡)이다. 세 아들이 있으니, 수산(壽山)·석산(石山)·철산(鐵山)이었다.”

『연려실기술』에서는 정사와 다른 기술을 하고 있다.

“조건은 자는 종건이며, 초명은 윤이요, 본관은 평양이다. 준의 동생이니 고려조에

16) 『朝鮮王朝實錄』太祖 2卷 1年(1392) 9月 27日(乙巳)○敎都評議使司曰:

上將軍趙狷、右承旨韓尙敬、判繕工監事任彥忠、判軍器監事黃居正、大將軍張思靖·韓忠、兵曹議郞閔汝翼、開國之初、亦各有功。趙狷依尹虎例、餘依安景恭例、皆賜號開國功臣、舉行褒賞。

17) 『朝鮮王朝實錄』世宗 28卷 七年 乙巳 5月 3日 ○壬申/平城府院君趙狷卒。狷、浚之母弟、曾拜監門衛上護軍。壬申、我太祖卽位、錄開國功、賜協贊功臣之券、封平壤君、改封平城君、陞府院君。狷稟性勁直、無他異能、席其兄浚之力、得與勳盟、歷事四朝、位至一品。少爲髡、歷諸寺院住持、年過三十乃還髮。因僧職、初拜左尹、恥嘗爲緇流、人言少及之輒怒。居家富贍、卒年七十五。輟朝賜賻、官庀葬事。諡平簡、治而無詈平、平易不訾簡。三子、壽山、石山、鐵山。

벼슬이 지신안렴사요, 조선에서는 평양부원군·개국공신·평간공이다.

공이 고려조 재상으로 고려의 운수가 장차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청량산에 은거하니, 그 형 준은 공에게 화가 미칠까 염려하여 개국공신의 명부에 이름을 기록했더니 공이 받지 않았다. 이름을 고쳐 견(狷)이라 하니 이것은 하지 아니 하는 것이 있다는 견자의 뜻을 취한 것이다. 태조가 친히 청량산을 방문하여 벼슬을 주었는데, 끝내 받지 않고 죽음에 임하여 자손에게 말하기를, ‘내 묘표에는 반드시 고려조의 벼슬은 기록하고 자손들은 새 조정에 벼슬하지 말라’하였다. 죽은 뒤에 조정에서 준 벼슬을 가지고 묘표를 세웠더니 하루는 벼락이 떨어져 그 비석을 깨뜨렸다. 현손 부(溥)에 이르러 비로소 과거에 임했다.

공이 형인 준이 혁명에 가담할 뜻이 있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우리 집은 대대로 벼슬한 집이 아닙니까? 마땅히 나라와 더불어 존망을 같이 해야 합니다.’하니, 준이 아우의 뜻을 빼앗을 수 없음을 알고 공으로 하여금 잇달아 영남안찰사를 시키니, 그가 시를 짓기를, ‘삼년 동안 두 번 영남루를 지나니 은은한 매화향기는 나를 머물라 권하는구나. 술을 들어 근심 씻고 노년을 보낼 만하니 평생에 이밖에 무엇을 구하리.’ 하였다. 임기가 차서 돌아오기 전에 고려가 망하니, 공은 통곡하고 두류산에 들어갔다. 태조가 발탁하여 호조전서에 임명하고 글을 보내 부르니, 공이 답하기를, ‘송산의 고사리 캐기를 원할 뿐이요, 성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따라서 이름을 바꾸어 견이라 하고 자를 종견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나라가 망하였는데 죽지 않음은 개와 같고, 개는 주인을 연모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두류산에서부터 청계산으로 옮겨가서 송도를 바라보고 통곡하였다. 사람들은 이 봉우리를 가리켜 망경봉이라 하였다. 태조가 그 절개를 칭찬하고 손님과 주인의 예로서 만나자고 청하니, 공이 나가 만났는데 손을 올려 읊만 하고 절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할 말을 기탄없이 해버렸다. 태조가 이런 것을 모두 용납하고 돌아갈 때 명하여 청계의 한 지역을 봉하여 주고 마음 편하게 살도록 하였다. 돌집을 지어 주었는데 공은 끝내 거처하지 아니하고 양주 송산으로 옮겨 살며 스스로 호를 송산이라 하였다.”¹⁸⁾

18) 국역『練藜室記述』1卷, 603쪽. 1976.9.30.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원문“趙狷字從犬 初名胤 平壤人. 浚之弟 前朝官知申安廉使, 本朝平城府院君開國功臣平簡公. 公以前朝宰相, 見麗祚將傾去隱於清涼山. 其兄浚本朝佐命, 慮公及禍錄, 其名於開國功臣券 公不受. 改名狷, 取有不爲之義也. 相親訪於清涼山授官, 終不受. 臨卒語子孫云 吾墓表必書前朝官. 子孫勿仕新朝及卒. 後以本朝所授官表墓, 一日碎其碑. 至玄孫溥始應舉(明宗壬子文科府尹 後村漫錄平壤初譜). 公知兄浚有撥亂之志, 泣謂曰我家非喬木耶, 當與國存亡. 浚知志不可奪, 故使連按嶺南, 有詩曰, 三年再嶺南樓, 細細梅香勸少留, 舉酒消憂堪送老, 平生此外不須求. 未及還麗亡, 公痛哭入頭流山. 上擢拜戶曹典書, 書以招之公答曰, 願採松山之薇, 不願爲聖人之氓. 仍改名曰狷字從犬, 蓋國亡不死有流於犬, 且取犬有戀主之義也. 自頭流轉入清溪山, 每陟最高峰, 望京痛哭, 人之其峰曰望京峰. 上嘉其節, 請見以賓主之禮, 公出見揖而不拜 語多不諱而. 上皆容之, 臨還命封以清溪一曲, 任便居住, 又築石室而與之公. 終不居移住, 楊州之松山, 因以自號(平壤志).

여기서 앞의 청량산은 뒤에 나오는 청계산과 같은 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숙공 조인규의 사당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인규와 인연 있는 평양 조씨의 원찰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⁹⁾ 「청계영당중수기 淸溪影堂重修記」와 「청계사사적기 淸溪寺事蹟記」²⁰⁾에는 조인규의 별서(別墅)라 하였다. 조인규의 별장으로 대대로 평양 조씨와 인연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원나라가 지배했던 동녕부(東寧府 평양)와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 영흥) 중에 동녕부는 일찍이 회복되어 고려의 소유가 환원되고 이곳 출신인 조인규는 오래전에 고려의 충신으로 살았다. 이에 비해 이성계는 쌍성출신으로 고려 말에나 고려에 귀속한 것을 마음에 두었을지도 모른다. 태조 이성계가 자신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조인규·조준의 원찰을 찾아왔을 것이다. 이성계를 만났던 청계산을 피하여 양주 송산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할 수 있다. 송산이라 호한 것은 소나무의 변치 않는 푸르름과 고려의 수도 송도를 기억한다는 뜻일 것이다.

실록의 기록에는 벼슬하고 평탄하게 조선조를 살다 간 것으로 하였는데 『연려실기술』에는 조선왕조에서는 벼슬하지 않고 은거한 것으로 되어있다. 『조선왕조실록』과 『연려실기술』의 기록은 차이가 많다. 실록은 정사라 할 수 있고, 『연려실기술』은 야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실록에 있는 조건의 기록과 『연려실기술』의 기록은 시간상으로 400년의 차이가 있다. 세상에 전하여 내려오는 것을 실학자 이금익이 기사본말체라는 형식으로 쓴 것이다. 이금익(李肯翊 1736~1806)은 조선 후기 명필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의 아들이며, 전주 이씨로 조선 2대 정종(定宗)의 10남 덕천군(德泉君)의 후손이다. 『연려실기술』은 고증을 제일의 생명으로 여기고 ‘술이부작(述而不作)·불편부당(不偏不黨)’ 정신으로 서술했다고 한다. 조선의 건국에 부정적인 인사를 솔직하게 다루고 싶었던 인물이라는 데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의 건국에 반대하면서도 형 준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손에게는 자신의 처지를 확실히 해두고 싶었을 것이다. 『연려실기술』은 조선 태조부터 현종까지 각 왕대의 중요한 사건을 고사본말(故事本末)의 형식으로 엮은 원집과 저자 이금익(李肯翊)의 생존시기인 숙종 당대의 사실을 엮은 속집, 그리고 역대의 관직을 위시하여 각종 전례·문예·천문·지리·대외관계 및 역대 고전 등 여러 편목으로 나누어 그 연혁을 기재하고 출처를 밝힌 별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사본말체로 된 야사이다. 정사와 야사가 어느 것이 사실에 충실하느냐 하는 것은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조선왕조의 건국과정에서 개국1등공신인 형 조준의 영향으로 사실과 다르게 조건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금익은 전주 이씨 왕족의 후손으로 비록 야사이지만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역사를 사건을 갖지 않고 썼다고 할 수 있다.

이금익은 책의 의례(依例)에

“...이 책은 온세상에 전하여 사람들의 귀나 눈에 익은 이야기들을 모아 분류하여 편집한 것이요, 하나도 나의 사견으로 논평한 것이 없다. 만일 숨기고 전하지 않는다면 남들이 이 책

19) 『新增東國輿地勝覽』卷8, 果川縣 佛宇 “淸溪寺 在淸溪山有李穀所撰 平壤府院君趙仁規祠堂記”

20) 「淸溪影堂重修記」, 「淸溪寺事蹟記」 『平壤趙氏大同譜』卷1, 1979.3.30. 回想社 印刷

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만 이 책이 있다고 듣고서 도리어 새로운 말이나 있는가 의심한다면, 오히려 위태롭고 두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드디어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면 보여주고, 빌리기를 원하면 빌려 주었다. '나는 사실에 의거하여 수록하기만 할 뿐 그 옳고 그름은 후세 사람들의 판단에 미룬다',..."²¹⁾고 말하였다.

조선이 개국되고 형 준으로 인하여 개국공신에 책록, 준의 간곡한 출사권유가 있었지만 고려에 절의를 지켜 은거하였으며, 자손에게도 고려에의 절의를 당부하였다. 개국공신으로 책록될 때 상장군이었다면 무관으로 최고의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이성계에게 힘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형 조준이 워낙 높은 위치에서 이성계의 개국에 공헌하고 있으므로 극단적인 저항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여기에 형의 배경으로 개국공신에 책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국공신에 책록될 때도 1차 때 8월 20일에 되지 않고 추가로 9월 27일에 되었다.²²⁾ 개국공신이 되는 것을 본인은 부끄럽게 여기며 살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운명할 때 “나의 묘에 안렴사라고 쓰고 조선조의 훈명은 쓰지 마라” 당부하였다. 양주의 정절사(旌節祠)와 송산사(松山祠)에 모셔졌다. 『조선왕조실록』의 졸기(卒記)에 “견은 타고난 성품이 굳세고 곧으나, 다른 특이한 기능은 없고, 그 형 준의 힘에 얹혀 훈맹(勳盟)에 참여함을 얻고, 네 임금을 내리 섬겨 지위가 1품에 이르렀다.”²³⁾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중 가장 확실한 것은 “타고난 성품이 굳세고 곧다”는 이 말이 조건의 일생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형이 조선 개국에 최고의 공로자이므로 견이 이를 반대하고 저항하였어도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조정에서는 처벌하자니 워낙 형의 공이 크고 위대한 지라 아우인 조건에게도 관품을 내리고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받지 않았더라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다. 죽은 후에 고려의 벼슬만 기록하고 조선의 관직은 쓰지 말라는 것은 그의 깊은 속마음을 기록하였다 할 수 있다.

조건은 두문동 72현(杜門洞七十二賢)에 들어있다. 두문동 72현은 고려가 망하자 조선에 출사하지 않고 충절을 지킨 고려의 유신 72인, 또는 두문동 태학생(太學生) 72인이라고도 한다. 『전고대방 典故大方』에 기록된 인명은 다음과 같다.²⁴⁾

21) 『練藝室記述』 依例

“...此書不過裒輯舉世所傳 塗人耳目之說 類聚而集成耳 無一出己見立論者. 若秘而不傳 則人之目未見而耳有聞者 乃反疑其有別般新語 豈不反爲危怕耶...”

22) 주 16)와 같음.

23) 주 17)와 같음.

24) 高麗杜門洞七十二人, 『典故大方』 卷4, 28쪽. 아세아문화사, 1979. 『전고대방』은 조선 후기 강효석(姜敷錫)이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는 각종참고자료를 수집하여 편찬한 책이다 (1924년 간행).

우현보(禹玄寶) · 조의생(曹義生) · 임선미(林先味) · 고천상(高天祥) · 전귀생(田貴生) · 이승인(李崇仁) · 이맹예(李孟藝) · 유순(柳洵) · 전조생(田祖生) · 조승숙(趙承肅) · 채귀하(蔡貴河) · 서보(徐輔) · 변숙(邊肅) · 박심(朴諶) · 신안(申晏) · 박녕(朴寧) · 김충한(金冲漢) · 고천우(高天祐) · 서중보(徐仲輔) · 조안경(趙安卿) · 이색(李穡) · 이유(李裕) · 조건(趙狷, 先隱於松山) · 허금(許錦) · 이수인(李守仁) · 정희(鄭熙) · 길재(吉再) · 원천석(元天錫) · 김주(金澍) · 최양(崔養) · 전오륜(全五倫) · 조홍(趙洪) · 김자수(金子粹) · 이사경(李思敬) · 이수생(李遂生) · 김약시(金若時) · 남을진(南乙珍) · 이행(李行) · 이약(李瀾) · 이양중(李養中) · 서견(徐甄) · 임탁(林卓) · 김육비(金六庇) · 변귀수(邊貴壽) · 안종약(安從約) · 김준(金俊) · 윤육(尹陸) · 박침(朴忱) · 배상지(裴尙志) · 구홍(具鴻) · 이유인(李唯仁) · 박문수(朴門壽) · 이석지(李釋之) · 성사제(成思齊) · 민보(閔普) · 임척(林隲) · 차원부(車元類) · 최문한(崔文漢) · 신석(申釋) · 신자악(申自巖) · 김위(金瑋) · 민안부(閔安富) · 신덕린(申德隣) · 신평시(申包翹) · 박의중(朴宜中) · 이양소(李陽昭) · 박태시(朴太始) · 이경(李瓊) · 맹호성(孟好性) · 길인적(吉仁迪) · 신이(申彝) · 반?(潘 실명)

이 중에 이승인은 정몽주의 당이라 하여 조선의 건국이전에 정도전이 죽었으므로 이와 같이 조선의 건국과 함께 죽은 사람도 있고, 이색이나 길재 · 김약시는 두문동이 아닌 다른 곳에 은둔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다. 두문동(杜門洞)은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廣德山) 서쪽의 골짜기에 있었으며 고려말기의 유신(遺臣)들이 새 왕조인 조선에 반대하여 벼슬살이를 거부하고 은거하여 살았다고 한다. 후에 고려에 절의를 지킨 인물들을 72명에 포함 시킨 것이다. 조건도 두문동에 간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들과 뜻을 같이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성사제의 후손이 엮었다는 『두문동실기 杜門洞實記』에는 72인의 이름이 모두전하지 않고 성사제와 조의생 · 임선미 · 이경 · 맹호성 · 고천상 · 서중보 7인의 이름만 전하고 있다.

『전고대방』에 기록된 72인은 두문동에 들어가지는 않았을지라도 길재 · 조건 · 김약시 같이 다른 곳에 은둔하거나 조선의 건국에 반대하고 고려에 충성한 인물들이 분명하다. 후세에 전하는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 지라도 후손들은 그의 고려에 대한 충절이 조선조에 공신으로 기록되는 것 보다 더욱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조건의 졸기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의 사회적인 무게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IV. 조선초 조철산(趙鐵山, 1404~1465)의 위치

조건이 조선의 개국을 반대하고 자손에게도 사환하지 않도록 하였다. 조건은 석산 · 철산 · 수산 세 아들을 두었다. 아들의 이름도 돌과 쇠와 같이 변하지 말라는 뜻에서

지어진 것 같다. 수산은 후손이 없다. 조견의 장남 석산은 세 아들을 두었다. 장남 청로는 사복시서윤(司僕寺庶尹 종3품)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단종의 이모부로서 안평대군 이용(李瑢), 권자신(權自愼) 등과 더불어 단종 복위운동을 도모하다가 화를 입었다. 둘째는 충로로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 종5품)을 역임하였고, 셋째인 정로(廷老)는 능성현령(綾城縣令)을 지냈다.

조철산은 조견의 세 아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468년(세조 14)에 세운 조철산의 묘표(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산 25)에는 “조선조에 들어와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정3품)에 제수되었으나 부친의 유훈으로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후에 좌찬성(중1품)에 추증되었다.”고 기록되었다.²⁵⁾ 『조선왕조실록』에는 1425년(세종 7) 부친 조견의 졸기에 처음 이름이 나온다.²⁶⁾

조철산은 예빈시소윤(禮賓寺少尹 정3품)을 지냈으며, 호조정랑과 전농시소윤(典農寺少尹)을 거쳐 첨지중추원사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죽은 뒤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 종1품)에 추증되었다. 조철산의 부인은 태종대에 영의정을 역임한 월정 류정현(柳廷顯 1355~1426)의 아들 류기(柳覲)의 따님이다. 류정현은 문화류씨로 고려시대 김준(金俊)과 함께 최씨 무신정치를 타도한 명신 류경(柳暹)의 4대손이며, 조선의 개국공신에 들지 않았지만 고려 말 조선 초에 걸쳐 내외 고급관직을 두루 역임하여 영의정에 이르기까지 순탄한 관직생활을 한 인물이다. 성품은 무척 과단성있고 또한 검소, 근면하였다고 한다. 일을 처리함에 이치를 따지고, 옳은 일을 주장할 때에는 조금도 꺼리지 않았다고 한다. 태종이 양녕대군을 폐할 때에도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였으나, 그는 먼저 현명한 이를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사실에서 그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류정현의 문화류씨 문중으로서는 평양 조씨 문중과 혼인을 한 것은 관직으로서는 높지만 개국공신도 아니므로 다분히 정략적인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조선건국 최대공신인 조준의 문중인 평양 조씨, 조준의 조카를 택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 철산의 위치를 미루어 알 수 있다.

조철산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자. 앞의 조견의 졸기에 처음 나오고, 다음 1455년(세조 1) 소윤으로 원종공신2등으로 책록되었다²⁷⁾. 이해에 12월 27일 석산의 둘째 아들 조정로는 현감으로, 셋째 아들 충로는 주부로서 3등 원종공신에 봉하여졌었다. 1456년(세조 2) 6월 14일 의금부에서 조철산의 아내를 연좌시키지 않도록 명하는 기사가 나온다.

“의금부에서 전지하기를 ‘판중추부사 이계전(李季甸)·온성부사 류사지(柳士枝)·전농소윤(典農少尹) 조철산과 조청로(趙淸老)의 아들 조영서(趙英緒, 『평양 조씨 대동보』 청로의 유사에는 榮緒로 되어 있다)의 아내는 연좌시키지 말라’ 하였다. 이계

25) 『城南金石文大觀』 속편, 성남시, 성남문화원, 2006년 12월 30일, 趙鐵山 墓標, 240쪽.

26) 주17)의 기록

27) 『朝鮮王朝實錄』世祖 1年 12月 27日(戊辰) 세 번째기사

전은 이개(李塏)의 삼촌숙이며, 철산은 조청로의 삼촌숙으로 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璣 세종의 7남)의 장인이었으며, 조영서의 아내는 익녕군 이치(李悻 태종의 8남)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면이 있었다”²⁸⁾.

이계전은 한산 이씨 이색의 아들 종선(種善)의 아들이며, 사육신 이개(李塏, 父 季疇는 계전의 큰형)의 삼촌이며, 유사지는 사육신 유성원(柳誠源)의 삼촌이다. 철산의 딸은 세종의 7남 익현군 관의 부인이며, 조청로의 아들 조영서의 아내는 태종의 8남 익녕군 이치의 딸(세종의 조카)이다. 1456년(세조 2)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된 인물임에도 철산과 청로의 아내에게 연좌죄를 묻지 말라는 것이다. 철산의 아내는 영의정 류정현의 손녀이며, 세종의 아들의 장모였으며, 청로는 철산의 형 석산의 장남으로 삼촌과 조카의 아내에게 연좌죄를 묻지 말라는 것이다. 철산의 형 석산의 장남 조청로는 1456년 6월 9일 안평대군(李瑬)이 단종 복위운동을 할 때 성삼문이 개 등과 호응하였다. 사육신의 명망이 널리 알려졌듯이 안평대군과 같이 모의했던 거사는 실패하고 조청로 부자는 죽음을 당하였다.

조청로는 1791년(정조 15) 2월 25일 전교하여 장릉단(단종릉)에 배양하여 제사할 때 육신 외에 같은 날에 절의를 지켜 죽은 사람을 가려내어 별도로 한 단을 설치하여 32인의 신주를 충신단에 배사하였다.²⁹⁾ 조청로는 단종의 이모부이기도 하다.

이들 삼촌과 조카가 단종복위라는 대역죄를 지었지만 철산의 아내는 세종의 아들의 장모이며, 철산의 형 석산의 손자인 조영서의 부인은 태종의 손녀로 혼인관계를 맺었다. 세조로 보면 철산의 아내는 동생의 장모, 영서의 아내는 사촌누이동생이었으니 연좌죄를 적용하지 말라는 특혜를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 뒤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456년(세조 2) 6월 27일에는 조철산의 고신을 거두어 먼 지방에 유배시키도록 하였다.³⁰⁾

7월 12일에는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이계전·이맹진(李孟珍 이색의 장남 종덕의 아들)·유사지·조철산·조영서의 아내 등은 법에 마땅히 연좌되어야 하는 자들인데, 홀로 그대로 두어 불문에 붙이고 작위도 그대로 두니, 대역죄는 실로 중묘와 사직에 관계되는 것인데 어찌 전하께서 사사로이 하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³¹⁾

28) 『朝鮮王朝實錄』世祖 2年 6月 14日(壬子) 첫 번째기사

○壬子/傳旨義禁府曰: “判中樞院事李季甸, 穩城府使柳士枝, 典農少尹趙鐵山及趙清老子英緒妻等勿緣坐。” 季甸, 李塏三寸叔也, 鐵山, 清老三寸叔而翼峴君璣妻父也, 英緒妻益寧君穆女子也, 故有是命。

29) 「少尹公 諱 清老 事蹟」 『平壤趙氏大同譜』 卷1. 129~130쪽, 1979.

30) 『朝鮮王朝實錄』世祖 2年 6월 27일(乙丑) 네 번째기사

○傳旨義禁府曰: “成燾, 成熙, 成然, 權景行收告身, 安置遠方, 李貞元, 趙哲山亦收告身, 配遠方, 辛以中濟州, 朴攝謙巨濟屬官奴, 成九淵, 洪澤, 曹柱, 李元孝, 崔終末, 朴長守永屬邊邑奴。”

31) 『朝鮮王朝實錄』世祖 2年 7月 12日(己卯) 두 번째기사

“...今李季甸, 李孟珍, 柳士枝, 趙鐵山, 趙英緒妻等, 法當緣坐者也, 獨置而不問, 爵位自若, 大逆之罪,

대역죄를 지었지만 부인들이 왕의 자부이거나 손자며느리이고 세조로서는 아우의 장모이며, 또 사촌 누이동생이었으므로 이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만큼 평양 조씨 문중은 조선왕실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비록 조건이 조선 왕조에 등을 돌렸어도 조준의 공덕을 잊을 수 없고, 태종이 조준의 아들 대림을 사위로 삼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조철산은 1460년(세조 6) 12월 3일 첨지중추원사(정3품)로 제수되었다.³²⁾ 다음해 7월 12일 다시 첨지중추원사에 제수되었다.³³⁾ 1470년(성종 1) 4월 15일 순천에 부쳐되었던 철산이 유배에서 풀려났다.³⁴⁾

철산에 대한 기록은 이상의 실록 기록 외에는 알 수 없다. 고려시대 중추원은 군기장악과 왕명출납을 맡는 부서였다. 조선이 건국되고 왕자의 난이 있는 후에 태종이 정권을 장악한 후 사병을 혁파하고 중추원의 기능을 축소하여 군기의 사무는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에 이관하고 왕명출납을 위하여 별도로 승정원을 설치하였다. 승정원은 1401년 의흥삼군부가 승추부로 개편되면서 승정원의 기능이 여기에 귀속되기도 하였지만, 1405년 승추부가 병조에 귀속되면서 다시 승정원이 독립된 기구로 부활하였다. 1432년(세종 14)에 중추원이 다시 설치되어 숙위와 경비 등을 맡아 보다가 1466년(세조 12) 중추부로 개칭되었다. 고려시대의 중추원의 이중구조 기능을 반영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군정은 병조에서 완전히 장악하였고, 중추부는 하는 일 없이 문무당상관 가운데 소임이 없는 사람들을 소속시켜 대우하던 곳이었다. 철산이 첨지중추원사의 직을 가진 것은 세종~세조시대로 중추부로 부르던 시기였다. 실권은 없어도 고위 문무관에게 주어지던 관직이었다.

철산은 3남을 두었으니 첫째는 인(勲)으로 전연사별좌(典涓司別坐 정5품)를 지냈다. 둘째는 진(軫)이고 셋째는 식(軾)으로 부호군(副護軍 종4품)을 역임하였고, 승지(정3품)에 추증되었다. 그의 자손 중에 보(溥)가 문과에 급제하였고 부제학을 역임하였는데 경주부윤으로 부임하는 길에 부군의 묘를 성묘하다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하여 그 후손 중에는 벼슬에 나아가는 자는 오랫동안 감히 부군의 묘소를 성묘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둘째 아들 진(軫)은 후손이 없고, 인은 별좌공파,

實關宗社，則豈殿下所得而私之哉？《春秋》之法，‘誅亂討賊，必先治其黨與。’若姜希顔，則非他泛然辭連之比也。曾聞李塏人心洶洶之言，且於逆徒聚謀成勝家之日亦與焉…”

32) 『朝鮮王朝實錄』世祖 6年 12月 3日(乙亥) 첫 번 제 기사

“乙亥/以復爲居平正，李石亨中樞府副使，金繼孫中樞院副使，江原道觀察使，康哀信川君，權攀黃海道觀察使 花山君，洪順孫、趙鐵山、李孝溫僉知中樞院事，姜眉壽司憲掌令，李宗孝忠清道都節制使，洪益誠慶尙右道處置使。以野人護軍梁阿同介爲大護軍，副司正多將介司正，各賜綿布四匹，司正也尙介副司直，所弄巨、羅水副司正，各賜絺布二匹，副司正南介司正，甫青介、多右雍只、也叱多副司正，皆北征時有功者也。”

33) 『朝鮮王朝實錄』世祖 7年 7月 12日(庚戌) 첫 번 제 기사

“庚戌/以戶曹判書曹錫文摠中外度支事，【置度支使，自此始。】安哲孫戶曹參議，李芮、趙鐵山僉知中樞院事。”

34) 『朝鮮王朝實錄』成宗 1年 4月 15日(癸亥) 세 번 제 기사

“傳旨義禁府曰 ‘…靈巖安置許氏保授連同，羅州安置趙治、趙孟根、趙季根、韓山充軍李季明，平山爲奴慶由恭，海南爲奴金孝祖，順天付處趙哲山等放送。星州官奴永屬楊有源、…’。”

식은 승지공파의 시조가 된다. 소운·판관·현령·별좌·승지가 후손이 있었으니 평양 조씨 5파로 일컬어진다.

조건이 아들들의 이름을 석산·철산으로 한 것도 돌과 쇠같이 절의를 굳게 지키라는 뜻에서 지었다고 본다. 평양 조씨는 조준의 후손은 1개 파를 이루지만 조건의 후손들이 번창하여 5개파를 이루었다. 조건이 벼슬하지 말라는 유언 때문인지 조선조에 크게 사환하지 않고 있다. 관직에 나아가 출세하는 것보다 고려조의 충신으로 남고자 했던 선조의 유훈을 문중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 같다.

V. 맺음말

여말선초는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변혁기였다. 고려말 무신정권이 100여년 왕권을 유린하다가 몽고의 침입으로 간섭을 받게 되었다. 평양 조씨는 이 시기에 조인규라는 뛰어난 인물이 등장하면서 일가를 이루게 된다. 조인규는 몽고어 통역관 출신으로 최고의 관직에 오르며 몽고와의 어려운 외교관계에 뛰어난 활약을 하게 된다. 그의 증손 조준은 고려와 조선의 교체기에 가장 뛰어난 공을 세우게 된다. 고려 말 문란했던 토지제도는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사회 전반의 무질서를 야기하였다. 이성계 등의 신흥 무장세력과 고려말 새로이 등장한 지식계층인 신진사대부들이 개혁에 나서게 된다. 정도전이 주축세력이 되어 이성계를 추대하고 정치적·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 여기에 조준은 전제개혁을 입안하여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도록 하므로 조선왕조 건국을 이끌게 된다.

정도전이 야심이 많고 세자책봉에 방석을 지지함으로 이방원에게 제거된다. 조준은 정도전과 함께 거사를 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정세를 파악하였고, 이방원을 지지함으로 태종에게 큰 버팀목이 되었다. 조선왕조를 개창하는 데는 정도전이 앞섰을 지라도 왕조를 튼튼히 다지는 데는 조준이 1등 공신이었다.

조건은 조준의 아우로서 형과는 길을 달리하고 싶었던 것 같다. 『조선왕조실록』 등 사료에는 고려와 조선의 관직을 다 역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려실기술』 같은 야사에는 조선왕조의 건국을 반대한 것으로 나왔다. 형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지라도 조선왕조의 벼슬을 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을 것이다. 후에 사가들이 조준이라는 최고의 공신에게 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그렇게 썼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줄기를 실을 정도면 고심한 흔적이 있다. 후세에 두문동 72현에 조건을 넣은 것도 두문동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고려 말 불사이군의 충신들은 모아놓은 것이다. 72명의 이름이 모두 두문동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이들과 뜻이 같았던 여말선초의 인물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조건의 둘째 아들 철산은 태종·세종 대에 활동한 인물이다. 조건의 아들 철산과 큰 아들 석산의 아들들이 단종복위운동에 참여하여 죽거나 유배되었을지라도 왕자나 공주와 혼인관계를 맺은 연고로 부인들에게는 연좌죄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철산의 아들은 별좌공파인 인(軫)과 승지공파인 식(軾)이 있다. 석산의 세 아들, 철

로·충로·정로가 소윤공파·판관공파·현령공파를 형성하여 평양조씨 5개 파의 시조가 되어 문중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고려와 조선의 왕조교체기에 조준을 비롯한 개국공신의 업적을 이루고, 조건은 고려의 충신으로 남아 후손인 아들 철산과 손자 청로가 세조 때 단종복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충절을 중시하는 가문의 가풍으로 삼았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야사라 할 수 있는 『연려실기술』에 조건의 사실이 세인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고려의 충신으로 기록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조준의 후손들이 조선 건국의 공신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조건과 같이 고려의 절신으로 남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고, 후손들도 이를 자랑으로, 가문의 본보기로 삼은 게 아닌가 한다. 다른 문중에 비해 조선 왕조시대에 높은 벼슬을 한 인물이 눈에 띄지 않은 것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고려 말 명문가로 성장하여 고려 왕조에 충성하였지만 왕조교체기에는 이성계를 도와 조선왕조 창업을 이룬 1등 공신인 조준이 있다. 이에 비해 동생 조건은 고려에 충성하고자 했으나 형이 워낙 큰 공을 세우고 차지한 위치가 높으니 겉으로는 격렬하게 저항을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나아가고 후손에게 조선왕조에 사환하지 말도록 하였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 갈수록 조준의 공훈보다는 조건의 불사이군의 충성이 칭송의 대상이었음을 『전고대방』 등에 두문동 72현에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건과 조철산은 조선 초기에 고려에 충신으로 남기를 원했고, 그 후손들도 높은 벼슬하기를 원하지 않고, 단종복위운동 등에 참여하여 불의를 원치 않는 가문의 전통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 백

두문동 72현과 평양 조씨 삼세삼충
연구

윤 종 준

(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여 백

두문동 72현과 평양 조씨 삼세삼충 연구

윤 중 준

(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목 차

- I. 머리말
- II. 석실공 조철산(1404~1465)에 대하여
 - 1. 조철산의 가계표(家系表)
 - 2. 淸直溫恭 不依時勢했던 조철산 묘역
 - 3. 조철산의 생졸년도에 대한 새로운 사실
 - 4. 조철산의 관작(官爵) 이력 검토
 - 5. 단종복위 운동과 평양 조씨 가문
- III. 두문동 72현과 三世三忠
 - 1. 두문동72현의 의미
 - 2. 조철산과 두문동 72현 기록
 - 3. 두문동 72현의 역사적 의미
- IV. 맺음말

I. 머리말

과거에 역사학은 중앙집권 시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앙의 역사만 중시하였는데, 지방 자치 시대 이후로는 지방의 역사와 향토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게 증폭되었고, 그 중심에는 지역의 향토 역사인물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 왔다.

성남시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급격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야했다. 더구나 당시의 주민 생활은 전통문화의 보존 보다는 당장에 먹고사는 게 급선무였던 시대였기에 문화유산의 보존은 도시계획에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심지어는 경제기반과 도시기반 조차도 갖추지 못한 신도시 계획을 강행했던 시대였다. 그리하여 성남시는 역사적 정체성이 없는 도시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으며, 그러한 인식은 40

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에는 아직도 시급히 보존해야 할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 곳곳에 남아 있다. 그 중에서 평양 조씨 문중은 송산 조견(松山 趙狷)이 고려에 대한 충절을 버리지 아니하고 은둔하다 별세한 후 이 고장에 묻혀 후세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그 둘째 아들 석실공 철산(鐵山) 또한 단종 복위 운동 때에 부귀영화 보다는 평범한 삶을 누리다 묻힌 묘역이 여수동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조석산의 아들 조청로와 청로의 아들 영서는 단종복위 사건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었다.

평양조씨 문중은 고려말 조선초기부터 성남지역에 집성촌을 이루어 대대로 600년을 이어왔다.

역사에는 항상 새로운 권력의 양지를 쫓아가기에 급급한 사람들과 변함없는 지조를 지켜나간 사람들이 공존하였지만 대체로 지조를 지킨 사람들은 생명을 잃게 되거나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의 권력 격변시기에는 특히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졌으며, 충절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거나 세상을 떠나 은둔의 생활을 하다가 생애를 마쳤다.

흔히 두문동 72현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은 (1)기울어 가는 고려에 끝까지 충절을 다하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2)권력에서 소외되거나 (3)스스로 은둔의 길을 택하여 고난의 생애를 이어갔다.

또한 조선의 건국 이후에도 정치적 권력은 즉시 안정되지 아니하고 권력을 눈앞에 둔 피비린내 나는 쟁탈전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태종이 집권하기 위해 벌인 2차례의 왕자의 난과 수많은 정적들의 숙청, 세조가 왕위에 오르기 까지 김종서 등의 정적제거 과정과 단종 복위운동 과정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을 치러야 했다. 조선초기의 불안정한 정치권력에 지식인층은 새로운 권력을 추종하느냐 기존의 권력에 충성을 다하느냐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단종 복위 운동에서는 이전에 왕자의 난과 달리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명분이 뚜렷하였기에 세조의 정권에 저항하는 인사들이 많았다.

고려 말의 충신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은둔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단종복위 운동에서도 처형을 당하거나 벼슬을 하지 않고 은둔하는 사례가 있었다.

현재 두문동 72현으로 표현되는 충절 인사들의 명단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고려 말의 충신들과 조선 초기의 충신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평양 조씨 문중에서 대를 이어 충절을 보여준 사실을 찾아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이 글 제목에서 삼세삼충(三世三忠)연구라고 하였는데, 송산 조견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가 다수 있으므로 별도의 언급은 줄이기로 하고, 둘째 아들인 석실공과 조견의 손자인 조청로(趙淸老)에 대한 행적을 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그나마도 자료가 많지 않아서 연구에 애로가 많지만 기존에 알려진 자료의 범위 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남시가 급격한 도시화를 통해 많은 문화유산이 타지로 옮겨 가거나 멸실되어 버렸지만 현재 남아 있는 선조들의 문화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데에 소홀할 수 없기 때문이다.

II. 석실공 조철산(1404~1465)에 대하여

조철산(1404~1465)은 세조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양(平壤), 호는 석실(石室)이다. 정숙공(貞肅公) 조인규(趙仁規, 1227~1308)의 현손이자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조덕유(趙德裕, 1314~1352)의 손자이며 평간공(平簡公) 조건(趙狷, 1351~1425)의 둘째아들이다. 또한 태종대에 영의정을 역임한 월정(月亭) 유정현(柳廷顯, 1355~1426)의 손녀사위이다.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되었다.³⁵⁾

1. 조철산의 가계표(家系表)

조인규(趙仁規)					
조련(趙璉)					
조후(趙煦)	조린(趙璘)	조정(趙靖)	조순(趙恂)	조준(趙浚)	조건(趙狷)
조건(趙狷)					
조석산(趙石山)- 부인 德敬 ³⁶⁾	조철산(趙鐵山)- 부인 영의정 유정현의 딸 정경부인 이씨			조수산 (趙壽山)	조강산 ³⁷⁾ (趙江山)
조청로(趙淸老) ³⁸⁾ 조충로(趙忠老) 조정로(趙廷老) 3녀	조인(趙軫) 조진(趙軫) 조식(趙軾) 노유신(盧由愼) 壻-익현군 이관(翼峴君 李璵)-세종 子 壻-익녕군 이치(益寧君 李祜)-태종 8남 壻-송호(宋瑚) 壻-이연중(李連宗)			조선(趙璇)	

35)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성남문화대전(집필자 이민식)

36) 세조 2년 병자(1456, 경태 7) 9월 7일 (갑술)

37) 족보에는 보이지 않음

세조실록 14년 무자(1468, 성화 4) 9월 6일 (임술) 계유년의 난신에 연좌된 사람들을 방면하다.

병자년(丙子年) 난신(亂臣)에 연좌된 사람으로 내외방(內外方)에 종편(從便)한 자인 조청로(趙淸老)의 숙부(叔父) 조수산(趙壽山)·조강산(趙江山), 조카 조우질동(趙牛叱同)·조천동(趙千同),

조청로(趙淸老)			
조영서(趙英緒) ³⁹⁾	조공서(趙公緒)	조승서(趙承緒)	卜中

세종대왕의 능을 여주로 옮기면서 새로 지은 <세종 장헌대왕 천릉지석문(世宗莊憲大王遷陵誌石文)>⁴⁰⁾에 익현군(翼峴君)은 ‘조철산(趙鐵山)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1남 1녀를 두었다. 아들 지(漬)는 괴산군(槐山君)이고, 딸은 아직 어리다.’고 하였다. 이 때 조철산은 예빈소윤(禮賓少尹)이었다.⁴¹⁾

위의 표에서 조강산은 족보상에 보이지 않는다. 세조 14년(1468) 9월 6일 ‘계유년(癸酉年)⁴²⁾, 병자년(丙子年)⁴³⁾ 난신(亂臣)에 연좌된 사람으로 내외방(內外方)에 종편(從便)한 자인 조청로(趙淸老)의 숙부(叔父) 조수산(趙壽山)·조강산(趙江山), 조카 조우질동(趙牛叱同)·조천동(趙千同)’을 석방하였다.

2. 淸直溫恭 不依時勢했던 조철산 묘역

조철산은 1404년에 출생하여 1465년까지 향년 62세의 수를 누렸다. 그의 묘역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산30번지에 있으며 부친인 조건의 묘역(성남시 향토유적 제3호) 맞은 편 언덕에 정경부인 이씨(貞敬夫人 李氏)의 묘와 쌍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묘역에는 문인석(文人石), 장명등(長明燈), 상석(床石) 등의 옛 석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망주석(望柱石)은 현대에 와서 설치한 것이다. 문인석은 높이 132cm로 복두공복(幘頭公服)을 착용하였고, 장명등은 화창(火窓)이 앞뒤로 나 있다. 각각의 봉분 앞에는 방부하엽(方趺荷葉) 양식의 묘표(墓表)가 있는데 조철산의 묘표는 성남지역에서 건립연대(1468년)가 확실한 묘표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정경부인 이씨의 묘표는 6년 후인 1474년에 건립되었다.

봉분 왼쪽의 새로운 묘표는 종17대손 조병호(趙柄鎬)가 음기(陰記)를 짓고 종19대손 조득상(趙得相)이 써서 1990년에 세웠다. 앞면에 ‘朝鮮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平壤趙公鐵山之墓’라 새겼다.

묘표 뒷면에는 조철산의 성품에 대해 쓰기를 <淸直溫恭 不依時勢>라 하였다. 성품의 맑고 곧으며, 온순하고 공순하여 시세(時勢)에 기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성품이 시대적인 기회와 권력에 아부하고 기대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38) 조청로 부인의 이름은 노비(老非)이다. 세조 2년 병자(1456, 경태 7) 9월 7일 (갑술)

39) 실록의 기록에는 영서(榮緒)로 기록되어 있다.

40) 이승소(李承召), 『삼탄집(三灘集)』 제14권, 「묘지(墓誌)」 <세종 장헌대왕의 천릉지석문(世宗莊憲大王遷陵誌石文)>

41) 『신증동국여지승람』 제7권 「경기 여주목(驪州牧)」

42) 계유년(1453) - 1453년(단종 1)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단종의 보좌 세력이자 원로대신인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 수십 인을 살해,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사건.

43) 병자년(1456) - 단종복위 사건. 사육신 사건

있다.

3. 조철산의 생졸년도에 대한 새로운 사실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조철산에 대한 기록물에는 출생년도 미상, 별세 년도를 세조14년(1468)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족보상에 무자년(1468)년으로 적힌 것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1)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사전)의 기록

네이버 지식백과에 기록된 내용은 조철산의 묘표에 적힌 내용을 잘못 판독하여 생졸년도를 명확하게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조철산(趙鐵山, ? ~ 1468)은 조선 세조대(世祖代)의 문신이다. 고려 말에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가 예빈시소윤(禮賓寺少尹)을 지냈으며 조선 개국 후에는 호조정랑(戶曹正郎)과 전농시소윤(典農寺少尹)을 거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이르렀다.⁴⁴⁾

위 내용에서 1468년은 묘표를 건립한 해이며 별세한 해는 그보다 앞선 을유년(1465)이라는 사실이 묘표에 기록되어 있다. 묘표의 내용에 62세까지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출생년도는 1404년으로 이미 조선이 건국된 이후이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과거에 급제할 수는 없다.

(2)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디지털성남문화대전의 오류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디지털성남문화대전에서 또한 네이버백과사전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다.

4. 조철산의 관작(官爵) 이력 검토

송산 조건은 세상을 뜨기 전 자손들에게 벼슬에 나아가지 말 것을 유언한 것으로 전해온다. 실제로 장남 석산, 3남인 수산은 벼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남인 철산 역시 벼슬에 큰 뜻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 짐작된다. 장남인 조석산은 태종(太宗)의 국상(國喪)을 당했을 때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를 무시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으므로 관적(官籍)에서 삭제되었다.⁴⁵⁾

조철산은 실록의 기록으로 보면 당초에 호조정랑(戶曹正郎)이라는 정5품 정도의

44) [네이버 지식백과] 조철산묘 [趙鐵山墓] (두산백과)

45) 세종 28년 병인 (1446, 정통11) 8월 4일(기해)

세종 30년 무진(1448, 정통13) 5월 14일(무술)

벼슬을 하였으나, 훗날 세조가 집권한 이후로는 은둔생활을 하며 점차로 높여 주는 벼슬에도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호조정랑으로 있을 때 사신이 무역하는 벼에 제한을 두지 말도록 왕명이 있었다. 원래 사신(使臣)이 관사(館舍)에서 무역(貿易)을 할 때에 영접 도감(迎接都監)에서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를 상고해 보고는 세포(細布)를 금지시켰는데, 사신이 노(怒)하므로, 문종 임금의 명하여 추포(麤布)와 세포(細布)를 해아리지 말고 모두 무역(貿易)을 허가하게 하였다. 세포(細布)는 만들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당초에 무역 금지 품목이었기 때문에 금지한 것인데 사신이 노하였으므로 임금이 마지못해 무역을 허락한 것이었다. 이 때 관련자들이 의금부(義禁府)에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데, 조철산은 명을 잘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가 있었다.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이 명나라 사신에게 가서 타이르길, “승지(承旨)와 도감(都監)·호조(戶曹)의 관리들을 이미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핵문(劾問)하고는 중한 형벌에 처하려고 합니다.”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매양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노비(奴婢)까지 하사(下賜)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화를 내겠습니까? 두목(頭目)의 무리들이 매매(買賣)하는 것은 인정(人情)을 하고자 함이니 황공하기 실로 대단합니다. 원하옵건대 전하에게 아뢰어 관리들을 용서하도록 하소서.”하였다.⁴⁶⁾

명나라 사신이 노했던 이유가 인정(人情 = 벼슬아치들에게 은근히 주는 선물) 즉 뇌물에 있었던 것이었다. 이 사건을 제대로 풀이하면 조선의 관리들이 원칙에 충실하게 일하다가 명나라 사신의 노여움을 샀던 것이었다.

조철산은 세조가 즉위 하던 1455년에 2등 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⁴⁷⁾ 그러나 원종공신은 실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라기보다는 정권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시행된 것이었다.

세조는 단종으로부터 선위 받는 형식으로 왕위를 빼앗고, 좌익공신(佐翼功臣)으로 1등 7인, 2등 12인, 3등공신 25인 등 총 44인을 정하였는데, 이 때 3등 공신이었던 권자신(權自愼)·성삼문(成三問)·이휘(李徽) 등 3인은 1456년(세조 2)에 단종복위를 도모한 사건으로 추탈 당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고발한 정창손은 2등으로 승진되고, 김질(金質)은 3등에 추록되었다.⁴⁸⁾

이어 같은 해(1455년, 세조 1) 12월 27일에 2,300여 명의 원종공신을 훈봉 하였다. 여기에서 ‘원종공신’은 ‘좌익원종공신’임이 확실하다. 정 공신에 이어 녹훈되는 원종공신은 그 범위와 규모가 크다. 선무공신의 경우 정공신은 1등 3인, 2등 5인, 3등 10인으로 모두 18인에 불과하나 원종공신은 9,060인에 이른다. 이 경우는 조금 심한 것이지만, 확인된 정공신과 원종공신의 숫자는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46) 문종 즉위년 경오(1450, 경태 1) 8월 28일 (기해)

47) 세조 1년 을해(1455, 경태 6) 12월 27일 (무진)

48) [네이버 지식백과] 좌익공신 [佐翼功臣]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때, 원종공신은 본래의 공로포상의 의미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불안한 정국에서 공신 책봉을 통해 국가나 왕실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조정의 지지 세력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려는 의미를 갖게 된다.⁴⁹⁾

원종공신은 1등에서 3등으로 분류해 공신녹권을 지급하고 각종 특혜를 부여했는데, 그 내용을 좌익원종공신의 예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1등 공신에게는 ① 한 자급(資級 : 벼슬아치의 품위의 등급)을 더 올려주고, ② 아들과 손자에게 음서의 혜택을 부여하며, ③ 후세에까지 유죄(宥罪 : 죄를 지었을 때 너그러이 용서해 주는 것)하고, ④ 부모에게 봉작하고, ⑤ 아들과 손자 중에서 자원에 따라 한 사람에게 산관(散官) 한 자급을 더해 주었다.

2등 공신에게는 ①·②·③·⑤는 1등공신과 같되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사위·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한 자급을 더해 주었다. 3등공신에게는 ①·②·③은 1등공신과 같다. 이 중에서 통정대부 이상은 아들·손자·형제·조카·사위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 한 자급을 더해 주었다.⁵⁰⁾

이처럼 조철산에게 세조가 즉위하면서 2등 원종공신의 훈작을 내렸지만, 조철산은 세조2년에 발생한 단종복위 사건에 연루된다.

5. 단종복위 운동과 평양 조씨 가문

(1) 단종복위운동

세조의 즉위는 비록 선위 형식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지만, 계략에 따른 왕위의 강탈이었다. 이러한 처사에, 집현전 학자로서 세종의 신임이 두터웠던 성삼문·형조참판 박팽년·직제학 이개·예조참판 하위지·사예 유성원 등과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무인 유응부 등은 상왕으로서 수강궁에 있는 단종의 복위와 반역파의 숙청을 꾀하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1456년 세조 2년 6월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향응하는 기회를 타서 거사하기로 하였으나 계획이 어긋나자 김질·정창손 등은 사태의 불리하자 거사를 밀고하였다. 세조는 곧 성삼문 등에게 참혹한 고문을 가했으나 모두 굴하지 않았으므로 성삼문·박팽년·유응부·하위지 등은 거열형에 처해져 찢겨져 죽었고 유성원은 자기 집에서 자살한 후 역시 거열형을 당했다.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르며, 이에 연루된 자로 권자신·김문기 등 70여 명도 모두 처벌되었다. 백부, 숙부, 조부, 종조부, 사촌까지는 노비로 보내지거나 관노로 고을에 영속되거나 병사로 충군(充軍)당했고, 5촌 이상은 유배형을 당했다. 사육신 사건으로 500여 명에서 800여 명이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⁵¹⁾

49) [네이버 지식백과] 원종공신 [原從功臣]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50) 세조 1년 을해(1455, 경태 6) 12월 27일 (무진) 공신 교서 및 [네이버 지식백과] 원종공신 [原從功臣]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참조

(2) 단종복위 운동과 조청로(趙淸老)

조청로는 단종복위 사건 직전 경기우도 점마별감(點馬別監)⁵²⁾으로 강화도에 가서 목장 운영의 폐단을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강화부(江華府)의 진강(鎭江)·중장(中場)·길상(吉祥)의 세 목장은 연하여 설치한데다 각각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한격(限隔)하게 하니, 해마다 공역(功役)이 그치지 아니하고 말도 또한 경계를 넘어 달아나서 서로 혼동되어 목자(牧子)가 분별하기 어려워 쟁송(爭訟)하기에 이르니, 청컨대 3목장(牧場)을 합하여 하나로 하소서.” 하니, 병조에서 논의하여 그대로 따랐다.⁵³⁾

세조 2년(1456)의 단종복위 운동은 광범위한 탄압을 불러왔다. 이 사건으로 최소 500명에서 최대 800여명의 희생이 있었다. 조청로는 조철산의 형 조석산의 장남이다. 단종의 이모부이면서 단종 복위운동에 가담하여 아들 영서(英緒, 또는 榮緒)와 함께 처형당했다.⁵⁴⁾

세조 2년(병자) 6월 9일, 우의정 이사철이 역신을 주륙한 것을 하례하여 전문을 올리기를, “권자신·윤영손·조청로(趙淸老)·황선보·최사우·이호·권저(權著)와 연결하여 몰래 궁금(宮禁)에 연통하고, 안팎에서 서로 호응하여 날짜를 정해 거사(舉事)하여서 장차 과궁(寡躬)을 위해(危害)하고 어린 임금을 옹립하여 국정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흉포한 모략과 간악한 계략을 꾸며 그 죄역(罪逆)이 하늘을 뒤덮었다.”고 하였다.⁵⁵⁾

(3) 단종복위 모의 세력에 대한 연좌제 처벌

역모에 가담한 당사자는 무자비한 고문과 처벌이 뒤따랐을 뿐 아니라 친인척까지도 연좌 처벌을 받았다. 그 중에 사건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백부, 숙부, 조부, 종조부, 사촌까지는 노비로 보내지거나 관노로 고을에 영속되거나, 변방의 병사로 충군(充軍)당했고, 5촌 이상은 유배형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조청로의 삼촌숙인 조철산의 가족에게도 화가 미치게 되었는데, 조철산이 세종의 아들인 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璵)의 장인이었기에 딸은 연좌제를 피할 수 있었다. 또한 조청로의 아들인 조영서(趙英緒)의 아내는 익녕군(益寧君) 이치(李祔)⁵⁶⁾의 딸이었기 때문에 연좌되지 아니하였다.⁵⁷⁾

51) 위키백과 <사육신>

52) 점마별감(點馬別監) : 각처에 있는 목장(牧場)의 마필을 점고(點考)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네이버 지식백과] 점마별감 [點馬別監]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3.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53) 세조 2년 병자(1456, 경태 7) 2월10일 (기유)

54)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4권 「단종조 고사본말(端宗朝故事本末)」 <육신(六臣)의 상왕 복위 모의(上王復位謀議)>

동학사(東鶴寺) 《초혼기(招魂記)》

55) 세조 2년 병자(1456, 경태 7) 6월 9일

56) 태종의 8남

57) 세조 2년 병자(1456, 경태 7) 6월 14일 (임자)

조철산의 딸과 조영서의 아내(조청로의 며느리)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자 대사헌 신석조와 좌간 이종검이 상소하여 사사로운 은혜를 따르지 말고 강력한 처벌을 하라고 상소하기도 하였다.⁵⁸⁾

(4) 단종 복위 운동 세력에 대한 사회 경제적 처벌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신분을 천민으로 강등시키는 처벌과 재산을 몰수 하는 경제적 처벌이 뒤따랐는데, 의금부로 하여금 단종복위 모의에 연좌된 부녀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이담(李湛)의 아내 소사(召史), 박기년(朴耆年)의 아내 무작지(無作只), 이오(李午)의 딸 평동(平同), 이유기(李裕基)의 누이 효전(孝全)은 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璵)에게 주고, 조청로(趙淸老)의 어머니 덕경(德敬)·아내 노비(老非), 최득지(崔得池)의 아내 막덕(莫德), 이현로(李賢老)의 첩의 딸 이생(李生)은 좌의정 한확(韓確)에게 주었다.”⁵⁹⁾

그리고 전지(田地)를 몰수하여 종친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조청로(趙淸老)의 홍주(洪州) 전지는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에게 내려 주고, 통진(通津) 전지는 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璵)에게 내려 주고, 양천(陽川) 전지는 좌참찬(左參贊) 황수신(黃守身)에게 내려 주고, 청주(淸州) 전지는 도승지(都承旨) 한명회(韓明澮)에게 내려 주었다.⁶⁰⁾

한편 미성년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바로 연좌제에 연루시키지 않고 성년이 되는 때를 기다려서 죄를 주었다. 조청로의 아들 조복중(趙卜中)이 어른이 되자마자 관노(官奴)로 영원히 배속시켰던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성년이 되는 기준은 16세였다.⁶¹⁾

(5)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벼슬에 나아가지 않다.

세조 6년(1460) 12월 3일에 임금이 홍순손(洪順孫)·조철산(趙鐵山)·이효온(李孝溫)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삼았다.⁶²⁾

그런데 곧 얼마 안가서 이듬해 7월 12일에 또 이예(李芮)·조철산(趙鐵山)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삼았다.⁶³⁾

傳旨義禁府曰：“判中樞院事李季甸、穩城府使柳士枝、典農少尹趙鐵山及趙淸老子英緒妻等勿緣坐。”季甸，李塏三寸叔也，鐵山，淸老三寸叔而翼峴君璵妻父也，英緒妻益寧君祔女子也，故有是命。

58) 세조 2년 병자(1456, 경태 7) 7월 12일 (기묘)

伏望殿下母徇私恩，斷以大義，將瑜等亟置於法，以絕禍本。夫律有緣坐者，其意誠以誅止其身，則無以懲大惡而戒後世也。今李季甸、李孟珍、柳士枝、趙鐵山、趙英緒妻等，法當緣坐者也，獨置而不問，爵位自若，大逆之罪，實關宗社，則豈殿下所得而私之哉？

59) 세조 2년 병자(1456, 경태 7) 9월 7일 (갑술)

60) 세조 3년 정축(1457, 천순 1) 3월 23일 (병술)

61) 세조 4년 무인(1458, 천순 2) 2월 9일 (무술)

62) 세조 6년 경진(1460, 천순 4) 12월 3일 (을해)

중추원은 조선 건국과 함께 1392년에 설치되었다. 1400년(정종 2)에 삼군부(三軍府)로 고쳤다가 1409년(태종 9)에 중추원으로 복구하였으나, 1466년(세조 12) 중추부(中樞府)로 고쳐 문무(文武) 당상관으로서 임직(任職)이 없는 자를 일정한 사무를 맡기지 않고 우대하는 의미로 두게 되었다. 정원은 영사(領事:정1품) 1명, 판사(判事) 2명, 지사(知事) 2명, 동지사 7명, 첨지사(僉知事) 8명, 경력(經歷) 1명, 도사(都事) 1명을 두었으며, 경아전(京衙前)의 녹사(錄事) 4명, 서리(書吏) 6명이 이에 속했다. 그 후에는 지사·동지사·첨지사 등의 공석(空席)이 나면 승전(承傳)한 의관(醫官)·역관(譯官)으로 충원하였다.⁶⁴⁾

조철산에게 중추원의 첨지사(僉知事) 연달아 임명한 것을 보면, 조철산이 그 직책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송산 조건의 유훈에 따라 조철산의 장남인 조인(趙軫)은 봉정대부(奉正大夫) 전연사(典涓司) 별좌(別坐)에 임명되지만 벼슬에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셋째인 조식(趙軾)은 어모장군 충좌위 부호군(禦侮將軍 忠佐衛 副護軍)에 여러 차례 음직을 제수 받았지만 나아가지 아니하였다.⁶⁵⁾

III. 두문동 72현과 三世三忠

1. 두문동72현의 의미

두문동72현은 대체로 고려 말의 충신으로서 절개를 세우고 의롭게 죽은 사람이 많았다. 그 외에도 세상을 등지고 숨어서 벼슬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은데 그 모두를 통틀어서 두문동72현이라고 부른다. 그 의리가 같기 때문에 비단 송경에서 숨어 지냈던 사람들만 일컫는 것은 아니다.⁶⁶⁾

그래서 고려시대의 충신을 따로 고려수절신(高麗守節臣)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⁶⁷⁾

두문동72인은 고려의 유신인 신규, 조의생, 임선미, 이경, 맹호성, 고천상, 서중보 등 72인을 가리킨다. 이들은 끝까지 고려에 충성을 다하고 지조를 지키기 위해 이른바 부조현(不朝峴)이라는 고개에서 조복(朝服)을 벗어던지고 이곳에 들어와 새 왕조에 출사하지 않았다. 조선 왕조는 두문동을 포위하고 고려 충신 72인을 불살라 죽였다고 전해지며, 또 일설에는 동두문동과 서두문동이 있어서 동두문동에는 고려

63) 세조 7년 신사(1461, 천순 5) 7월 12일 (경술)

64) [네이버 지식백과] 중추원 [中樞院] (두산백과)

65) 평양조씨 족보

『성인록(成仁錄)』, 『고려 충의열전』

66) 『騎牛先生文集』 卷之二 附錄

杜門洞七十二賢錄 - 麗末。忠臣立節死義者多。其餘則杜門屏迹於當世。或不仕自靖者。通稱杜門洞七十二人。同其義理。而不但屏居於松京之謂也。

67) 김정자, 두문동 72현의 선정인물에 대한 검토, <부대사항>제22집, 1998. 9.,

하태규, 고려수절신 가문의 지방분산과 그 정치적 동향, <전라문화논총>5, 1992

의 무신 48인이 은거하였는데 산을 불태워 모두 죽였다고 한다. 이후 정조 때에 와서야 그 자리에 표절사(表節祠)를 세워 그들의 충절을 기렸다.

두문동 72현에 관한 최초 문헌은 고종 9년(1872년)에 나타난다.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인 기우자(騎牛子) 이행(李荇)의 후손이 편찬한 문집(文集) ‘기우집(騎牛集) 임신본(壬申本)’이다. 그리고 두문동 72현을 새롭게 꼽은 또 다른 문헌은 1924년에 강호석이 철종 11년(1860)에 간행된 ‘화해사전(華海師全)’의 명단을 참조해 작성한 ‘전고대방(典故大方)’이란 인물지(人物誌)다. 물론 두 문헌은 명단에서 큰 차이가 있다. 겹치는 인물이 30명이고, 42명이 서로 다르게 선정되어 있다. ‘기우집(騎牛集) 임신본(壬申本)’은 정몽주를 중심으로 고려 말 충신들을 포괄적으로 선정했고, ‘전고대방(典故大方)’은 두문동에 들어갔던 시기를 중심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 순조 때 72인의 한 사람인 성사제의 후손이 그의 조상에 관한 일을 기록한 『두문동실기(杜門洞實記)』가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 당시 많은 선비들이 은거함에 따라 두문동이라는 곳이 나라 안 여러 곳에 남아 있다.⁶⁸⁾

그런데 실제로 두문동이라는 지명은 전국에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개성 부근에 있는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廣德山) 서쪽의 골짜기 두문동을 필두로 하여 충남 금산군 남이면 대양리 두문동, 경기도 포천 두문동, 강원도 정선 두문동, 강화군 내가면 두문동 등등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두문동 72현의 정확한 명단은 없으며 그 숫자가 각 문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두문동 72현이라는 말은 일차적으로 고려 말의 충신들을 일컫는 것이지만 조선 초기의 단종 복위사건과 연루된 인물들도 다수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고려 말의 충신들과 단종에 대해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지닌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성심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조철산과 두문동 72현 기록

조철산은 『騎牛先生文集』에 부친 趙胤(조건의 개명 전 이름)과, 성남에 은둔했던 김약시(金若時)등과 함께 두문동72현으로 기록되어 있다.

두문동 72현의 명단에 조철산의 이름이 실린 문헌은 『麗末 忠義列傳』, 『奎章閣 忠烈錄』, 『成仁錄』, 『景賢祠誌』, 『高麗統一大殿』, 『城南人物誌』, 『평양조씨 대동보』 등이다.

(1) 『奎章閣 忠烈錄』에는 조운(趙胤)과 아들 철산(鐵山), 손자 식(軾)을 기록하였다. 조철산과 조식이 유훈에 따라 벼슬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었고, 조식이 숨어 지냈던 김포의 골짜기를 원통(元通)이라 하고, 송산공이 청계산에 머물렀던 곳을 원적(元適)이라 한다고 기록되었다.

68) 위키백과, 두문동 72명

(2) 『成仁錄』,에는 송산 조건과 석실공 철산의 실기(實記)를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삼세충절이라 한다고 기록하였다.

(3) 『景賢祠誌』,에 조건과 조철산이 등재되었다. 조철산은 중추원사에 임명되어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벼슬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었다.

(4) 부사 김춘(金椿)이 찬(撰)한 『해동충의록(海東忠義錄)』에는 고려조의 충신으로서 죽지 않고 은둔하여 지낸 인물로 정몽주를 비롯해 길재, 이색, 조건 등을 기록하였는데, 여기에는 정몽주(鄭夢周), 이집(李集) 등 고려가 망하기 이전에 세상을 뜬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⁶⁹⁾

(5) 채동설 편, 전길수 주해, 『麗朝忠烈錄』 : 조철산이 중추원사에 임명되어도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아들 조식이 호군(護軍)에 임명되어도 역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

(6) 『杜門洞實記』 - 순조9년(1809)에 조선왕조에서 벼슬하지 않은 두문동(杜門洞) 72인의 한 사람인 성사제(成思齊)의 작품을 중심으로 엮은 실기,

(7) 『杜門洞遺事』 - 장석진 편, 장석영 교정, 1917년 발행되었다. 조건과 조철산을 기록

(8) 『두문동서원안내』 - 송영구 저, 편집 겸 발행인 공성학, 한성도서 주식회사에서 소화 12년(1937) 4월 25일 발행.

3. 두문동 72현의 역사적 의미

(1) 맹사성의 사례

조선시대 충효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맹사성(孟思誠)의 초기 관직 생활은 고난했

69) 貞齋先生逸稿卷之三 摭遺 <海東忠義錄>

麗朝忠臣不死自靖之人。鄭夢周, 吉再, 李穡, 金澍, 趙胤, 韓喆仲, 羅天瑞, 金若時, 鄭溫, 金自粹, 徐甄, 崔文漢, 許徵, 趙据, 李思敬, 成溥, 趙承肅, 李明誠, 閔安富, 金明理, 鄭地, 李養中, 金震陽, 安省, 金若恒, 河自宗, 裴尙志, 李釋之, 崔養, 卬信忠, 車原頰, 金士廉, 李行, 邊肅, 孟希道, 申德隣, 申包翹, 金冲漢, 金光致, 李涓, 李種學, 李陽昭, 朴宜中, 閔愉, 元天錫, 文益漸, 林先味, 曹義生, 孟姓人, 朴門壽, 林貴緣, 蔡貴河, 成汝完, 崔清, 郭樞, 趙鐵山, 尹忠輔, 柳珣, 蔡王澤, 宋皎, 南乙珍, 趙瑜, 李集, 姜撲。楊根有洗耳亭歸農浦。廣州有望主峴。若盧侍中, 白尙書, 趙舍人, 漁隱, 歸隱之流。未得傳名。良可悲夫。<府使金椿撰>

다. 맹사성은 명재상이자 청백리이며, 『三綱行實圖』에 실릴 정도의 효자였고, 조선 초기 향악(鄕樂)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이해되어 왔는데, 이러한 모범적인 모습은 세종대 이후 맹사성에 주목한 것이었다.

맹사성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리고 최고 실권자였던 최영의 손녀와 결혼함으로써 순조롭게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1388년 일어난 위화도 회군으로 처가가 몰락하고, 조선 건국 이후 개국 공신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시련을 겪게 되었다.

맹사성은 조선 건국 이후 태종말까지 26년 4개월 가운데, 정확히 절반에 해당하는 13년 2개월 동안, 1번의 좌천과 3번의 파직, 2번의 유배를 경험하며 사지(死地)를 넘나들었다. 맹사성의 초기 관직 생활이 불우했던 것은, 은연중에 개국 공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관제개혁의 모델로서 고려 초기를 염두에 두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즉 맹사성은 조선 건국 이후에도 부지불식간에 고려시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맹사성의 우유부단한 태도나 부주의한 업무 처리도 정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몇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맹사성은 태종대 주요 인물 대부분과 친밀했지만, 어떠한 정치세력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공적인 업무 외에는 일체의 하위 관료와 접촉하지 않아, 각종 청탁이나 비리에도 무관하였다. 맹사성이 태종대까지의 역경을 거치고 세종대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절제와 도덕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⁷⁰⁾

(2) 송은 구홍(松隱 具鴻)의 절의정신(節義精神)

송은 구홍은 고려 말 두문동 72현 중의 한 사람이다. ‘두문동 72현’이란 말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72인의 升堂弟子를 지칭하던 수와 관련을 지어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독특한 용어로서,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유교적인 불사이군 또는 수절불이(守節不貳)의 절의정신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구홍은 고려가 망하자 朴門壽, 成思齊 등과 더불어 不朝峴에 올라 “伯夷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伯夷何人, 我何人)”라고 자신의 뜻을 말하고 두문동에 들어가 절의를 지키다 운명하였다. 구홍을 비롯한 고려의 節臣이 숨은 곳을 두문동이라 하고 그들을 두문동 72현이라고 부른 것은 고려의 멸망과 더불어 일찍이 지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이 영조 이전까지의 공식적인 문헌인 실록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논의는 구전으로 민간에서 통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영조조에 이르러 두문동 72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 되었는데, 영조는 두문동 72현의 유적에 碑石을 건립하고 致祭를 하는 등 그들의 절의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후인의 귀감이 되게 하였다. 정조는 영조의 뜻을 이어 받아 표절사(表節祠)를 건립하여 두문동의 제현을 봉안하고 향사를 지내게 하였다. 표절사는 고종 8년(1871)에

70) 이정주, 태조~태종 연간 孟思誠의 정치적 좌절과 극복, 朝鮮時代史學報. 50 (2009. 9) pp.5-40

서원 철폐령에 의하여 훼손(毀撤) 되었는데, 1935년에 유림에 의하여 개성에 두문동서원(杜門洞書院)으로 재건되었다. 두문동 72현의 절의정신은 고려 말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나타난 한국유학의 의리정신의 원류로서 이후 한국인의 출처관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⁷¹⁾

(3) 조철산과 조청로에 대한 추모

영조임금과 정조임금 때에 와서 두문동 72현에 대한 추모사업이 진행되었다. 영조는 두문동 72현의 유적에 碑石을 건립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 등 그들의 절의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후인의 귀감이 되게 하였다. 정조는 영조의 뜻을 이어 받아 표절사(表節祠)를 건립하여 두문동의 여러 충절 인물들을 봉안하고 향사를 지내게 하였다.

정조임금은 또한 단종의 장릉에 충신들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조청로(趙淸老)와 그의 아들 영서(英緒, 英은 榮으로도 씀) 병자년(1456, 세조2)에 성삼문과 함께 모의를 하다가 모두 죽었다.⁷²⁾하였고, 장릉 배식단에 배향할 사람들의 명단은 정단(正壇)에 배식한 사람은 32인(안평대군 등), 별단(別壇)에는 1백 인인데 사적이 자세하지 않은 사람이 8인, 연좌되어 죽은 사람은 1백 90인(조청로 등)이었다.⁷³⁾

이후 순조 11년(1811) 3월 20일에는 사육신의 난 때 화를 당한 충신 조청로(趙淸老) 및 그의 아들 조영서(趙榮緒)에게 정려(旌閭)하도록 정려하도록 명하였다.⁷⁴⁾ 이것은 예조에서 유생의 상언으로 인하여 조청로의 부자가 단종조(端宗朝) 육신(六臣)이 화를 입는 날에 자신의 몸을 버려 의리에 순절(殉節)하였으니, 합해서 포전(褒典)을 시행해야 한다고 아뢰었기 때문이다.

(4) 일제 강점기에도 추진된 추모사업.

일제 강점기의 암흑기에도 두문동 72현에 대한 추모 사업은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동농 임하영에 의해 개성에 새로 세워진 두문동 서원은 10월 12일 오후 1시에 개풍군 두문동에서 사원을 신축하였는데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전남 고흥, 경남의령, 차원, 전라도 남원, 경남 사천, 충청도 홍성, 경상도 산청, 충청도 대덕, 서산 등지에서 까지도 온 사람들도 있었다.⁷⁵⁾ 이 때 발행된 서원 안내 책자에는 선죽교를 비롯한 개성 주변의 두문동 관련 사진과 서원 설립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과 배향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서원설립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전형필

71) 구본옥, 두문동 칠십이현과 송은 구홍의 절의정신,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7호 (2005. 8) pp.321-353. 경북대학교퇴계연구소, 2005.08.31

72) 『홍재전서(弘齋全書)』 제60권 「잡저(雜著)」 7 <장릉배식록(莊陵配食錄)>, 별단(別壇) 236인

73) 정조 15년 신해(1791, 건륭 56) 2월 21일 (병인)

74) 순조 11년 신미(1811, 가경 16) 3월 20일 (무진)

75) 고려시보사 1936년 11월 1일자

『두문동서원안내』 - 송영구 저, 편집 겸 발행인 공성학, 한성도서 주식회사에서 소화 12년 (1937) 4월 25일 발행.

의 이름도 보인다.

1932년 3월 17일, 1934년 6월 21일 신한민보의 기사에도 두문동 72현 추모에 관한 글이 실리기도 하였고, 1917년 『두문동유사』, 1924년 『전고대방(典故大方)』 발행, 1928년 『두문동록』, 1935년에는 『杜門洞實記』(乾坤) 2권이 발행되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선조들은 애국 충신들을 더욱 더 기리는 일에 매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IV. 맺음말

성남에는 고려 말 조선 초기의 혼란스런 시기에 끝까지 충절을 지켜 온 평양 조씨 가문이 600여년의 세거역사를 가지고 있다. 평양 조씨 문중의 대표적 인물인 송산 조견은 기울어 가는 고려에 끝까지 충절을 굽히지 아니하였고, 새로 건국된 조선 조정에서 고위직을 제안하여도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송산 조견(松山 趙狷)의 자는 거경(巨卿), 처음 이름은 윤(胤)이었다. 고려가 망하니 자를 종견(從犬)으로, 이름은 견(狷)으로 고치고 호를 송산(松山)이라 하였다. 조선개국의 1등공신인 조준(趙浚)의 아우이다. 시호는 평간(平簡)이다. 다스려서 잘못이 없는 것이 평(平)이요, 화평하고 온순하여 시비가 없는 것이 간(簡)이다. 양주의 정절사(旌節祠), 송산사(松山祠)에 배향되었다. 송산사(松山祠)는 현재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제42호로 지정되었고, 묘역은 중원구 여수동 산30번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성남시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2001. 2. 20)되어 보호되고 있다. 그 밖에 불천위신주를 모신 사당(공주시 향토유적 8호)이 있다.

1425년 5월 3일 세종실록에 기록된 <평성부원군 조견의 졸기>에 보면, 여러 절의 주지를 역임하다가 30세가 넘어 환속, 문과에 급제하여 고려 말 안렴사(按廉使)가 되고, 조선이 개국하자 상장군으로 개국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고 한다.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하고, 1421(세종3)년 3월 23일에는 계장(几杖)을 하사받고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으로 승격되었다. 그가 별세하자 조회를 정지하고, 백관들에게 검은 띠를 3일 동안 차도록 명하였다. 부의를 하사하고 관에서 장례를 치러주었다.

실록의 기록에 조견이 조선의 벼슬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태조3년에 경상도 도절제사, 태조6년 절제사의 소임이 부족한 탓, 정종 2년 정도전의 난에 두문불출한 죄, 태종2년 사온사의 명을 받고도 병을 핑계대고 수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탄핵을 받았던 사실들로 보아 최소한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던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특히 후대의 기록에서는 조견이 조선의 벼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온다. 이유원의 문집 『임하필기』에는 고려가 망하자, 달아나 송산에 이르러 이름을 견(犬)이

라는 부수가 들어간 견(狷)으로 고치고 호를 송산(松山)이라 하였다. 대개 이름은 견마(犬馬)가 주인을 그리워하는 뜻이고, 호는 산이 움직이지 않고 소나무가 시들지 않는 뜻을 담은 것이었다. 조준은 아우가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몰래 개국훈(開國勳)에 기록하여 억지로 평성부원군에 봉하였다. 조견은 자손에게 훈계를 남겨 비석에 '고려 안렴사'라고만 쓰고 조선의 벼슬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자손들이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한 결 같이 훈적(勳籍)대로 썼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석의 벼슬을 쓴 부분을 내리쳐 '조공견지묘(趙公狷之墓)' 다섯 글자만 남게 되었다.

조견은 세상을 떠날 때 후손들에게 조선의 벼슬을 하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그의 아들들은 부친의 유언에 따라 평범한 삶을 누리며 살았다.

아들들의 이름을 석산(石山), 철산(鐵山), 수산(壽山)은 이름 그대로 돌이나 철과 같이 굳세게 오래도록 굳은 지조를 지니라는 뜻으로 지어진 것이었다. 철산은 조견의 둘째 아들이자 한 때 그다지 높지 않은 벼슬길에 나아가기도 하였지만 불사이군의 충절심을 지니고 있었다. 조철산의 묘표 뒷면에는 조철산의 성품을 나타내는 구절이 <淸直溫恭 不依時勢>라 새겨져 있다. 성품이 맑고 곧으며, 온순하고 공순하여 시세(時勢)에 기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성품이 시대적인 기회와 권력에 아부하고 기대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조철산의 행적은 고려시대에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묘표에는 1465년에 62세로 별세한 것으로 새겨져 있어서 1404년에 출생하였으므로 고려시대에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한 때 그다지 높지 않은 관직에 있기는 하였지만 단종복위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관직에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첨지중추원사라고 하는 벼슬도 연달아 두 차례 내려지지만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단종 복위사건에는 형인 조석산의 장남인 조청로 부자가 연루되어 처형되었고, 조철산 역시 연좌되어 처벌을 받을 대상이었는데 세종의 7남인 익현군 璉이 사위였으므로 화를 면하게 되었다.

성남의 평양 조씨는 삼세삼충의 가문으로 충절의 모범이 되었다. 국가가 바뀌는 대변혁기와 조선 건국 초기의 정권 격동기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멀리 한 채 절의를 지켜왔다. 현대사회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시류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은 지조를 지키는 선비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조선왕조실록』

『평양조씨 대동보』

『신증 동국여지승람』

- 이승소(李承召), 『삼탄집(三灘集)』 제14권,
 「세종장헌대왕친릉지석문(世宗莊憲大王遷陵誌石文)」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4권 「단종조 고사본말(端宗朝故事本末)」
 『홍재전서(弘齋全書)』 「장릉배식록(莊陵配食錄)」
 동학사(東鶴寺) 『초혼기(招魂記)』
 『성인록(成仁錄)』
 『고려충의열전』
 『騎牛先生文集』
 『奎章閣 忠烈錄』
 『景賢祠誌』
 『해동충의록(海東忠義錄)』
 『麗朝忠烈錄』
 『杜門洞實記』, 1809년(순조9)
 『杜門洞實記』(乾.坤) 1935. 문화사
 『杜門洞遺事』, 1917
 『杜門洞錄』, 1928
 『杜門洞錄』, 경신년
 『두문동서원안내』
 『英宗大王 御製 御筆』
 『高麗名臣傳』
 『성남금석문대관』, 성남문화원
 『성남인물지』, 성남문화원
 김정자, 두문동 72현의 선정인물에 대한 검토, <부대사학>제22집, 1998. 9.
 김정자, 소위 ‘두문동72현’의 정치성향, <부대사학>제15. 16합집(
 하태규, 고려수절신 가문의 지방분산과 그 정치적 동향,
 <전라문화논총>5, 1992
 이정주, 태조~태종 연간 孟思誠의 정치적 좌절과 극복,
 <朝鮮時代史學報> 50 (2009. 9) pp.5-40
 구분옥, 두문동 72현과 송은 구홍의 절의정신, <退溪學과 韓國文化>제37호 (2005. 8)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5.08.31.
 황재문, 두문동72현 일화연구
 고려시보사 1936년 11월 1일자
 신한민보 1932년 3월 17일, 1934년 6월 21일
 디지털 성남문화대전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여 백

석실(石室) 조철산(趙鐵山), 그의
생애와 묘역

손 환 일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

여 백

석실(石室) 조철산(趙鐵山), 그의 생애와 묘역

손 환 일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

목 차

I. 고려 말 조선 초 평양조씨의 정치적 배경

1. 평양조씨의 정치적 배경
2. 조건의 선조와 행적
3. 조철산의 행적

II. 조철산 묘역의 금석문

1. 조철산의 묘표
2. 정경부인이씨의 묘표

III. 맺음말

I. 고려 말 조선 초 평양조씨의 정치적 배경

1. 평양조씨의 정치적 배경

고려시대 친족구조는 부계 중심이 아닌 양측적 친속관계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상속관계가 부계 중심으로만 운영된 것도 아니었고, 정치적 세력집단도 부계의 친족집단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력자와의 개인적 관계에 따라 결성되고 있었다. 3촌이나 4촌간은 물론이고 형제간에도 세력집단을 달리할 정도였다.

관료의 지속적인 배출은 세족층이 문벌로서의 지위를 유지해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특정 시기에 권문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관료 배출이 지속되지 않는 한, 그 권력은 당대에 그치고 가문이 쇠락해 간 반면, 비록 권력층으로 부상하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관료를 배출한 경우는 세족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관료배출과 정치기구에의 참여는 세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었다. 세족층은 권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관료를 배출하여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문벌적 지위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평의사사 등 정치기구를 매개로 정치활동을 전개하면서 정

치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 후기 세족층은 관료적 성격을 갖는 지배세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세족층은 고려시대 대표적인 입사로(入仕路)였던 음서와 과거에 의존하여 관료를 배출하고 있었다. 음서에 의해 관료가 되는 것은 과거에 합격한 경우보다 문한직(文翰職)을 갖지 못하는 등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음서는 과거에 비해 일찍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세족층이 관료배출을 지속시키면서 문벌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었다.

고려 후기 세족은 가문배경이나 경제적 기반에 있어 동질성을 갖는 지배세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세력으로서의 동질성이 세족가문끼리 굳건한 연대나 공통의 정치적 지향을 갖게 했던 것은 아니다. 세족층은 권력기구에 참여하여 권문층이 된 가문이 있는가 하면, 부원세력으로서 고려의 국익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일삼았던 가문도 있고, 본질적으로는 사회모순의 주체일 수밖에 없으면서도 권력독점 현상 등 파행적·기형적인 정치행태에 비판적이거나 현실의 민생문제를 개선하려 한 개혁세력도 있었다.

세족층의 이러한 내적 분화는 동일한 가계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예컨대 황려 민씨의 경우 민환(閔渙)처럼 충혜왕의 폐행이 되어 전횡을 일삼았던 인물이 있는가 하면,⁷⁶⁾ 민지(閔漬)·민종유(閔宗儒)·민상정(閔祥正)·민제(閔霽) 등과 같이 개혁정치에도 참여하고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활동했던 인물들이 있었다.⁷⁷⁾ 안동 권씨의 경우 권재(權載)와 권겸(權謙)은 형제간이면서도 그 정치적 지향을 달리하고 있었다. 권재는 충숙왕 대에 심왕과의 책동을 저지했고 충목왕 대에도 정치도감의 판사로 활동하면서 개혁정치를 주도한 반면,⁷⁸⁾ 권겸은 부원세력으로 지목되어 공민왕대에 숙청당한 바 있기 때문이다.⁷⁹⁾ 세족층의 이러한 내적 분화는 그 자체로는 세족층의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가문 단위로 보면 오히려 이것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 가세를 유지·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즉 세족가문 내 특정인물이 권력 교체기에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어 몰락한다 하더라도,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세력이 넓게 자리 잡고 있음으로 해서 그 가문 자체는 몰락하지 않고 가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만큼 세족층은 문벌로서의 지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기반이 튼튼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세족층은 당시 권력구조 내에서의 위치나 대원관계, 그리고 현실인식의 차이에 따라 내적 분화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이 고려 후기 세족층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적 분화는 가문이나 개인에 따라 기득권을 향유하는 방식을 달리한 결과로서, 원간섭기 개혁정치는 세족층의 내적 분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체로 과거출신 관료가 많은 세족가문일수록 개혁세력으로 활동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세족층은 가문내 인물들의 학문적 성향과 현실인식의 차이에 따라 개혁정치의 참여 여부

76) 『高麗史』 권 124, 列傳 37, 壁幸 2, 閔渙.

77) 『高麗史』 권 107, 列傳 20, 閔漬 및 권 108, 列傳 21, 閔宗儒.

78) 『高麗史』 권 110, 列傳 23, 王熙.

79) 『高麗史』 권 131, 列傳 44, 叛逆 5, 權謙.

를 둘러싸고 분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세족층은 우왕대 이인임정권의 등장과 위화도회군 후 이성계집단의 권력장악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내적 분화를 보이고 있었다. 우왕대에는 이인임을 중심으로 족당세력이 형성되어 이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세족층 가운데는 여기에 참여하여 권력을 향유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광주 김씨 김숙명의 경우와 같이 이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세족층이 상당수 있었다. 또한 우왕 즉위 초 北元 사신의 영접문제를 둘러싸고 이인임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권력투쟁을 전개하고 있을 때 김구용(金九容)·윤호(尹虎) 등 세족 층의 일부는 신진사대부와 노선을 함께하여 숙청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우왕대 세족층은 이인임정권에 대한 정치적 대응방식과 외교노선에 따라 내적으로 분화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화도회군 이후 세족층은 사전개혁과 왕조 교체과정에서 그 대응방식을 둘러싸고 분화하고 있었다. 사전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했던 세족출신은 정치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성계 집단이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왕조 교체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김저(金佇)의 옥이나 윤이(尹彝)·이초(李初)사건, 정몽주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들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⁸⁰⁾가 있다.

상당수의 세족출신 인물들이 숙청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세족출신 가운데 일부는 사전개혁을 추진하거나 왕조 교체에 협조하고 조선건국을 주도하면서 그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도 하였다. 조선건국 후 개국공신이 된 조준(趙浚)·조견(趙狹)·조박(趙璞)·김사형(金士衡)·이제(李濟)·이직(李穰)·정충(鄭攄)·정탁(鄭擢)·윤호(尹虎)·이근(李愍)·한상경(韓尙敬)·민여익(閔汝翼) 등⁸¹⁾은 사전개혁을 주도했거나 왕조 교체에 협조했던 대표적인 세족출신 인물들이다. 물론 이들 세족출신 인물들이 모두 현실 개혁적 입장을 갖고 있어서 조선건국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 가운데는 이성계 가문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결합되고 있던 부류들도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⁸²⁾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세족출신이 조선건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신진사대부 가운데 급진적 개혁파가 조선건국을 주도하기는 했지만, 세족출신의 일정한 협조 아래 성공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태진은 신흥세력이라 하더라도 사대부들에게는 신분적 지위 향상의 욕구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신진사대부는 세족출신이 그들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는 한, 정치적 신분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그들과의 제휴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였다.⁸³⁾ 현실정치의 상황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할 수밖에

80) 李相佰, 「李成桂와 高麗末期의 政爭」(『李朝建國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9).

鄭在勳, 「朝鮮王朝 建國過程에서의 舊勢力」(『考古歷史學志』 2, 1986).

趙啓鑽, 「朝鮮建國과 尹彝·李初事件」(『李丙燾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7).

李亨雨, 「鄭夢周의 政治活動에 대한 一考察」(『史學研究』 41, 1990).

81) 韓永愚, 「朝鮮 開國功臣의 出身에 대한 연구」(『朝鮮前期社會經濟研究』, 乙酉文化社, 1983).

82) 朴天植, 앞의 글(1985), 63~65쪽.

83) 李泰鎮, 「15世紀 後半期の 「鉅族」 과 名族意識」, 『韓國史論』 3, 서울대, 1976, 302~303쪽.

에 없었던 세족층으로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선건국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세족의 상당수는 왕조 교체라는 정치변동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가세를 유지하여 계속 지배세력으로 남을 수 있었다.

2. 조건의 선조와 행적

평양조씨(平壤趙氏)의 시조는 조춘(趙椿)으로 고려 때 남송(南宋)에 가서 금(金)나라를 정벌하는 데 큰 공을 세워 송나라 상장군(上將軍)이 되었다. 조춘은 상원(祥原, 현 평안남도 중화)에 정착하여 4세손까지 내려오다가 5세손인 조인규(趙仁規)의 딸이 충숙왕의 비가 되자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에 봉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후손들은 상원에서 평양(平壤)으로 본관을 바꾸고 조춘을 시조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평양조씨 가문이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 때는 조인규가 몽고어 통역관으로 최고위 관직에 오르면서부터이다.

이후 조인규의 증손 조준(趙浚, 1346¹⁾(충목왕 2) ~ 1405(태종 5)이 개국공신에 참여하며 명문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기 시작하였다. 많은 후손들의 분파하여 전국 각지로 흩어졌으며, 현재에도 경기도 수원시,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고령 등의 지역에서 번영해오고 있다. 평양조씨들은 시조 조춘 이후 많은 지역으로 분파, 세거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중 논산에는 평양조씨 10세손인 조인(趙軫)의 후손들인 별좌공파 후손들이 살고 있다. 조인은 조철산(趙鐵山)의 큰아들로 봉정대부전연사별좌(奉正大夫 典涓司 別坐)의 관직이 내려졌으나 할아버지인 송산 조건의 유훈으로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조건(趙狷, 1351?~1425?)의 자는 거경(巨卿), 호 송산(松山). 초명 윤(胤), 시호 평간(平簡). 판도판서(版圖判書) 덕유(德裕)의 아들이다. 견은 조준(趙浚)의 동복 동생으로 일찍이 감문위 상호군(監門衛上護軍)을 제수하였다가, 태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개국공(開國功)에 등록하고 협찬 공신(協贊功臣)의 공신권(功臣券)을 주고 평양군으로 봉하였다가, 고쳐서 평성군으로 봉하고 부원군으로 승격되었다. 견(狷)은 타고난 성품이 굳세고 곧았다. 젊어서 중이 되어 여러 사원(寺院)의 주지를 역임하였다가, 나이 30이 지나서야 머리를 기르고 승직(僧職)으로 인하여 처음에 좌윤(左尹)에 임명되었다. 전일에 중이 되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어, 남들의 말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미치면 곧 노하였다. 집의 살림이 부유하였고 죽을 때의 나이 75세이었다. 조회를 정지하고, 부의를 하사하고 관에서 장사를 치러 주었다. 시호를 평간(平簡)이라 하니, 다스려서 잘못이 없는 것이 평(平)이요, 화평하고 온순하여 시비가 없는 것이 간(簡)이다. 세 아들이 있으니, 조수산(趙壽山)·조석산(趙石山)·조철산(趙鐵山)이었다.⁸⁴⁾ 『국조인물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84) 『世宗實錄』 28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5월 3일(임신) <평성 부원군 조건의 졸기>

“공(公)의 초휘(初諱)는 윤(胤)이다. 고려조의 거경(巨卿) 정숙공(貞肅公) 조인규(趙仁)의 증손으로 본관은 평양(平壤)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학문에 힘쓰고 예를 닦았다.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공과 친하게 사귀었는데, 장성하여서는 정공(鄭公)의 추천으로 화관직(華貫職)을 역임하였고, 경악(經幄)에 출입하며 벼슬이 지신사(知申事)에 이르렀다. 고려 말에 정치가 쇠퇴하여 나랏일이 날로 어지러워갔다. 공의 형인 조준(趙浚)이 모반에 참여할 뜻이 있음을 알고는 일찍이 눈물을 머금고 말하기를, “우리 가문은 나라에서 대대로 지체 높은 처지가 아닙니까? 존망(存亡)을 나라와 함께 할 뿐입니다. 아울러 달가(達可, 정몽주의 자(字))는 나라의 주석(柱石)이니 일언(一言) 일사(一事)도 그와 다른 길을 찾는다면, 이는 나랏일을 방해하고 나라의 멸망을 재촉하는 일입니다.”하였다. 그 말이 매우 격절(激切)하므로 송당(松堂, 조준의 호(號))은 공의 뜻을 바꿀 수 없음을 알고는, 조정에 논의하여 일부러 공을 영남(嶺南)에 안렴사(按廉使)로 내보냈다. 공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자, 조정에서 다들 ‘나라의 병폐를 이제 거의 혁파해 가는 데, 지금 갑자기 조정으로 돌아오면 그 공효(功效)를 끝까지 추구할 수 없게 된다.’하고, 다시 공을 안렴사로 내보냈다. 그 뒤로 공은 더 이상 내직에 있지 못하였다. 공이 영남루(嶺南樓)에 올라 남긴 시가 전해온다. 임기가 차서 돌아오기 전에 고려의 국운(國運)이 마침내 다하였으므로 공은 통곡하며 황황히 두류산(頭流山)으로 은거하였다. 태조 대왕이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재능을 아끼어서 호조 전서(戶曹典書)에 명하고 글을 내려 불렀는데, 공은 사직하고 받지 않으며 답하기를, “송산(松山)에서 고사리를 캐먹는 것이 소원이요, 성인(聖人)의 백성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였다. 이어 이름을 견(狷)으로, 자(字)를 종견(從犬)으로 고쳤는데, 이는 나라는 망하였는데 구차히 목숨만 살아있으니 개와 같고, 또한 개도 옛 주인을 연모하는 의리가 있음을 취한 것이었다.

두류산에서 청계산(淸溪山)으로 옮겼는데, 이곳은 정숙공이 마음 편히 쉬던 곳으로 그 영당(影堂)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로 높이 올라 탄식도 하고 때론 계곡에서 시를 읊기도 하였다. 매번 가장 높은 석봉(石峰)에 올라 송경(松京)을 멀리 바라보며 통곡하였는데, 계수(溪樹)와 산운(山雲)도 슬퍼하고 아무 빛깔이 없었다. 공이 통곡할 때 검은 구름이 송악(松岳)에서 청계산까지 쭉 뻗치니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면서, 다들 공의 충성에 하늘이 감응한 것이라 하며, 그 봉우리를 ‘망경대(望京臺)’라 불렀다. 그 뒤에 망경대가(望京臺歌)가 세상에 퍼졌는데, 누가 지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태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어느 날 조준과 함께 수십 기(騎)를 거느리고 청계산에 행차하여 봉영당(奉影堂)에 나아가 조준을 시켜 공을 나오도록 권하게 하였는데, 이때 공이 서방(西房)에 누워서 이불로 얼굴을 가린 채 끝내 명

을 따를 기미가 없었다. 조준이 이불을 매만지며 말하기를, “몇 년 동안 서로 만나 보지 못했는데, 형제간의 그리운 정이 어찌 사무치지 않겠느냐?” 하니, 공은 이불 속에서 답하기를, “나라가 깨지고 집안이 망하였으니, 부모도 없고 임금도 없는데, 형제를 어찌 알겠습니까?” 하였다. 조준이 말하기를, “그대의 이름이 이미 개국 공신의 명단에 들었는데, 어찌 ‘무군(無君)’이라 하는가?” 하니, 공이 답하기를, “그 공신 명단의 제 이름 밑에 서명이 있습니까?” 하였다. 조준이 한참을 멍해 있다가 말하기를, “내 어찌 그대를 더럽히려고 했겠느냐? 우리 형제가 여섯이지만, 세상에 남아 서로 의지할 사람은 우리 두 사람뿐인데, 차마 내 눈 앞에서 화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 그대가 ‘견(狷)’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기에 추훈(追勳)에다 그 이름을 써 넣었으니, 이로써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조준이 밖으로 나와 태조에게 아뢰기를, “신의 아우가 천성이 고집이 세고 속이 좁아 한번 먹은 마음은 목숨이 달려 있더라도 변치 않으니, 어찌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지금 나를 아니 보고자 함은 신하로서 섬기지 않겠다는 뜻일 것인데, 나와는 옛 정의가 있으니 주빈(主賓)의 예로 만나 보는 것은 가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조준이 명을 받고 다시 들어가 이불을 걷고 손을 당겨 공을 일으켜서 밖으로 나왔다. 태조가 조준은 장전(仗殿)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명하였는데, 이는 아우와는 주빈이 되고 형과는 군신이 되어 예의상 불편하기 때문이었다. 태조가 공과 읊(揖)하고 분좌(分坐)해서 이르기, “나를 도와 나라를 잘 다스린다면 이 어찌 백성의 복이 아니겠는가?” 하니, 공이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말하기를, “신하로 여조(麗朝)를 함께 섬기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하며, 예전의 일을 말하는데, 그 말에 거리낌이 없었다. 태조가 웃으면서 용서하고 크게 감탄하며 칭찬하기를, “조건의 지조가 금석(金石)처럼 굳으니 그 뜻을 굽힐 수 없다.” 하였다. 말을 물고 내려오면서 분부하기를, “청계산 일대를 조건에게 내려주고, 그곳에 석실(石室)을 지어 그의 정절(貞節)을 표창하라.” 하였다. 지금 원통동(圓通洞)에 있는 석축(石築)이 바로 그 유지(遺址)이다. 공은 신왕(新王)이 명하여 지은 석실은 구신(舊臣)이 살 곳이 아니라 하고, 바로 양주(楊州) 송산(松山)으로 이주하였다. 때때로 송도(松都)를 찾아가 선죽교(善竹橋)의 변두리와 월대(月臺) 터를 방황하며, 퇴락한 성곽에 탄식하고 활짝 핀 곡식에 슬퍼하며 흐느껴 울면서 머뭇거리며 차마 떠나지 못하니, 이를 보는 자나 유민(遺民)들이 다 목메어 울었다. 공이 자호(自號)를 송산(松山)이라 한 것은 아마도 ‘소나무는 사철 푸르고 산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을 취한 것이리라. 아울러 고려의 서울인 송악(松岳)을 잊지 않겠다는 지조가 담겨있다고도 하겠다. 공은 또 경계하기를, “내 자손들은 다시는 과거 공부를 하지 말고, 고려조를 대대로 섬긴 은혜에 보답하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묘비에 ‘고려 안렴사(高麗按廉使)’라 쓰고 ‘조선 개국 공신(朝鮮開國功臣) 평성 부원군(平城府院君)’이라 새기지 말

라.” 하였다. 공이 서거하니 세종(世宗)이 부음을 듣고 몹시 슬퍼하며, 둔촌(遁村) 이집(李集)의 무덤 근처에 장사지내도록 명하였다. 둔촌 역시 고려조의 충신으로 세대에서 은거하여 절조를 지킨 이로 공과 그 진퇴(進退)가 대체로 비슷하였기 때문이었다.”⁸⁵⁾

狷, 則初名胤, 卽平壤伯臣浚之弟也. 平生以名節自勵, 嘗過殷山有詩曰, 首陽亦周土, 薇蕨累清風, 知有殷山在, 應先箕子東. 其所存所養, 蓋可見矣. 及見浚有撥亂之志, 涕泣而責之, 浚知其意, 故出之爲嶺南伯, 未幾麗朝革命, 痛哭入頭流山中. 太祖擢拜戶曹典書, 胤辭之曰, 願採松山薇, 不願爲聖人氓. 因改名曰狷, 字曰從犬, 蓋國亡不死, 不欲自處以人類, 而亦取犬有戀主之義也. 自頭流, 轉至清溪山, 每哭望松京, 輒有陰雲, 起自松岳, 連亘清溪, 時人以爲忠誠所感, 因名其山曰望京峯. 太祖幸其居, 使浚引出之, 狷蒙被靽面. 浚撫衾曰, 自我不見, 已數年矣. 兄弟孔懷, 能不依依? 狷從衾中答曰, 國破家亡, 無父無君, 焉知兄弟? 浚出告曰, 臣弟性隘, 臣無奈何. 太祖請見以賓主之禮, 狷始出揖而不拜. 太祖歎曰, 趙狷志操, 堅如金石, 有不可奪. 命封以清溪一曲, 又築石室而與之. 狷曰, 新王所築, 非舊臣所宜居. 遂移入楊州地居焉, 仍自號松山, 蓋取松不凋, 山不移之意也. 其後仍爲地名, 卽今之松山是也. 臨死謂其子曰, 我死, 題墓以高麗按廉使. 諸子不敢違其命, 書以我朝典書於碑. 立碑之夕, 忽雷震其表, 折其半, 只餘趙公之墓四字, 見者莫不異之. 此等事蹟, 俱載二家家乘及印行平壤誌[平壤志]⁸⁶⁾

初名胤, 與鄭夢周相友善, 平生, 以名節自勵. 嘗過殷山, 有詩曰, 首陽亦周土, 薇蕨累清風, 知有殷山在, 應先箕子東, 其所存所養, 固已可見矣. 及見浚有翊戴志, 涕泣謂曰, 吾家, 國之喬木, 國存當存, 國亡當亡, 且達可, 國之柱石, 凡事, 若求異於達可, 是害國事而促國亡. 達可, 卽鄭夢周表字也. 浚知其志出之, 再按嶺南, 未及還而聞麗朝革命, 痛哭入頭流山中, 仍改名曰狷, 字曰從犬. 蓋國亡不死, 有類於犬, 而亦取犬有戀舊主之義也. 其後自頭流, 轉往清溪山, 每陟最高峰, 望松京痛哭, 則輒有陰雲起自松岳, 連亘清溪, 人皆以爲忠誠所感, 名其峯曰望京臺. 太祖擢拜戶曹典書, 以書招之, 狷答曰, 願採松山之薇, 不願爲聖人之氓. 一日, 太祖, 與浚從十數騎, 幸清溪, 使浚勸出, 狷牢臥以被靽面, 浚撫衾謂曰, 自我不見, 已多年矣, 兄弟孔懷, 能不依依. 狷從衾裏答曰, 國破家亡, 無父無君, 安知兄弟? 浚出告曰, 臣弟性隘, 臣無奈何. 太祖曰, 與我有舊, 未可以賓主禮相見乎? 狷始出揖而不拜. 太祖歎曰, 趙狷志如金石, 有不可奪, 命封以清溪一面而築石室, 以表貞節. 狷以爲今王所命築, 非舊臣所宜居, 卽移住于楊州地, 自號松山, 蓋取松不凋山不移之義, 而亦不忘松岳之意也. 其後因爲地名, 卽今之松山里是也. 又以鐵石二字, 名其兩子, 臨死戒之曰, 題我墓以高麗按廉使, 諸子不敢守遺托, 以

85) 『국조인물고』, 권 36 음사(蔭仕), 조건의 사적(事蹟)

86) 『승정원일기』, 정조 3년 2월 29일 (갑신) 원본1436책/탈초본 79책 (10/14) 1779년 乾隆(淸/高宗) 44년

我朝官銜書于碑。豎碑之夕，暴雷碎折其半，只餘趙公之墓四字，至今尙存。此等事蹟，俱載於二臣家家乘及印行平壤誌[平壤誌]，⁸⁷⁾

“而至若趙狷，獨未得祠院之新建，又未有崧陽之追配，此固無他，特未有以兩臣之可祀於一祠，有復於絃續之下而然，臣等請爲殿下仰陳焉。臣等謹按高麗按廉使趙狷，初名胤，卽開國元勳趙浚之弟，自在童年，沈潛經學，與鄭夢周爲道義交，爲其所薦進，少時過殷山有詩曰，首陽亦周地，薇蕨累清風，知有殷山在，應先箕子東，嘗作排佛論以闢異端，其所存養，固已可見矣。當麗朝政亂，官至知申，與鄭夢周，同心戮力，翼扶王室，知兄浚有翊戴志，常涕泣謂曰，吾家國之喬木，國存當存國亡當亡，且達可，國之柱石，一言一事，若求異於達可，是害國事而促國亡，達可，卽鄭夢周表字也。浚知其志出之，再按嶺南，未及還聞麗運訖，痛哭入頭流山中，改名曰，狷，字曰從犬，蓋以國亡不死，有類於犬，而亦取犬有戀舊主之義也。自頭流轉至清溪山，每陟最高峰，望松京痛哭，則陰雲一帶，起自松岳，連亘於清溪，人皆以爲忠誠所感，名其峯曰望京臺，有望京臺歌，傳于世，太祖擢拜戶曹典書，以書招之。答曰，願採松山之薇，不願爲聖人之氓。一日太祖，與浚從數十騎，幸清溪，使浚勸出，狷以衾輶面，而堅臥不起，浚撫衾謂曰，自我不見，已多年矣。兄弟孔懷，能不依依。狷從衾裏，答曰，國破家亡，無父無君，安知兄弟？浚出告曰，臣弟性隘，臣無奈何。太祖曰，與我有舊，未可以賓主禮相見乎？狷始整衣而出，揖而不拜，太祖大加賞歎曰，趙狷志如金石，有不可奪。命封以清溪一面，築石室，以表其貞節，狷以爲新王所命築，非舊臣所宜居，卽移住于楊州地，自號松山。蓋其不忘松岳之意，而亦取松不凋山不移之義也，其後仍爲地名，卽今松山里是也。狷時往松都，徬徨痛哭於月臺之墟，竹橋之畔，舊都遺民，相隨悲感，莫不吞聲，常以鐵・石二字，名其兩子。臨歿戒曰，題我墓以高麗按廉使。諸子不敢守遺托，以我朝官銜，書于碑，居無何？碑忽中斷，只餘趙公之墓四字，至今尙存。嗚呼，狷以世祿之臣，當革命之際，自矢罔僕至死靡渝，雖以同氣之至情，而不移其操，聖祖之臨視，而不奪其志，生不忘舊國之恩，死亦羞新王之爵，終能感動天地，以致陰雲之連亘，碑石之中斷，而且際異教肆行之時，雖高才明智，膠於見聞，醉生夢死，而狷獨著排佛論，辭以闢之，則其平日之忠節道學，實與鄭夢周，相爲伯仲，而易地則同，況其雲亘碑斷，凜凜與竹橋血痕，前後相符，而兩臣之精忠大節，格神明而通金石，載于傳乘，播之耳目，赫赫如昨日事，雖未得別創院宇，一體崇報，以盡闡揚之舉，固宜同祀于一祠之中，使忠魂貞魄，共享俎豆，有若夷・齊・巡・遠之匹休並美，而于今尙闕於此地者，豈非朝野之所共慨惜哉？臣等抑嘗聞海州建清聖祠，永柔立臥龍廟，此不過地名之偶叶，而尙爲之立祠膾享，則況彼松都，卽狷桑梓之鄉，杖屨之所，其松楸依舊，而父老尙傳其遺墟，雖以鄉先生，祭於社之義推之，不可無斯人妥靈之所，而既有鄭夢周松陽之祠，則詎緩其躋配並享之舉乎？噫，我聖朝立國以來，治教之文明，倫綱之培植，迥出前代，或以道學而並享于一

87) 『승정원일기』, 정조 8년 윤3월 1일 (병진) 원본1554책/탈초본83책 (38/42) 1784년 乾隆(淸/高宗) 49년

院,或以節義,而同配于一祠者多矣,而惟其生竝一世,契若金蘭,俱爲王氏不貳之臣,而道學節義之相似也。心期樹立之相類者,無若兩臣焉,則欲配鄭夢周之祠,宜無過於趙狷,而且臣等之必欲請配於崧陽者,非但爲配食於鄭夢周而已。瞻松岳而輒想其自號,臨竹橋而竝感其異蹟,人莫不齋嗟興歎,皆思同享於斯院者,固是舉世共公之論,曾於楊州沙川,有與高麗門下府事南乙珍竝享之祠,至蒙恩額而沙川,卽南乙珍之故居而已。殊異於松都及清溪・松山,是以前後多士,屢發三處中建院之議,而緣於新創之有邦禁,雖不敢陳請,既於松都,而又有鄭夢周之祠,則其可無斯人配食之舉乎? 雖於崧陽,素無蹄配之事,亦宜有拔例特異之典,況前後配享,既多其例,而使趙狷獨漏者,竊不勝衆心之抑鬱,不避猥越之誅,玆敢齊聲仰籲。伏願殿下,俯察其忠節道學之無間,心期樹立之膺合,特命有司之臣,使趙狷得以配享於崧陽之院,丕彰聖朝尙忠之典,俾伸多士尊賢之誠,以光聖德,以幸世道焉。省疏具悉。路次既許呈納,故如是賜批,伊人之行義,豈不知之乎? 似此未遑,外此必多似此者,爾等退修學業。 ”⁸⁸⁾

1392년(태조 1) 상장군으로 이성계(李成桂) 추대에 참여하고 개국공신 2등에 책록되고, 평양군(平壤君)에 봉해짐.

1394년 경상도도절제사.

1397년 지중추원사.

1400년(정종 2) 삼사우복야(三司右僕射)를 거쳐.

1402년(태종 2) 도총제(都摠制) 재직 중에 사은사의 명을 받았으나, 사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을 듣고 병을 칭하여 이를 사퇴하였다. 이에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직첩을 몰수당한 뒤 축산도(丑山島)에 유배되었다가 곧 사면되었다.

1403년 좌군도총제가 되고 평성군(平城君)에 봉해졌으며, 이 해 진하사(進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07년 충청도도절제사 겸 수군도절제사를 거쳐, 이듬해 고의로 딸의 입명(入明)을 저지한 일로 개령에 부쳐되었다. 곧 사면되어 청성군에 봉해졌다.

1410년 봉안사(奉安使)가 되어 태조 진영(眞影)을 완산부(完山府)에 봉안하였다.

1411년(태종 11) 평성군(平城君)에 개봉(改封)되고,

1415년 공조판서 때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19년(세종 1) 판우군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에 보임되고,

1421년(세종 3)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다. 양주의 정절사(旌節祠), 송산사(松山祠)에 배향되었다.

1421년 3월 71세로 퇴관해야 했지만, 궤장(几杖)을 받고 계속 벼슬길에 있다가 같은 해 12월 평성부원군에 진봉하였다.⁸⁹⁾

88) 『승정원일기』, 정조 14년 10월 14일 (신유) 원본1682책/탈초본89책 (27/29) 1790년

1425년(세종 7) 조건이 75세의 나이로 죽자 조회를 정지하고 부의를 하사하였으며 관에서 장사 지내는 일을 도왔다. 경기도 양주의 정절사(旌節祠)⁹⁰와 송산사(松山祠)에 배향되었으며,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에 사우(祠宇)가 있다. 공주시에 사우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전하지 않으나, 후손들에 의하면 1921년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에서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로 후손들이 옮겨가면서 사우도 함께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시호는 평간(平簡)이다.

3. 조철산의 행적

조철산(趙鐵山, 1404~1465)의 호는 석실(石室)이다. 정숙공(貞肅公) 조인규(趙仁規, 1227~1308)의 현손,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조덕유(趙德裕, 1314~1352)의 손자이며, 평간공(平簡公) 조건(趙狷, 1351~1425)의 아들이다. 또한 태종대에 영의정을 역임한 월정(月亭) 유정현(柳廷顯, 1355~1426)의 손녀사위이다. 조철산(趙鐵山, 1404~1465)은 조청로의 삼촌숙으로 익현군(翼峴君) 이곤(李璣)의 장인이다.

조건과 조철산 부자는 고려 말 두문동 72현(杜門洞七十二賢)이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끝까지 출사(出仕)하지 않고 충절을 지킨 고려의 유신 72인, 두문동 태학생(太學生) 72인이라고도 불렀다. 현재 72인의 성명이 모두 전하지는 않고, 신규(申珪)·신흠(申瑄)·신우(申祐)·조의생(曹義生)·임선미(林先味)·이경(李瓊)·맹호성(孟好誠)·고천상(高天祥)·서중보(徐仲輔)·성사제(成思齊)·박문수(朴門壽)·민안부(閔安富)·김충한(金沖漢)·이의(李倚)·배문우(裴文祐) 등의 성명만 전한다. 그 밖에 맹(孟)씨라는 성만 전하는 자가 있다. 두문동은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서쪽 기슭에 있던 옛 지명이다.

이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구전(口傳)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명은 조선이 건국되자 태학생 임선미 등 72인이 모두 이곳에 들어와서 마을의 동·서쪽에 문을 세우고, 빗장을 걸고서 문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편, 태조는 고려 유신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경덕궁(敬德宮)에서 친히 과장(科場)을 열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도 응시하지 않고 경덕궁 앞의 고개를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 고개를 부조현(不朝峴)이라 하였다. 그리고 부조현 북쪽에 관을 걸어놓고 넘어갔다 하여 이를 괘관현(掛冠峴)이라 불렀다고 한다. 1740년(영조 16) 영조가 개성을 행차할 때 부조현의 이러한 유래를 듣고 비석을 세워주

89) 그런데 그의 생애와 관련하여 “조선이 개국되고 형 조준으로 인하여 개국공신에 책록되었다”는 설과 “조준의 간곡한 출사 권유가 있었지만 고려에 절의를 지켜 은거했으며, 자손에게도 고려에의 절의를 당부하였다”고 한 이설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90) 『승정원일기』, 정조 8년 윤3월 1일 (병진) 원본1554책/탈초본83책 (38/42) 1784년 乾隆(淸/高宗) 49년 “○ 柳義養, 以禮曹言啓曰, 楊州地麗朝參知門下府事南乙珍, 按廉使趙狷祠宇賜額致祭事, 已爲啓下矣. 旌節祠延額吉日, 以來四月十三日擇定云. 祭物及執事官, 令本道差定進排知委, 而正日臨時, 本曹郎廳, 依例受香祝進去, 以爲宣額之地, 何如? 傳曰, 允.”

었다. 그 뒤 이 고사가 임선미·조의생 자손의 가승(家乘)을 통하여 정조에게 알려져 1783년(정조 7)에 개성의 성균관에 표절사(表節祠)를 세워 추모하였다.

고려의 유신인 신규, 조의생, 임선미, 이경, 맹호성, 고천상, 서중보 등 72인은 끝까지 고려에 충성을 다하고 지조를 지키기 위해 이른바 부조현(不朝峴)이라는 고개에서 조복(朝服)을 벗어던지고 이곳에 들어와 새 왕조에 출사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선 왕조는 두문동을 포위하고 고려 충신 72인을 불살라 죽였다고 전해지며, 또 일설에는 동두문동과 서두문동이 있어서 동두문동에는 고려의 무신 48인이 은거하였는데 산을 불태워 모두 죽였다고 한다. 이후 정조 때에 와서야 그 자리에 표절사(表節祠)를 세워 그들의 충절을 기렸다.

두문동에 관한 기록은 조선 순조 때 당시 72인의 한 사람인 성사제의 후손이 그의 조상에 관한 일을 기록한 『두문동실기(杜門洞實記)』, 『두문동칠십이현록(杜門洞七十二賢錄)』⁹¹⁾ 등에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당시 많은 선비들이 은거함에 따라 두문동이라는 곳이 나라 안 여러 곳에 남아 있었다. 그런 일이 알려지면서부터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을 일컬어 ‘두문불출(杜門不出)’이라고 하게 되었다.

조선의 새 임금 태조는 그들을 미워해서 개성 선비에게는 100년 동안 과거를 보지 못하게 명하였다. 결국 살아남은 그들의 후손들은 할 수 없이 평민이 되거나 장사를 생업으로 삼고 선비의 학업은 담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후에 유명해진 개성 상인으로 발전하였다. 그 뒤 300년 이래로 개성에는 사대부라는 명칭이 없었고, 경성의 사대부들도 개성에 가서 사는 사람이 없었다. 『택리지』는 이렇게 이어진다. 다른 한 속전(俗傳)에 따르면, 개성 부근 보봉산(寶鳳山) 북쪽으로 10리쯤 되는 곳에도 두문동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조선이 건국된 후 고려 유장(遺將) 48인이 들어와서 몸을 씻고서 함께 죽을 것을 맹세한 골짜기라고 한다. 이들의 성명 역시 전하지 않는다. 다만 세신정(洗身井)·회맹대(會盟臺)라는 지명만 남아 있을 뿐이다.

『두문동실기(杜門洞實記)』는 목판본으로 3권 1책이다. 1809년(순조 9)에 72현의 한 사람인 성사제(成思齊)의 후손이 그의 조상에 관한 일을 중심으로 엮은 것이다. 1881년(고종 18)에 속록(續錄)을 붙여 재간되었다. 이 책에서는 72현의 기록이 모두 수록되어 있지는 않고 조의생(曹義生)·임선미(林先味)·이경(李瓊)·맹호성(孟好誠)·고천상(高天祥)·서중보(徐仲輔) 및 성사제의 사적만이 나와 있다. 책머리에 정종로(鄭宗魯)의 서문과 책 끝에 김굉의 발문이 있다. 조철산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고려조 예빈시소윤(禮賓寺少尹)?

1450년 호조 정랑(戶曹正郎)⁹²⁾

1455년 전농시소윤(典農寺少尹)⁹³⁾

91) 『騎牛先生文集』 卷之二 附錄.

92) 『문종실록』, 3권, 즉위년(1450 경오 / 명 경태(景泰) 1년) 8월 28일(기해) 2번째기사 <사신이 무역하는 베에 제한을 두지 말도록 명하다>

1456년 전농시소윤(典農寺少尹)⁹⁴⁾

1460~1461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⁹⁵⁾

사후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

II. 조철산 묘역의 금석문

석실(石室) 조철산(趙鐵山)의 묘역은 조건묘역(성남시 향토유적 제3호) 좌측 능선에 남향하여 있다.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쌍분은 각각의 봉분 높이 130cm, 동서 직경 4m이다. 좌측(동쪽)이 철산의 묘이고, 우측(서쪽)은 정경부인 이씨의 묘이다. 묘역에는 다수의 석물이 갖추어져 있다. 조철산과 정경부인 이씨 봉분 앞의 수장자의 묘표2기·망주석·문인석 및 봉분 중앙의 장명등의 석물이 갖추어져 있다. 1990년 새로 세운 묘표가 있는데 전면에 종3열로 ‘朝鮮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平壤趙公鐵山之墓’의 비문이 있다.

1. 조철산의 묘표

조철산의 묘표는 비두비신비대일체형이다. 비두는 연화봉하엽문을 조각하였다. 비신은 전면은 전면표제양식이고 후면에 간단한 행장을 기록하였다. 건립연월은 성화 4년(1468)으로 현재 성남 지역에서 건립연월이 확실한 묘비 중 가장 오래된 묘표이다. 크기는 비대 높이 20cm·너비 46cm·두께 24cm, 비신 높이 68cm·너비 41cm·두께 18cm, 비두 높이 39cm·너비 44cm·두께 20cm이며, 총고 127cm이다. 전면에는 ‘進賜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行 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趙鐵山墓’라고 기록한 전면표제양식이다. 이는 ‘승정대부의정부우찬성 나으리는 통정대부첨지중추원사를 지낸 조건의 묘’라고 해석된다. 조선시대 묘표의 전면표제양식으로는 성남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표제양식에 해당한다. 후면에는 그의 행장을 기록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여기서 ‘進賜’는 ‘나으리’라는 뜻의 이두이다.

「公卒年乙酉開國功臣平簡公猗子尹承」

「烈女絲□□□知柳顗之女生一女後娶郡事」

「李守良之女生三男三女公姓清直溫恭不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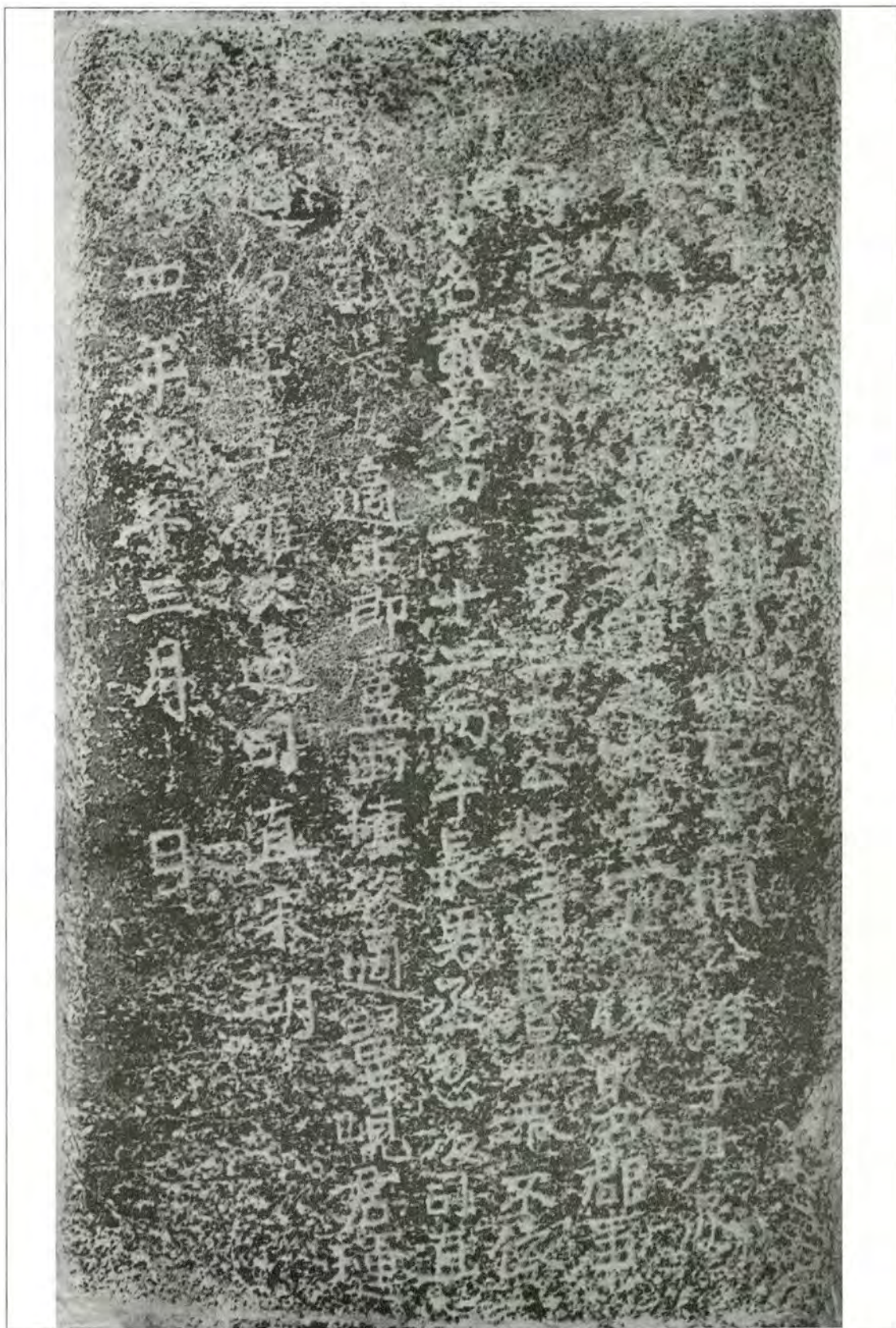
93) 『세조실록』 2권, 1년(1455 을해 / 명 경태(景泰) 6년) 12월 27일(무진) 3번째기사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 등을 원종 공신에 녹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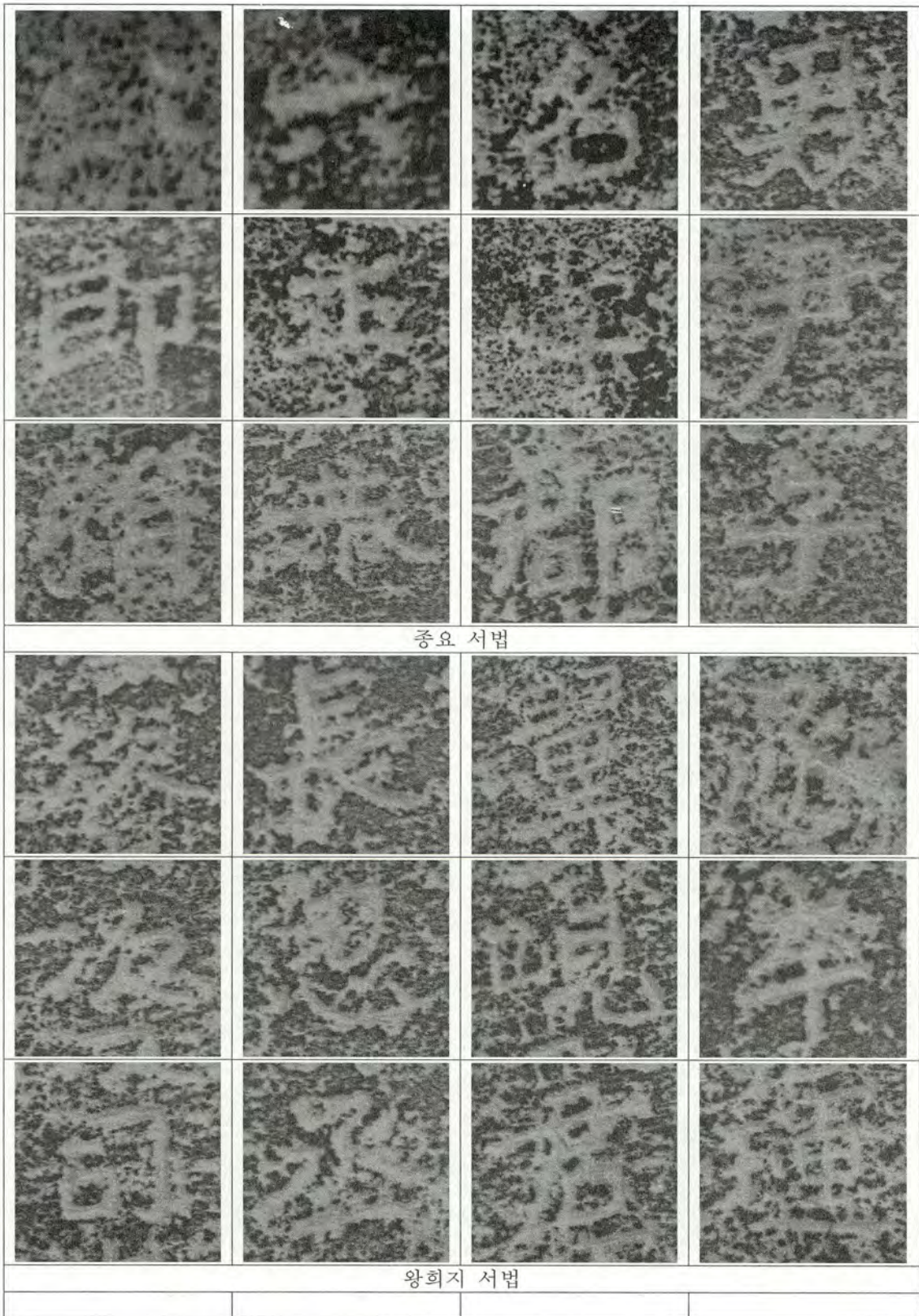
94) 『세조실록』 4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6월 14일(임자) 1번째기사 <의금부에 이계진·유사지·조철산·조서영의 아내는 연좌시키지 않도록 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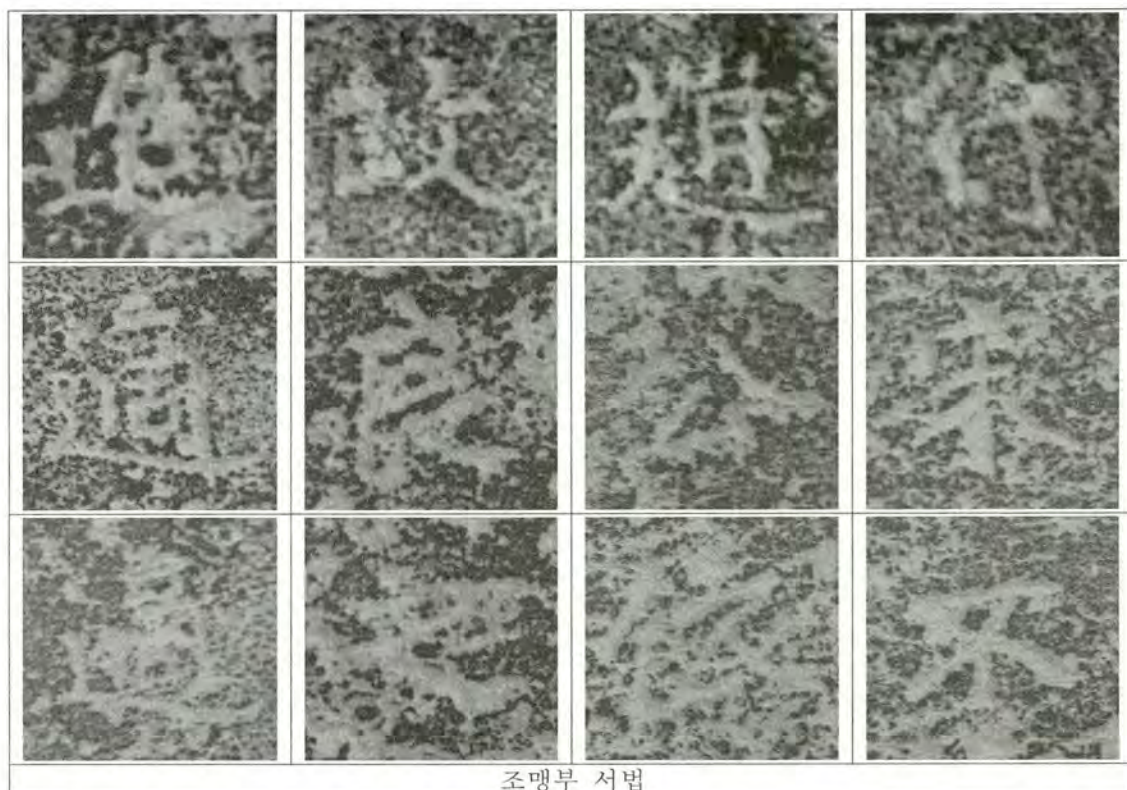
95) 『세조실록』 22권,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12월 3일(을해) 1번째기사 <이복·이석형·김계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세조실록』 25권, 7년(1461 신사 / 명 천순(天順) 5년) 7월 12일(경술) 1번째기사 <조석문·안철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時勢名載原功六十二而卒長男丞忍次司直」

「軫次軾長女適正郎盧由慎次適翼峴君璉」

「次適幼學李確次適司直宋瑚」

「成化四年戊子(1468)三月 日」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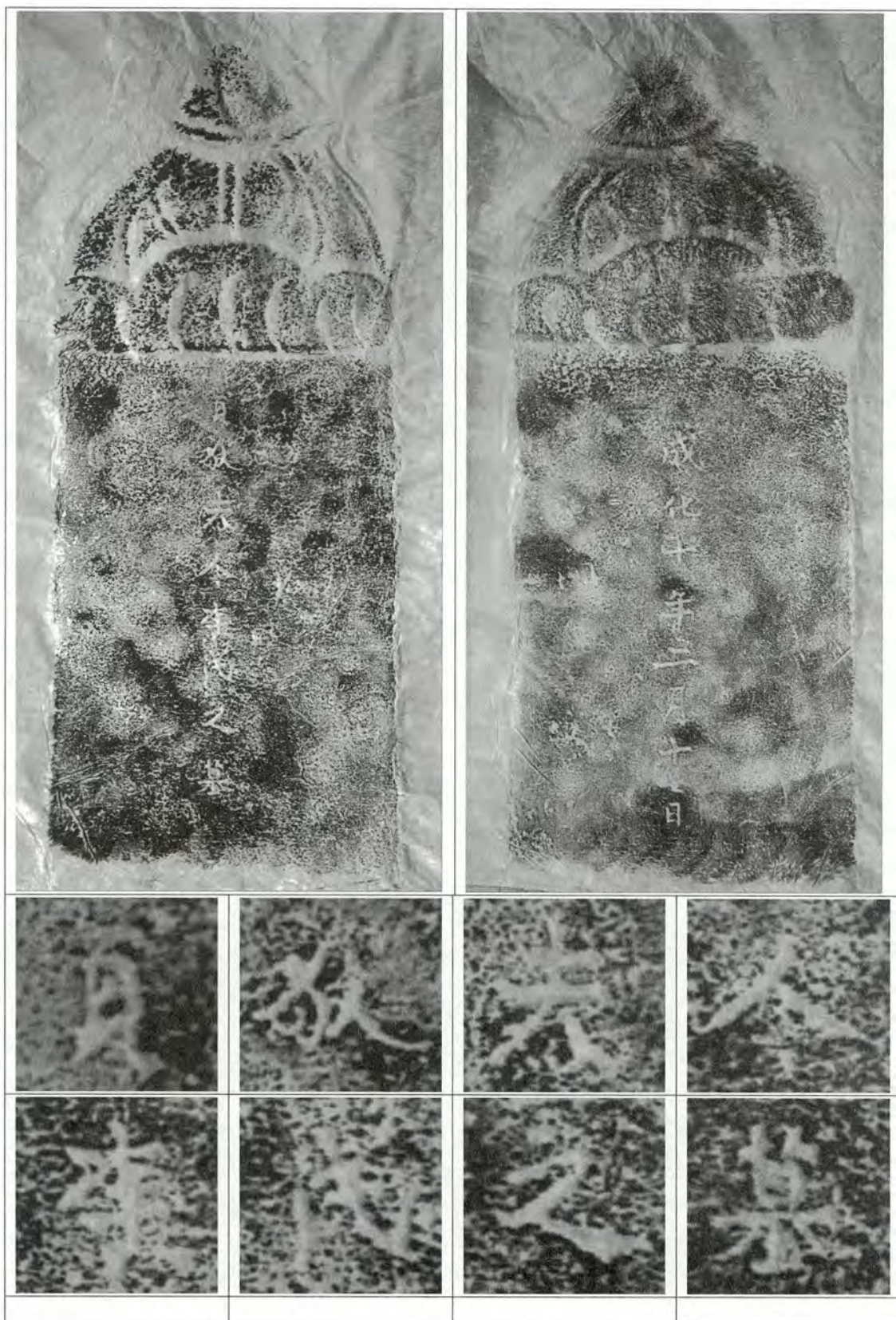
“공의 졸년은 을유년(1465)이다. 개국공신 평간공 견의 아들로, 윤승렬의 딸 사이에서 낳았다. 유개의 딸과 혼인하여 딸 하나를 두었다. 후취로 군사 이수량의 딸과 혼인하여 3남 3녀를 두었다. 공의 성품은 맑고, 곧으며, 온순하고, 공검하였다. 시세에 의하지 아니하여 이름이 원종공신에 올랐으며, 62세에 돌아갔다. 장남은 승인, 차남은 사진 진, 다음은 식이다. 장녀는 정랑 노유신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익현군 곤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유학 이확, 다음은 사직 송호에게 출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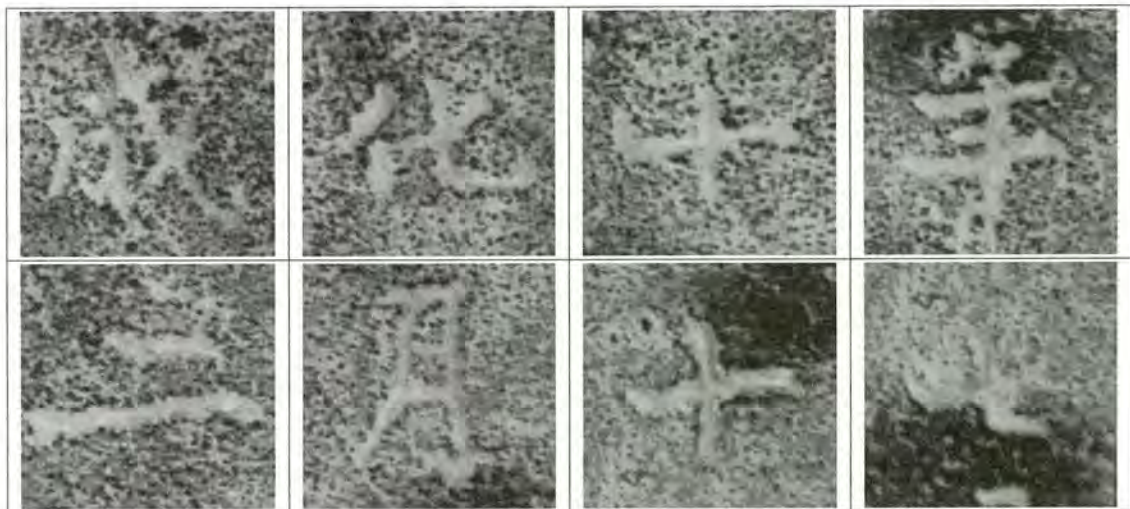
성화 4년 무자(1468) 3월 일”

2. 정경부인이씨의 묘표

정경부인이씨의 묘표는 조철산의 묘표와 같은 형태로, 비문은 전후 2면에 있다. 전면에 전면표제양식이고, 후면은 조성연대를 기록하였다. 건립연대는 성화 10년(1474)이다. 크기는 비대는 높이 18cm · 너비 42cm · 두께 21cm, 비신은 높이 61cm

96) 족보에는 철산의 사위가 盧由慎, 李璉, 李移, 宋瑚, 李連宗 등으로 기록되어있다.





· 너비 38.5cm · 두께 16cm, 비두는 높이 32cm · 너비 39cm · 두께 16cm이며 총고 111cm이다. 묘표 전면에는 ‘貞敬夫人李氏之墓’라고 기록한 전면표제양식이다. 후면에는 ‘成化十年二月十七日’이라고 조성년도를 기록하였다. 이 기록으로 보아 석조물들의 조성은 남편인 조철산보다 6년 늦은 1474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묘표의 서체는 중요와 왕희지체를 근간으로 하는 조맹부의 서법을 혼용하였다. 이러한 서법은 당시 관에서 사용했던 관체(官體)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당시에는 고려 말에 수용된 조맹부체의 유행과 전통적으로 전래된 중요와 왕희지의 서법이 유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세 종류의 서법이 혼용된 서체가 관에서 유행하게 되어 관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서체로 자리 잡았던 시기이다.

Ⅲ. 맺음말

조건은 고려와 조선의 두 왕조 시대를 살았다. 고려의 세족으로 고려를 따르자니 가족이 울고, 조선을 섬기자니 충절이 훼손되었다. 형인 조준의 설득으로 조선의 관에 나올 것을 요청받지만 이름을 ‘胤’에서 ‘獮’으로 바꿀 만큼 선비적 양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아들 조철산과 함께 두문동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조철산 역시 큰 벼슬 없이 조선 초기를 살다간 인물이다.

당시 고려의 신흥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조맹부체가 유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의 왕족들은 왕희지체를 바탕으로 한 조맹부체에 익숙해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려의 이암과 조선의 안평대군 이용이다. 고려 말의 최홍효, 한수 등은 왕희지체에 능했고, 이제현, 이암 등은 조맹부체의 유행을 수용하였다. 중요와 왕희지, 조맹부의 서법이 혼용되게 되는 배경에는 이런 서법의 사회적 영향이 있다.

조철산과 부인이씨의 묘역에는 1468년과 1474년에 조성된 묘비, 문인석, 장명등 등이 조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묘비는 조성연도가 확실한 가장 이른 시기의 석비이다. 석비의 서법은 당시에 관에서 문서작성에 유행된 관체(官體)로 기록되었

다. 이런 점은 조철산 묘역 금석문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사』

『태조실록』

『세종실록』

『문종실록』

『세조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국조인물고』

『송도속지(松都續誌)』

『중경지(中京誌)』

『두문동실기(杜門洞實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농은선생실기』

『두문동실기』

『모은선생실기』

『송암실기』

『송은실기』

『이씨양현실기』

『풍계서원』

『신편 한국사 22』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李相佰, 「李成桂와 高麗末期의 政爭」(『李朝建國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9).

鄭在勳, 「朝鮮王朝 建國過程에서의 舊勢力」(『考古歷史學志』 2, 1986).

趙啓纘, 「朝鮮建國과 尹禕·李初事件」(『李丙燾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7).

李亨雨, 「鄭夢周의 政治活動에 대한 一考察」(『史學研究』 41, 1990).

韓永愚, 「朝鮮 開國功臣의 出身에 대한 연구」(『朝鮮前期社會經濟研究』, 乙酉文化社, 1983).

李泰鎮, 「15世紀 後半期の 「鉅族」 과 名族意識」, 『韓國史論』 3, 서울大, 1976.

여 백

석실 조철산(石室 趙鐵山) 묘역

석물의 중요성과 가치

손 미 숙

(경기대 연구교수)

여 백

석실 조철산(石室 趙鐵山) 묘역 석물의 중요성과 가치

손 미 숙

(경기대 연구교수)

목 차

- I. 머리말
- II. 석실 조철산 묘역의 석물
 - 1. 하엽방부형 묘표
 - 2. 상석·계체석·향로석
 - 3. 장명등
 - 4. 문인석
- III. 맺음말

I. 머리말

성리학을 지배개념으로 삼았던 사대부들은 효를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인(仁)의 한 방편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사당과 분묘가 있는 묘역은 조상을 항상 모시는 신성한 곳으로 잘 가꾸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조상의 분묘를 찾아가 성묘를 할 때에 분묘를 잊지 않고 바로 찾기 위해서 피장자의 신분 등을 돌에 새겨 놓은 것이 묘비이고, 분묘에 사악한 기운이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벽사(辟邪)의 의미로 설치한 것이 각종 석물이다.⁹⁷⁾

석물은 삼국·통일신라·고려시대로부터 조성되어 왔다. “고려시대가 묘지(墓誌)의 문화라면 조선시대는 석비의 문화가 유행되었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유학의 발달로 묘소의 석비문화가 발달하였고, 따라서 신도비·묘갈·묘표 등 다양한 석비양식을 보여주게 되었다. 성리학의 이념은 후장과 조상숭배사상으로 나타났으며 주자가례에 의한 묘소의 각종 석물이 유행하게 되었다.”⁹⁸⁾ 조선시대의 석물은 왕릉에서 볼 수 있고, 사대부의 묘역에서도 볼 수 있다. 석물은 묘역에 설치된 모든 석조물을 가리키며 석물에는 신도비·묘비·혼유석·상석·계체석·향로석·장명등·망

97) 『한국문화와 유물유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7. p. 85.

98) 손환일, 『한국 금석문의 두전』, 서화미디어, 2011, p. 54.

주석·문인석·동자석 등이 있다. 이러한 석물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양식의 변화를 보여 준다.

연구 범위는 조선시대 15세기의 묘비·문인석·장명등·망주석등의 양식과, 석실 조철산 묘역 석조물의 양식과 특징을 살펴보고, 조철산 묘역의 석조물이 조선시대 15세기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조철산 묘역의 석물과 『경기 묘제 석조 미술』상(上)에 있는 도판과, 경기도 사대부 묘역의 사진을 사용하여, 조선시대 15세기의 묘비·문인석·장명등·망주석등의 도판을 만들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산 30번지에 있는 석실 조철산 묘역의 석물들은 15세기 전반·중반의 양식을 보여주는 석물들로 비교적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이에 석실 조철산 묘역의 석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석실 조철산 묘역의 석물

조철산(1404~1465)은 세조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양(平壤), 호는 석실(石室)이다. 정숙공(貞肅公) 조인규(趙仁規, 1227~1308)의 현손이자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조덕유(趙德裕, 1314~1352)의 손자이며 평간공(平簡公) 조건(趙狷, 1351~1425)의 아들이다. 예빈시소윤(禮賓寺少尹)을 지냈으며, 호조정랑과 전농시소윤(典農寺少尹)을 거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이르렀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죽은 뒤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되었다.

1. 묘표(墓表)

조선시대 묘비의 형식은 하엽방부형·규수방부형·이수방부형·운수방부형·원수방부형·옥개석방부형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다. 조선시대 15세기 중반·후반에 묘비와 신도비에 하엽방부형이 많이 나타나고, 이수방부·운수방부는 조선시대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까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옥개석방부형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옥개석 형식의 비가 다량 건립되고 있으며 이 시기부터 옥개석 양식은 조선시대 석비의 전형적인 양식이 되어 현재까지 사용되는 묘비의 양식이 되었다.”⁹⁹⁾

“묘비는 신분이나 계급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나 세울 수 있으며 봉분 앞이나 좌우로 비교적 묘역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세워진다. 묘비의 건립 목적은 역시 선인의 공적 및 미덕을 후세에 전하고자 함이나 그 절대적 기능은 묘소의 주인공에 대한 표시이다. 비문의 내용은 죽은 이의 성명, 字號, 생전의 관직이나 죽은 후에 받는 追贈職, 부부의 합장관계, 묘비의 건립 연대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⁰⁰⁾

99) 金右臨, 「서울·경기지역의 朝鮮時代 士大夫 墓制 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 199~120.



그림 1 조철산 묘역 전면(원형의 쌍분 · 하엽방부형 묘표 2기 · 장명등 · 문인석)



그림 2 조철산 묘역 전면(원형의 쌍분 · 하엽방부형 묘표 2기 · 상석 · 계체석 · 향로석)



그림 3. 조철산 묘역 후면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쌍분)

조철산의 묘역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산 30번지에 있는데, “석실(石室) 조철산(趙鐵山)은 송산 조건(성남시 향토유적 제3호)선생의 아들로, 조건 묘역 좌측 나지막한 구릉에 남향하여 있다.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쌍분은 각각의 봉분 높이 130cm, 동서 직경 4m이다. 좌측(동쪽)이 철산의 묘이고, 우측(서쪽)은 정경부인 이씨의 묘이다. 묘역에는 다수의 석물이 갖추어져 있으나, 옛 석물은 묘역 상계에 배치된 조철산과 정경부인 이씨 봉분 앞의 묘표2기 · 상석 · 계체석이 있고, 하계 중단부에는 좌 · 우 문인석이 있고, 하계 하단부 묘역 중앙에 장명등의 석물이 갖추어져 있다.(그림 1 · 2 · 3)

100) 金右臨 「용인지역 분묘에 나타난 석물의 특징」, 용인대학교 박물관 전통문화연구소, 2001, p. 12.

1) 하엽방부형(荷葉方趺形)

연화문이 조선초기의 비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피장자에 대한 화생(化生)과 극락왕생을 바라는 기원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화문이 있는 것으로 조선시대 묘제와 관련된 것은 청자상감 선덕십년명 지석(靑磁象嵌 宣德十年銘 誌石)(1435년)¹⁰¹⁾(그림 4~5) 국보 172호인 진양군령인정씨 백자상감 지석(晉陽郡令 人鄭氏 白磁象嵌 誌石)(1466)(그림 6) 성화칠년명 지석(成化七年銘 誌石)(1471)등이 있다. 이 세 지석은 역시 상부에는 복련을, 하부에는 양련을 새기고 중앙 부분에 묘지문을 새긴 것이다. 특히 분청사기 성화칠년명 지석(1471)(그림 7)은 형태 자체가 비와 같이 입체적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¹⁰²⁾ 조선시대 15세기 중반 · 후반에 유행하였던 묘표는 하엽방부형(荷葉方趺形)이다.



(1) 조철산 묘표(하엽방부형 묘표)

조철산 묘역은 크게 상계와 하계로 나뉘어 있는데, 묘표는 상계에 배치하고, 묘표 前面에는 돌이끼가 있고, 비문은 前後 2面に 있다. 前面에는 ‘進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行 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趙鐵山墓(진증승정대부의정부좌찬성행 통정대부첨지중추원사조철산묘)’의 비문이 있다.(그림 8 · 그림 10) 건립연월은 성화4년(成化4年)(1468, 세조 14)으로 현재 성남 지역에서 건립연월이 뚜렷한 묘비 중 가장 오래된 묘표이다.(그림 9 · 그림 11)

묘표의 전체높이는 128cm이고, 비두의 높이는 45cm, 너비는 45cm, 두께는 23cm이고, 비신의 높이는 68cm, 너비는 41cm, 두께는 20cm이고, 비대의 높이는 15cm, 너비는 46cm, 두께는 23cm이다. 비두에는 연봉형의 보주와, 보주 아래에는 연주문이 둘러져있고, 연주문 아래에는 연잎의 잎맥을 뚜렷하게 표현하였고, 비두 하단에는

101) 『韓國의 美 ③ 『李朝 陶磁』, 중앙일보, 1981, p. 196~197. 梨花女子大學敎博物館所藏

102) 金右臨, 「朝鮮時代 士大夫 묘역의 석물」, 『경기묘제석조미술』, [下], 조선후기 해설, 경기도 박물관, 2008, p. 248.



전·후·양 옆면에는 연꽃잎을 뒤집어 놓은 형태인 복련을 형상화 하여 양각하였고, 비대에는 문양이 없다. 조철산 묘표는 조선시대 15세기 중반·후반에 유행하였던 연잎을 뒤집어 놓은 형상의 하엽방부형으로, 묘표는 비두·비신·비대(碑頭·碑身·碑臺) 일체형이다.(그림 8~11)

(2) 정경부인 이씨 묘표(하엽방부형 묘표)



정경부인 이씨의 묘표는 상계에 배치하고, 비문은 前後 2면에 있는데, 前面에는 ‘貞敬夫人李氏之墓(정경부인이씨지묘)’의 비문과(그림 12·14), 後面에는 ‘成化十年二月十七日(성화십년이월십칠일)’의 비문이 있다. 건립연대는 成化10年(1474)이다. (그림 13·15) 묘표의 전체높이는 111cm이고, 비두의 높이는 36.5cm, 너비는 40cm, 두께는 16cm이고, 비신의 높이는 61cm, 너비는 38.5cm, 두께는 15cm이고, 비대의 높이 13.5cm, 너비 43cm, 두께 18cm이다. 비두에는 연봉형의 보주와 보주 아래에는 연주문이 둘러져있고, 연주문 아래에는 연잎의 잎맥을 뚜렷하게 표현하였고 전·후·양 옆면에는 연꽃잎을 뒤집어 놓은 형태인 복련을 형상화 하여 반전된 연잎 양각

하였다. 정경부인 이씨의 묘표는 비두·비신·비대 일체형의 하엽방부형으로 비대에는 문양이 없다.(그림 12~15)

(3) 조철산·정경부인 이씨, 하엽방부형 묘표의 비두



그림 16 조철산 비두(앞)



그림 17 부인 이씨 비두(앞)



그림 18 부인 이씨 비두(옆)

조철산·정경부인 이씨 묘표의 비두는 조선시대 15세기 중반·후반에 유행하였던 연잎을 뒤집어 놓은 형상의 하엽방부형이다. 비두에는 연봉형의 보주와 그 아래에 연주문이 둘러져있고, 연주문 아래에는 잎맥을 뚜렷하게 표현하였으며, 전·후·양 옆면에는 반전된 연잎을 양각하였고, 전·후에는 반전된 연잎 안에 6개의 그믐달 모양으로 음각하였고(그림 16 ~17), 비두 양 옆에는 3개의 초승달 모양으로 음각하였다.(그림 18)

(4) 15세기 하엽방부형 묘표·신도비



그림 19 신녕궁주
신빈신씨(1441년)



그림 20 정연
묘표(1444년)



그림 21 황유
묘표(1450년)



그림 22 정경공주묘표
(1455년)

신녕궁주 신빈신씨 묘표(1441년)의 높이는 122.5cm로, 비두에는 연봉형의 보주와 보주 밑에 잎맥을 뚜렷하게 양각 하였고, 연잎을 뒤집어 놓은 형태는 자연스럽게 표현하였으며 비신의 상단부는 양쪽 모서리가 각이 있는 말각 형태이며, 비대의 윗면에는 복련이 양각되어 있다. 비두·비신·비대 일체형이다.(그림 19)

정연묘표(1444년)의 높이는 174.6cm로, 비두 상단부에는 연봉형의 보주와 보주

아래에는 연주문이 둘러져 있고, 연주문 밑에 잎맥을 뚜렷하게 양각 하였고, 하단부에는 연잎을 뒤집어 놓은 형태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그림 20)

황유묘표(1450년)는 하엽방부형으로, 높이는 143cm로, 비두 상단부에 있는 보주는 뾰족한 편이며 하단부에는 연잎을 뒤집어 놓은 형태로 양쪽 끝을 나선형으로 표현하였다.(그림 21)

경정공주 묘표(1455년)의 높이는 135cm로, 비두에는 작은 보주와 양 측면의 말려 올라간 연잎의 형태가 있다. 비대의 상단부에 음각선을 돌렸다. 비두·비신·비대 일체형이다.(그림 22)



김중행 묘표(1455년)는 하엽방부형으로 높이는 177cm로, 비두에는 연봉형의 보주와 보주 아래에는 연주문이 둘러져 있고, 연주문 밑에 잎맥을 뚜렷하게 양각 하였고, 하단부에는 비신과 구분이 없이 연잎을 뒤집어 놓은 형태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그림 23)

한계희 신도비(1483년)는 하엽방부형으로 높이는 242cm로, 비두에는 연봉형의 보주와 보주 아래에는 잎맥을 양각하였는데 잎맥이 뚜렷하다. 하단부에는 전·후·양 옆면에는 반전된 연잎을 뚜렷하게 양각하였다.(그림 24)

정난중 묘표(1489년)는 하엽방부형으로 높이는 133cm로, 비두에는 연봉형의 보주와 보주 아래에는 잎맥을 양각하였고 전·후·양 옆면에는 반전된 연잎을 양각하였다. 비두·비신·비대 일체형이다.(그림 25)

윤보 묘표(1494년)는 하엽방부형으로 높이는 143cm로, 비두에는 연봉형의 보주와 보주 아래에는 잎맥을 양각하였는데 잎맥이 뚜렷하다. 하단부에는 전·후·양 옆면에는 반전된 연잎을 양각하였다.(그림 26)

이와 같이 하엽방부형 비두·비신·비대 일체형으로는 신녕공주 신빈신씨 묘표(?~1435)·경정공주묘표(1384~1455)·정난중묘표(1433~1489)등이 있다.¹⁰³⁾ (그림 19·22·25)

103) 『경기묘제석조미술』, [上], 조선전기 도판편, 주자소, 2007. p. 20, p. 26, p. 44, p. 51. 참조

2. 상석(床石) · 계체석(階砌石) · 향로석(香爐石)

“상석은 혼유석 앞에 설치해 놓은 직사각형의 돌로 된 상(床)으로 묘제를 지낼 때 제물을 올려놓는 역할을 한다.”¹⁰⁴⁾ 계체석위에 상석이 놓인다. 상석 앞에 위치한 향로석은 제(祭)를 지낼 때 향을 피우거나 향로를 받치기 위한 실용적인 기능을 담당한 석물이다. 조선시대 묘역의 향로석은 15세기 전반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16세기경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조선 전반기 향로석은 대부분 팔각이나 육각의 형태이고, 조선후반기에는 거의 사각형태의 향로석으로 정착되고 형태도 단순화된다.”¹⁰⁵⁾ 15세기 후반에 팔각형향로석이 나타나고, 16세기 전반에는 육각형향로석이 나타나고, 16세기 중반부터 사각형향로석이 나타난다.



조철산 묘역에 있는 직사각형 상석은 쌍분 중앙 상계에 배치되어 있으며 가로 107cm, 세로 70cm, 높이 20cm인 직사각형의 화강암 판석이다. 상석 아래에는 한단의 개체석으로 8개의 화강암 판석이 놓여있다.(그림 27) 하계에 배치되어 있는 향로석은 가로 84cm, 세로 30cm, 높이 21cm의 화강암 판석이 놓여있다.(그림 27)

3. 장명등(長明燈)

“장명등이란 능묘 앞에서 묘역의 외부공간을 밝힐 수 있도록 장식한 석등이다. 묘 장명등은 실제적인 점화의 실용적 기능보다는 장생발복(長生發福)을 기원하는 뜻으로 건립하였고,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석등은 석탑 및 부도 앞에 설치되어 광명과 공양을 드리는 의미로 제작되었다.”¹⁰⁶⁾

104) 김우림, 앞의 논문, 2007, p. 20.

105) 김은선, 「조선 전기 경기묘제 석조 미술의 이해」, 『경기 묘제 석조 미술』, [상], 주자소, 2007, p. 252.

106) 김은선, 『경기 묘제 석조 미술』, [상], 「조선 전기 경기 묘제 석조 미술의 이해」, 주자소, 2007, p. 244.

“능묘 석등을 장명등으로 기록한 것은 조선 태종 10(1410)의 일이다. 그러나 이미 고려말 공민왕(1330~1374)과 노국공주(?~1365)의 현정릉(1372)에 장명등이 건립되어, 능묘 장명등의 기원은 적어도 고려까지 소급할 수 있다. 고려 말에는 승탑에도 장명등이 세워지는데 불전이나 탑 앞에 세워지던 석등의 의미가 점차 확대되어 능묘에도 건립된 것이다.”¹⁰⁷⁾

“장명등은 망자의 혼을 저승으로 밝게 인도한다든가 불을 밝힘으로서 사악한 잡귀를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기능을 지니는 석물이다. 대체로 봉분 앞의 상석 전방에 배치한다. 장명등이 신도비와 더불어 묘역에 있어서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석물로 사용되었다.”¹⁰⁸⁾ “장명등은 정삼품 이상의 관직을 가진 묘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석물로 조사되었다.”¹⁰⁹⁾

“장명등의 형태는 팔각장명등과 사각장명등으로 분류하며, 조선 전기 사대 묘에서는 대부분 사각 형태로 조성되었다. 능묘 석물 중 조형성이 우수하고 장식의 기능이 강한 특징이 있다.”¹¹⁰⁾ 장명등의 명칭은 상단부터 옥개석·화사석·상대석·중대석·하대석·지대석의 명칭으로 나눌 수 있다.

1) 조철산 장명등



조철산 장명등은 묘역 하계 하단부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사각 장명등의 형태로 전체 높이는 154cm이고, 보주+옥개석의 높이는 50cm이고, 화사석의 높이는 25cm. 너비는 43cm이다. 상대석의 높이는 26cm, 너비는 44cm이고, 중대석의 높이는 24cm, 너비는 36cm이고, 하대석의 높이는 12cm, 너비는 43cm이다.(그림 2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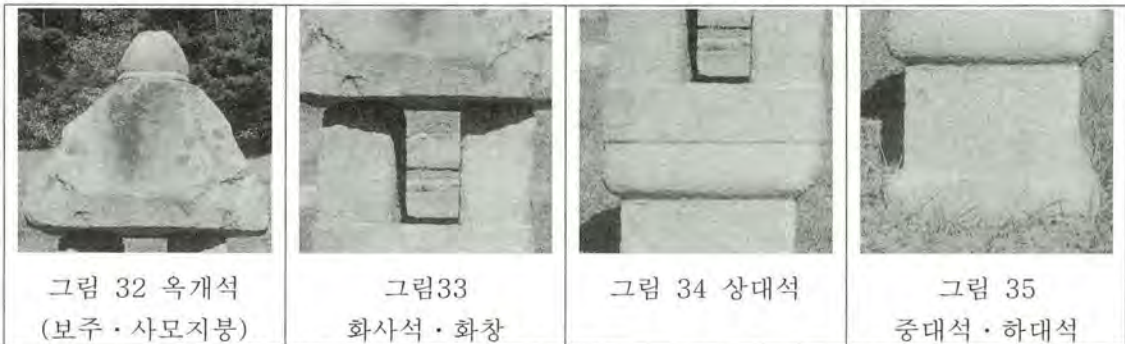
옥개석 상륜부에 연봉형 보주(寶珠: 연꽃 봉우리 모양의 장식)와 그 아래에 한단

107) 김민규, 「조선 왕릉 장명등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 4.

108) 김우림, 앞의 논문, 2007, pp. 121~122.

109) 김우림, 「조선시대 묘제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기 묘제 석조 미술의 연구 현황과 과제』, 경기도 박물관, 2009, p. 27.

110) 『경기 묘제 석조 미술의 연구 현황과 과제』, 경기도 박물관, 2009, p. 13.



의 둥근 띠를 둘렀으며 옥개석은 사모지붕의 형태로 지붕은 완만한 선을 이루고, 전각의 두께는 9cm이다.(그림 32) 화사석의 화창은 앞면 · 뒤면 두 곳에 화사석의 중앙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뚫려있는데 화창의 크기는 높이는 25cm, 너비는 15cm 인 직사각형의 형태로, 화창 내부는 중심을 향하여 약간의 기울기로 제작 되었다.(그림 33)

상대석의 상단부는 한 개의 넓은 띠로 양각되었으며, 하단부에는 네 곳 모서리를 둥글게 표현하였다.(그림 34) 중대석은 직사각형으로 무늬는 없고, 하대석 상단부에는 네 곳 모서리를 둥글게 표현하였고, 하대석에는 무늬가 없다.(그림 35) 조철산 장명등은 15세기 전반 · 중반에서 볼 수 있는 사각형태의 장명등이다. 사각장명등은 15세기 전반에서 16세기 초반까지 사모지붕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런 형식의 장명등은 신녕궁주(?~1435) · 최사강(1385~1443) · 윤희(1401~1443) · 강맹경(1416~1461) · 황수신(1407~1467) · 윤사훈(1422~1485) · 한계희(1483) 등에서 볼 수 있다.(그림 36 · 37 · 38 · 그림 41 · 그림 43)

2) 15세기 장명등



신녕궁주 장명등은 사각 형태로 높이는 156.3cm이고, 상륜부에는 보주가 있고 사모지붕의 옥개석은 따로 조성되었고, 지붕의 각 모서리에는 추녀마루가 밀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중대석에는 남측 면을 시작으로 돌아가면서 각 면마다 ‘信’ ·



‘寧’ · ‘宮’ · ‘主’ 네 글자가 깊게 음각하였다. 15세기 묘 장명등의 일반적인 형태이다.(그림 36)

최사강(높이 144.2cm) · 흥녕부대부인 인천이씨(높이 233cm) 등의 장명등은 사각 형태로 상륜부에는 연봉형 보주와 배가 불룩한 복발의 2단 구조이다. 옥개석은 사모 지붕의 형태이고 처마마루는 불룩하게 양각하였고 추녀 끝은 살짝 반전 되었다. 화사석에는 장방형의 화창이 뚫려있으며, 그 아래에 상대석 · 중대석 · 하대석으로 구성되고 있다.(그림 37 · 그림40)

윤희 장명등은 사각 형태로 높이는 176cm이고, 보주는 옥개에 비해 크고 옥개는 사모지붕으로 각 지붕의 모서리에는 추녀마루가 양각되었으며 추녀 끝을 살짝 반전되었다. 화창

은 앞 · 뒤 두 곳만 뚫었다. 화사석과 하대석은 유난히 길다.(그림 38)

광명대군 이여 장명등은 사각 형태로 높이는 248cm인데 비교적 큰 규모이다. 옥개는 사모지붕이고 상륜부는 연봉형 보주와 배가 불룩한 복발의 2단 구조이다. 옥개 상단에는 사각의 옥개 덮개가 있고, 상대석의 하단부에는 양련을, 하대석의 상단부에는 복련을 양각하였다.(그림 39)

강맹경 장명등은 묘역 하계의 중앙에 있다. 사각 형태로 높이는 189.3cm이고, 옥개석은 사모 지붕형으로 상륜부에는 연봉형 보주가 있고, 옥개의 상단에는 하엽형의 옥개 덮개가 있다. 옥개의 추녀마루에는 두껍게 돌출 되었으며 추녀 끝은 반전 되어 있다. 화사석은 상대석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네 면에 화창을 장방형으로 뚫었다. 15세기 중반기의 전형적인 묘 장명등이다.(그림 41)

박중손 장명등은 사각 형태로 높이는 196.7cm이고, 옥개석은 사모 지붕형으로 연봉형의 보주와 그 아래에 연주문대를 둘렀으며, 옥개석 추녀마루는 두껍게 돌출 되었으며 추녀 끝은 반전 되어 있다. 화창은 네 면이 뚫려 있는데 남측 면과 북측 면은 방형이며, 동측 면은 둥근 해 문양을, 서측 면은 그믐달 형태의 화창을 만들었다. 박중손 장명등의 화창은 일 · 월상문 형태의 희귀한 장명등으로 묘 장명등으로

는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되었다.(그림 42)

황수신 장명등은 사각 형태로 높이는 156.1cm이고, 옥개는 사모지붕이고 상륜부는 연봉형 보주와 그 아래에는 두꺼운 보주 받침을 한단 들렀다. 처마마루는 도톰하게 양각하였고, 전각 끝은 반전되었다. 화창은 직사각형으로 네 면을 모두 뚫었다. 상대석 아래 부분에 두 줄의 음각선을 넣었다.(그림 43)¹¹¹⁾

4. 문인석(文人石)

문인석은 14세기 후반부터 17세기 후반까지 세워진 공복형의 문인석과 16세기 이후 출현하여 18세기 후반까지 조성되는 조복형 문인석으로 나뉜다.

1) 복두공복(幘頭公服) 문인석

공복은 조화나 사은(謝恩) 또는 재외문무관(在外文武官)이 공사(公事)에 참여할 때 착용하였는데 공복은 통상 예복으로서 공식적인 공무에 입었다. “복두공복 문인석은 복두·포·대·홀·화로 이루어지며 포의 색과 대와 홀의 재료에 따라 품계의 상하를 가렸다. 공복의 형태는 곡령대수로 옷깃이 둥글고 소매가 넓고, 복두는 공복에 쓰던 관으로 앞은 얇고 뒤는 높게 각이 졌고 평각이 길게 옆으로 뻗어 있다.”¹¹²⁾

『경기 묘제 석조 미술』 상(上)이 있는 조선시대 15세기 전반·중반·후기의 문인석의 공복과 손의 표현을 살펴보면 15세기 초기에는 홀을 쥔 손이 드러나지 않다가 15세기 중반이후 손이 점점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손을 덮은 옷자락도 ‘入’자 형태였다가 ‘八’자 형태나 ‘11’자 형태로 변한다.

조선시대 15세기 전반·중반 문인석으로 눈의 표현이 돌장승의 눈매 이거나 입술의 모양이 없는 것과 뚜렷하지 않은 문인석이 있다. 이러한 것은 15세기 전반·중반의 문인석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다.

공복형 문인석에 표현된 대(帶) 역시 야대 형태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띠 끝 부분이 어느 쪽에 있는가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누고, 장식판과 타미의 유무, 무늬 여부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¹¹³⁾

(1) 조철산 좌 문인석

조철산 문인석은 하계에 한 쌍을 배치한 복두공복형으로, 문인석(좌)의 전체높이는 131cm이고, 복두의 높이는 21cm, 얼굴길이 24cm, 얼굴 폭은 22cm인 가름한 얼굴형이고 뺨은 약간 볼록하게 돌출 되었다. 몸통 둘레는 143.5cm, 몸의 가로 폭은 40cm이고, 홀의 길이는 21cm이다. 머리에는 복두를 쓰고, 홀을 잡고 공수하는 모습

111) 『경기묘제석조미술』, [上], 조선전기 도판편, 주자소, 2007, p. 124, p. 128, p. 129, p. 133, p. 135, p. 137, p. 139.

112) 홍나영·신혜성·이은진 『동 아시아 복식의 역사』, (주)교문사, 2011, p. 346.

113) 이은주·송미경, 『경기 묘제 석조 미술』, [下], 조선후기 해설, 2008, p. 297.



그림 44 좌 문인석(앞) 그림 45 좌 문인석(옆) 그림 46 좌 문인석(뒤)

으로 공복의 모습은 소매로 손을 완전히 감싼 형태로 소매 자락의 표현은 ‘八’ 자형의 5개의 주름이 발등 가까이 뻗어 있고 팔위의 규칙적인 주름 선은 옆면에 물결 무늬로 표현하였다.(그림 44 · 45)

눈은 눈썹 아랫부분을 깊게 음각한 타원형으로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게 표현하였고, 귀는 반 타원형으로 어깨와 맞 닿아 있으며 귀의 중앙에는 귓구멍이 뚫어져 있고, 코는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입은 입술 끝이 위로 약간 올라간 스마일 모양으로 선으로 음각하였고, 신발은 반원형으로 음각하였다.(그림 44 · 45)) 허리에 있는 띠 꼬리는 허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늘어진 왼쪽 허리형 야자대로 표현하였다.(그림 46)

(2) 조철산 문인석의 복두공복 · 얼굴 · 홀 · 공복 · 대



그림 47 복두공복과 얼굴 그림 48 홀과 손의 위치 그림 49 공복의 주름과 대 그림 50 왼쪽 허리형 야자대

좌 문인석의 홀의 길이는 21cm이고, 우 문인석의 홀의 길이는 23.5cm이다. 홀을 쥐고 공수하는 모습으로 공복의 모습은 소매로 손을 완전히 감싼 형태로 소매 자

락의 표현은 ‘八’ 자 형의 5개의 주름이 발등 가까이 뻗어 있고 팔위의 규칙적인 주름 선은 좌·우 대칭으로 표현하였다.(그림 48 · 49)

(3) 조철산 우 문인석¹¹⁴⁾



조철산 문인석은 하계에 한 쌍을 배치한 복두공복으로, 문인석(우)의 높이는 132cm이고, 복두높이는 24cm이고, 얼굴길이는 23cm, 얼굴 너비는 21cm로 가름한 얼굴형이고 뺨은 약간 돌출 되었다. 몸통 둘레는 146.5cm, 몸의 가로 폭은 40cm이고, 홀의 길이는 23.5cm이다. 머

리에는 복두를 쓰고, 홀을 잡고 공수하는 모습으로 공복의 모습은 소매로 손을 완전히 감싼 형태로 소매 자락의 표현은 ‘八’ 자형의 5개의 주름이 발등 가까이 뻗어 있고 팔위의 규칙적인 주름 선은 옆면까지 물결무늬로 표현하였다. (그림 51 · 52)

눈은 눈썹 아랫부분을 깊게 음각한 타원형으로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게 표현하였고, 귀는 반 타원형으로 어깨와 맞 닿아 있으며 귀의 중앙에 귓구멍이 뚫어져 있고, 코는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입의 모양은 스마일 모양으로 선으로 음각하였다.(그림 51 · 52) 허리에 있는 띠 꼬리는 허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늘어진 왼쪽 허리형 야자대로 표현하였다.(그림 53)

2) 15세기 복두공복 문인석 대의 종류

114) 봉분에서 앞을 바라보면서 문인석의 오른쪽을 ‘우’ 왼쪽을 ‘좌’ 로 한다.

공복형 문인석에 표현된 대(帶) 역시 야대 형태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띠 끝 부분이 어느 쪽에 있는가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누고, 장식판과 타미의 유무, 무늬 여부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¹¹⁵⁾



성령대군 이중·안맹담 등의 문인석 띠 꼬리는 허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늘어진 오른쪽 허리형 야자대로 표현하였고,(그림 54·57) 안경공·신녕궁주 신빈신씨 등의 허리에 있는 띠 꼬리는 허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늘어진 왼쪽 허리형 야자대¹¹⁶⁾로 표현하였다.(그림 55·56) 성령대군 이중·안경공·안맹담 야자대는 장식판과 타미가 모두 없고,(그림 54·55·57) 신녕궁주 신빈신씨(?-1435) 문인석의 띠는 야자대에 타미 장식이 있다.(그림 56)¹¹⁷⁾

3) 15세기 복두공복 문인석

안경공·신녕궁주 신빈김씨 문인석은 복두공복형으로 얼굴은 장방형이고 뺨은 약간 돌출되었고, 양 귀는 앞쪽을 향하여 평면적으로 세웠고 눈썹아래부분을 깊게 음각하는 15세기 전반의 안면 표현을 보여준다. 홀을 권 손은 위로 하고 공복의 모습은 소매로 손을 완전히 감싼 형태로 소매 자락의 표현은 ‘入’ 자 형태로 흘러내린 옷 주름은 일정한 간격으로 음각하고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신발은 반원형으로 음각하였다.(그림 58·59)

광평대군 이여 문인석은 복두공복형으로 얼굴은 거의 원형에 가깝고 눈썹을 두껍게 양각하였고, 눈은 많이 돌출 되었고 눈꼬리가 약간 올라갔으며 양 볼의 뺨이 많이 돌출 되었다. 홀을 권 소매 자락의 표현은 ‘八’ 자 형태로, 소매 주름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좌우대칭을 흘러 내렸고 끝에 둥근 양감을 주었다.(그림 60)

의안대군 이방석의 문인석은 복두공복형으로 얼굴은 방형으로 양 볼의 뺨을 많이 돌출하였고, 눈의 표현은 돌장승의 눈매이다. 홀을 권 공복의 모습은 소매로 손을 완전히 감싼 형태로 소매 자락의 표현은 ‘八’ 자 형태로 흘러내린 옷 주름은 일

115) 이은주·송미경, 앞의 논문, 2008, p. 297.

116) 이은주·송미경, 앞의 논문, 2008, p. 296. 조선후기에는 공복에 사용한 대를 ‘야대(也帶)’ 혹은 ‘야자대(也字帶)’ 라고 하는데 ‘야자대’ 라는 명칭은 영조 33년의 기사가 실린 『영조실록』에 처음 보인다. 英祖實錄 卷90 英祖 33年 8月 21日(庚辰). “自今唱榜, 以布裹幘頭, 也字帶舉行(지금으로부터 창방할 때에는 포로 싼 복두와 야자대로써 거행하라.)”

117) 이은주·송미경, 앞의 논문, 2008, p. 297.



정한 간격으로 음각하고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그림 61)



심온 문인석은 복두공복형으로 눈썹을 깊게 파고 큰 눈을 돌출되게 양각하고, 양 볼의 뺨을 많이 돌출하였다. 코와 귓바퀴·귓구멍·수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홀을 잡은 손을 자세히 표현하고 소매 자락의 표현은 '11' 자 형태로 소매는 아랫 부분이 둥근형태로 표현하였다.(그림 62)

경정공주 문인석은 복두공복형으로 눈썹을 깊게 파고 큰 눈을 돌출되게 양각하였고, 입은 일자형으로 표현하였다. 홀을 쥔 공복의 모습은 소매로 손을 완전히 감

싼 형태로 소매 자락의 표현은 ‘11’ 자 형태로 흘러내린 옷 주름은 일정한 간격으로 표현하고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그림 63)

홍녕부대부인 인천이씨 문인석은 복두공복형으로 커다란 타원형 눈매 콧방울과 콧구멍을 상세히 표현하고 있다. 홀을 쥔 공복의 모습은 소매로 손을 완전히 감싼 형태로 소매 자락의 표현은 ‘八’ 자 형태로 흘러내리고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그림 64)

안맹담 문인석은 복두공복형으로 얼굴은 둥근 형태이며 눈썹을 두툼하게 양각하였고 선각으로 눈동자를 표현하였다. 콧수염과 턱수염은 ‘八’ 자 형태로 세밀히 선각하였고 콧바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홀을 잡은 손을 자세히 표현하고 소매 자락의 표현은 ‘11’ 자 형태로 표현하였다.(그림 65)¹¹⁸⁾

『경기 묘제 석조 미술』 상(上)이 있는 조선시대 15세기 전반·중반·후반의 문인석의 공복과 손의 표현을 살펴보면 15세기 전반에는 홀을 쥔 손이 드러나지 않다가(그림 58·59·60·61·64) 15세기 중엽이후 손이 점점 드러나고 있으며(그림 62·65) 이에 따라 손을 덮은 옷자락도 ‘入’ 자(그림 58·59) 형태였다가 ‘八’ 자(그림 60·61·64) 형태나 ‘11’ 자(그림 62·65) 형태로 변한다.

조선시대 15세기 전반·중반 문인석으로 눈의 표현이 돌장승의 눈매 이거나 입술의 모양이 없는 것과 뚜렷하지 않은 문인석은 안경공·신녕궁주 신빈김씨·이방석등의 문인석이다.(그림 58·59·61) 눈과 입술의 모양이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인석은 광평대군 이여·심온·홍녕부대부인 인천이씨·안맹담 등의 문인석이다.(그림 60·62·64·65)

조선시대 15세기 전반·중반 문인석으로 눈의 표현이 돌장승의 눈매 이거나 입술의 모양이 없는 것과 뚜렷하지 않은 문인석이 있다. 이러한 것은 15세기 전반·중반의 문인석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다.

III. 맺음말

조철산(1404~1465)은 세조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양(平壤), 호는 석실(石室)이다. 예빈시소윤(禮賓寺少尹), 호조정랑과 전농시소윤(典農寺少尹)을 거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죽은 뒤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되었다.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산 30번지에 있는 석실 조철산 묘역의 석물들은 15세기 전반·중반에 나타나는 양식을 보여주는 석물들로 비교적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조철산 묘역은 크게 2단으로 나뉘어 있는데 상계에는 용미와 사성을 갖춘 원형의 쌍분이 있는데 좌측(동쪽)이 석실 조철산의 묘이고, 우측(서쪽)은 정경부인 이씨

118) 『경기묘제석조미술』, [上], 조선전기 도판편, 주자소, 2007, p. 184, p. 194, p. 197, p. 202, p. 212, p. 220, p. 222, p. 226.

의 묘이다. 옛 석물은 상계에는 조철산과 정경부인 이씨 봉분 앞의 하엽방부형 묘표와 상석·계체석이 있고, 하계 중반부에는 복두공복형의 좌·우 문인석이 있고, 하계 하단부에는 묘역 중앙에 사각형태 장명등의 석물이 잘 갖추어져 있다.

석실 조철산의 묘표의 전면에는 ‘進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行 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趙鐵山墓(진증송정대부의정부좌찬성행 통정대부첨지중추원사조철산묘)’의 비문이 있고, 건립연월은 성화4년(成化4年) (1468, 세조 14)으로 현재 성남 지역에서 건립연월이 뚜렷한 묘비 중 가장 오래된 묘표이다. 정경부인 이씨의 묘표의 비문은 前後 2面에 있는데, 전면에는 ‘貞敬夫人李氏之墓(정경부인이씨지묘)’의 비문과, 후면에는 ‘成化十年二月十七日(성화십년이월십칠일)’의 비문이 있다. 건립연대는 成化 10년(1474)이다.

석실 조철산의 묘표와 정경부인 이씨의 묘표는 비두에는 연봉형의 보주와, 보주 아래에는 연주문이 둘러져있고, 연주문 밑에는 연잎의 잎맥을 뚜렷하게 표현하였고, 비두 하단부에는 전·후·양 옆면에 반전된 연잎을 양각하였다. 조철산 묘표와 정경부인 이씨의 묘표는 비두·비신·비대(碑頭·碑身·碑臺) 일체형의 하엽방부형이다.

조철산의 묘비는 조선시대 15세기 전반·중반에 주로 나타나는 하엽방부형으로 시기적으로 매우 앞서는 석물이다.

『경기 묘제 석조 미술』상(上)에 있는 조선시대 15세기의 하엽방부형은 묘비는 14기, 신도비는 4기 수록되어 있고, 특히 1474년 이전의 하엽방부형은 묘비가 7기, 신도비는 2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15세기의 하엽방부형 묘비는 숫자도 적어 보존되어야 할 문화유산이다.

조철산 장명등은 묘역 하계 하단부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옥개석 상륜부에는 연봉형 보주(寶珠)와 보주 아래에 한단의 둥근 띠를 둘러으며 옥개석은 사모 지붕의 형태이고 지붕은 완만한 선을 이루고 있다. 화사석의 화창은 앞면·뒤면 두 곳에 화사석의 중앙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뚫려있는데 화창은 직사각형의 모양이다.

상대석의 상단부는 한 개의 넓은 띠로 양각되었으며, 하단부는 네 곳 모서리를 둥글게 표현하였다. 중대석은 직사각형으로 무늬는 없고, 하대석 상단부는 네 곳 모서리를 둥글게 표현하였고, 하대석에는 무늬가 없다. 조철산 장명등은 15세기 전반·중반에 볼 수 있는 사각형태의 장명등이다.

조철산의 문인석은 머리에는 복두를 쓰고, 눈은 눈썹 아래를 깊게 음각한 타원형이고, 귀는 반타원형으로 귀 중앙에 귓구멍이 뚫려져 있고 코는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입은 스마일 모양으로 선으로 음각하였다. 홀을 잡고 공수하는 모습은 소매로 손을 완전히 감싼 형태로, 소매자락의 표현은 ‘八’ 자형으로 5개 주름을 좌우 대칭으로 표현하였다. 조철산 문인석의 야자대는 허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늘어난 왼쪽 허리형 야자대를 표현하고 있다.

조철산의 문인석은 조선시대 15세기 전반·중반 문인석에서 나타나는 양식을 잘 표현하고 있다.

석실 조철산 묘역에 있는 석물은 하엽방부형 묘표2기·사각형태의 장명등·복두 공복형 문인석 한 쌍이 배치되어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시기적으로 매우 앞서는 석물로 보존가치가 매우 크며, 조철산 묘역의 석물은 조선시대 15세기 전반·중반의 특징을 잘 나타낸 석조물이다. 특히 조선시대 15세기의 석조물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보존되어야 할 문화유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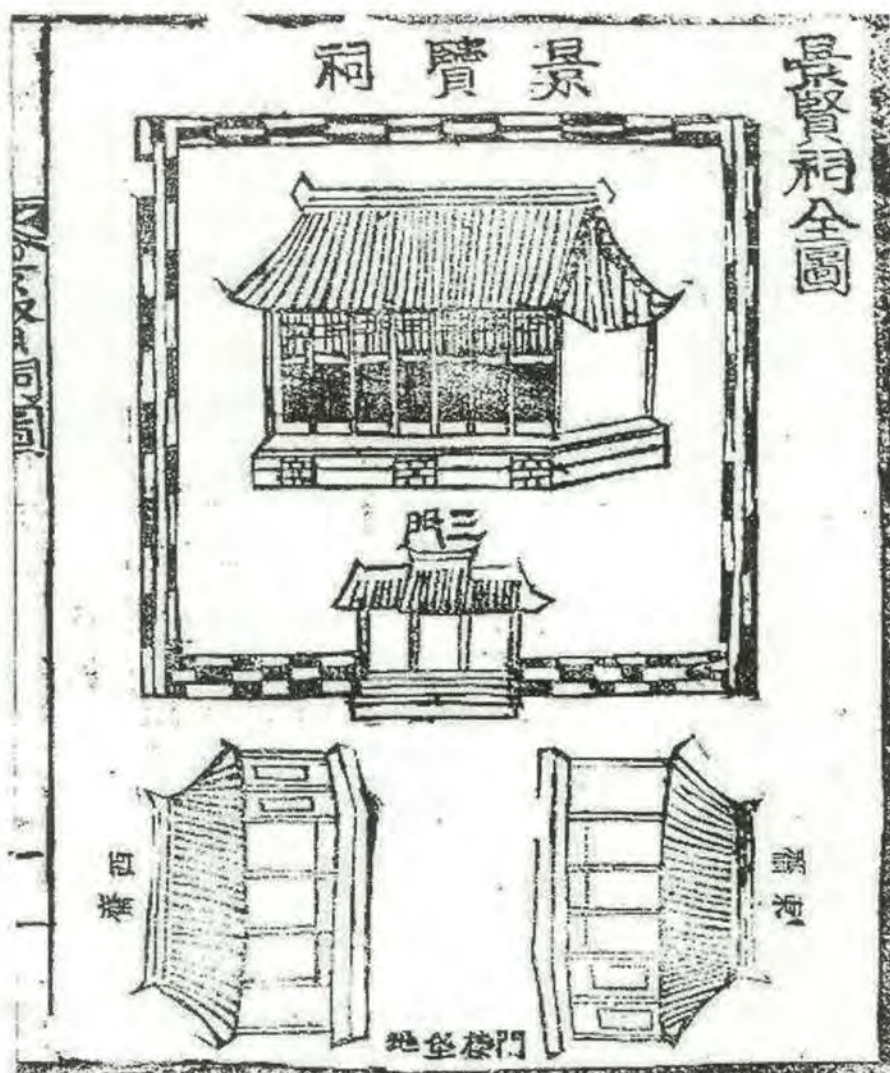
[참고문헌]

- 『경기묘제석조미술』, [上], 조선전기 도판편, 주자소, 2007.
 『경기묘제석조미술』, [上], 조선전기 해설편, 주자소, 2007.
 『경기 묘제 석조 미술』, [下], 조선후기 도판, 경기도박물관, 2008
 『경기 묘제 석조 미술』, [下], 조선후기 해설, 경기도박물관, 2008.
 『경기 묘제 석조 미술의 연구 현황과 과제』, 경기도 박물관, 2009.
 『석등』, 대원사, 2003.
 『성남금석문대관』, 성남시 성남문화원, 고려금석원, 2003.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③ 고려 왕릉』, 예맥, 2008.
 『조선왕조실록』
 『한국문화와 유물유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7.
 『韓國의 美 ③ 『李朝 陶磁』, 중앙일보, 1981.
 『韓國의 美 ⑮ 石燈·浮屠·碑』, 중앙일보, 1981.
 『한국 전통복식 2천년』, 국립대구박물관, 통천문화사, 2002
 김민규, 「조선 왕릉 장명등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金右臨, 「서울·경기지역의 朝鮮時代 士大夫 墓制 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金右臨, 「龍仁지역 墳墓에 나타난 석물의 특징」, 『丹豪文化研究』 6호, 2001,
 金右臨, 「조선시대 묘제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기 묘제 석조 미술의 연구 현황과 과제』, 경기도 박물관, 2009.
 金右臨, 「 朝鮮時代 士大夫 묘역의 석물」, 『경기묘제석조미술』, [下], 조선후기 해설, 경기도 박물관, 2008.
 김은선, 「조선 전기 경기 묘제 석조 미술의 이해」 『경기 묘제 석조 미술』, [상], 주자소, 2007.
 손환일, 『한국 금석문의 두전』, 서화미디어, 2011.
 이은주·송미경, 『경기 묘제 석조 미술』, [下], 조선후기 해설, 경기도 박물관, 2008.
 홍나영·신혜성·이은진 『동아시아 복식의 역사』, (주)교문사, 2011.

여 백

부 록

여 백



11

경현사 전도

景賢祠誌序
宋斯文祖憲與湖嶺諸章甫
就長城之萬壽山中建一祠曰景
賢妥嚴季忠賢分東西而俎
豆之東則始之以圃隱而終之以

平壤趙氏松山公五派宗會配享位

府尹 石室公 平壤 趙鐵山 先生 (? ~ 1468 고려 말 ~ 조선 세조 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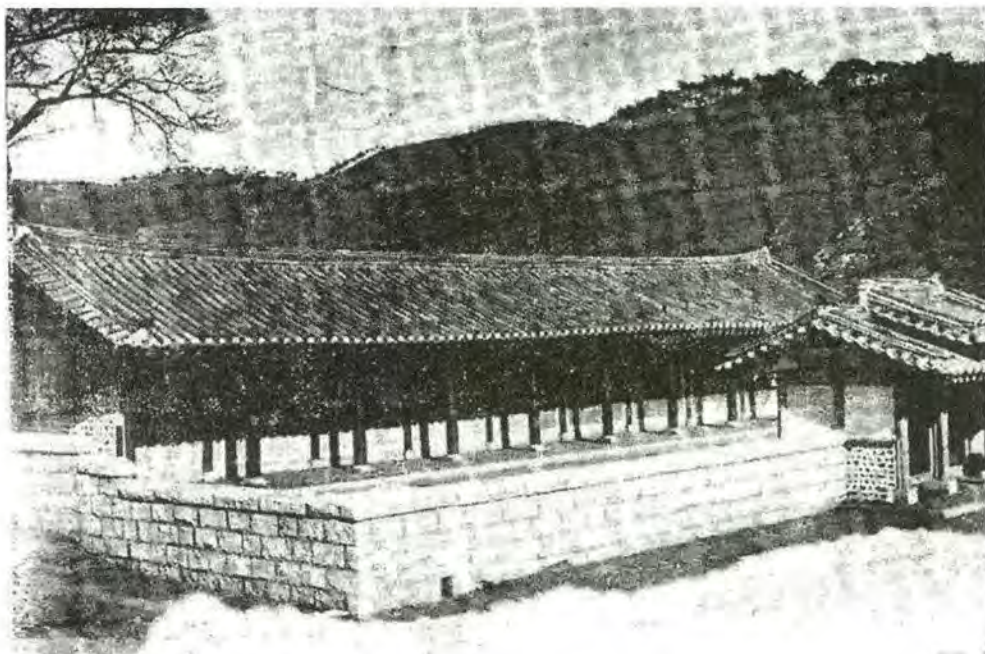
본관(本貫)은 평양(平壤), 호는 석실(石室)이다.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 송산 조견(松山 趙獫)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조부가 판도평의사사(判都評議司事)를 지낸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조덕유(趙德裕)이고 조선 개국공신 조준(趙浚)이 백부(伯父)이다.

高麗大殿(趙鐵山先生)奉安文

오호(嗚呼)! 선생(先生)이시어! 여말(麗末)에 부자(父子)가 함께 불이신절(不二臣節)을 다하시니, 선생(先生)은 바로 송산선생 견(松山先生 獫)의 아들이로다. 백부(伯父)는 후조(後朝)의 개국공신(開國功臣)으로 영상(傾相)에 이르렀으니, 그의 중용(忠勇)을 좇았던들 누가 무어라 하리요? 이미 망(亡)한 고국(故國)을 붙들고 놓지 않으니, 그때도 하늘에는 밝은 해가 있기 때문이로다. 하물며 한 밥 식초(食醋)를 마실지언정 어찌 나부(懦夫)가 되어 패역(悖逆)의 늑(猡)을 먹겠는가? 여러 차례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를 삼아 불렀으나 부친(父親)의 훈고(訓誥)를 좇아 오히려 고난(苦難)의 길을 달게 밟으셨도다. 때로는 고비를 따서 주린 배를 채우시고, 언제나 두견(杜鵑)이 울면 옛 임금을 사모(思慕)하시도다. 지금 양주(楊州)고을에는 충량(忠亮)의 칭혜(稱惠)가 세전(世傳)하니, 그 쌍충(雙忠)이여! 천세(千歲)에 영명(永名)이 더욱 완연(完然)하도다. 승국(勝國)이 국운(國運)을 다한지 어언(於焉) 六百年이로되 그 절의(節義)를 생각하니 사림(士林)의 유한(遺恨)이 더욱 길도다. 하늘의 뜻은 기다림에 있고, 사람의 마음은 막기 어렵도다. 드디어 고려선양회 주관(高麗宣揚會 主管)으로 통일(統一)등산에 터를 잡아 수년(數年)만에 저 익연(翼然)한 승국(勝國)의 대전(大殿)을 열었도다. 천만성손(千萬姓孫)은 의(義)를 들어 이에 헌성(獻誠)하고, 정부기관(政府機關)은 충(忠)을 좇아 이에 협찬(協贊)하였도다. 이제 성조(聖祖)를 좇아 승국(勝國)의 선정(先正)을 열실(列室)에 배사(配祀)하노니, 좌우재현(左右諸賢)은 당시(當時)의 고국(故舊)로다. 강상(綱常)은 만고(萬古)의 진리(真理)요 역사(歷史)는 천추(千秋)의 대의(大義)러니, 영명(永名)은 백대(百代)에 유전(遺傳)하고 정절(靖節)은 천추(千秋)에 유방(遺芳)하리로다. 속속(簫簫)한 저 고려대전(高麗大殿)은 선생(先生)이 안식(安息)하시기에 알맞고, 애애(霏霏)한 저 송악산(松嶽山)은 선생(先生)이 소요(逍遙)하시기에 족(足)하리로다. 드디어 유사(有司)는 정결(淨潔)히 예채(醴齊)를 갖추어 감(敢)히 존령(尊靈)을 고려대전(高麗大殿) 서배향(西配享) 금열(金列) 120번위(番位)에 봉안(奉安)하나이다. 바라옵건대 밝고 밝은 영형(英靈)이시어! 향축(香祝)이 구천(九泉)에 응(應)하거든 이에 강림(降臨)하사 명인(明稟)을 함격(歆格)하시고 평안(平安)을 누리소서.

社團法人 高麗歷史宣揚會 有司尙書

고려 통일대전 조철산선생 봉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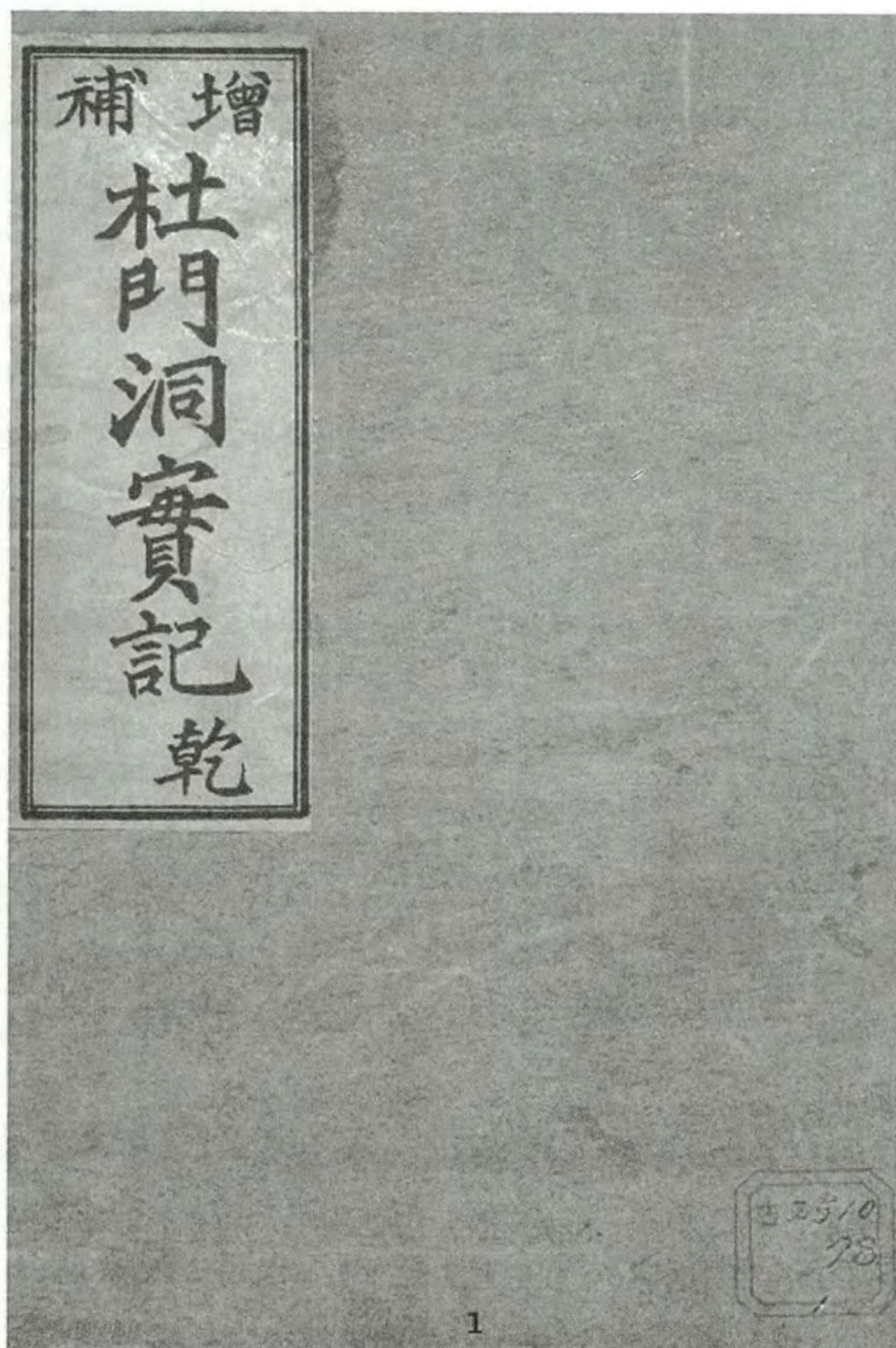
宇 廟 院 書

두문동서원 사당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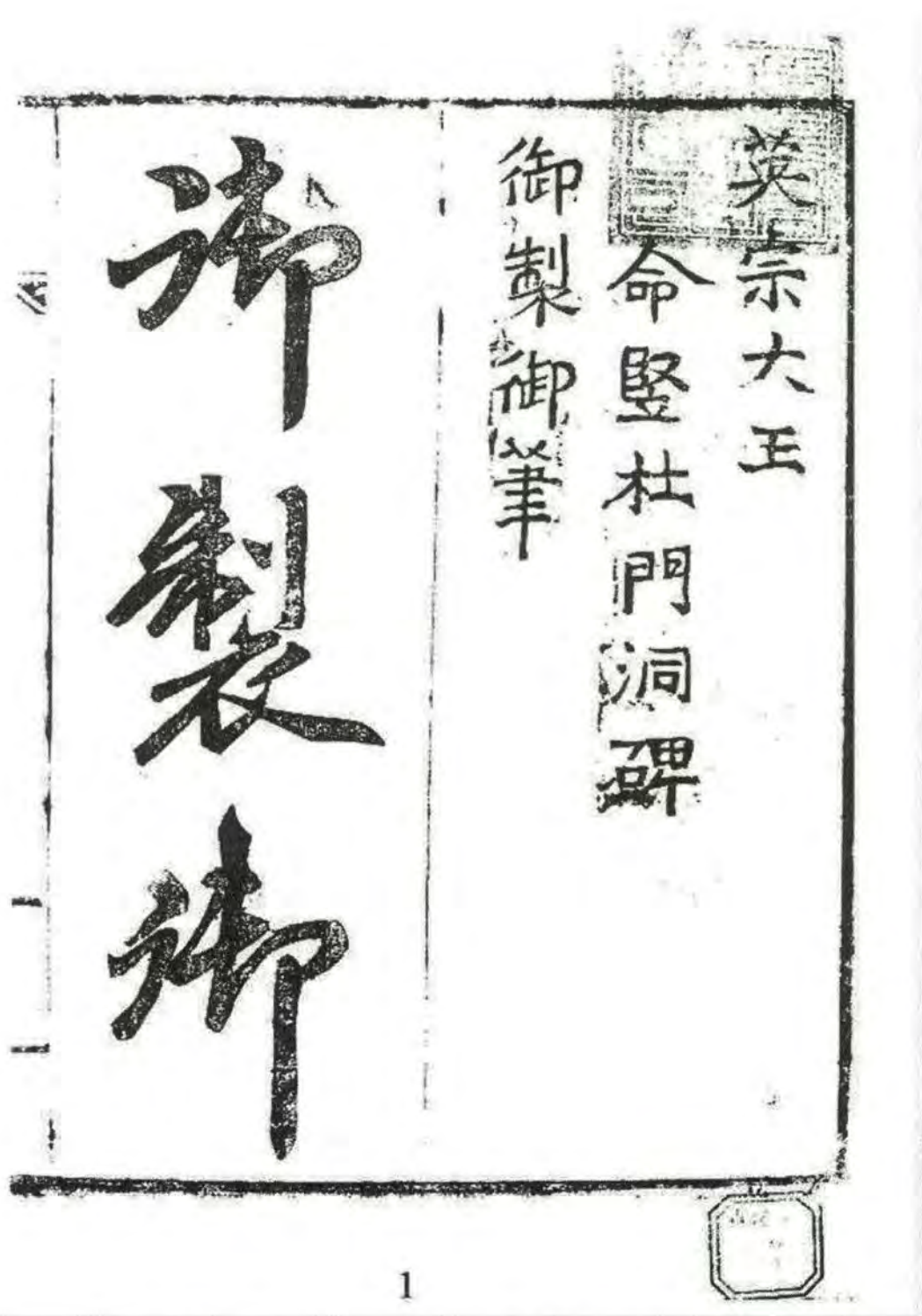


閣 碑 筆 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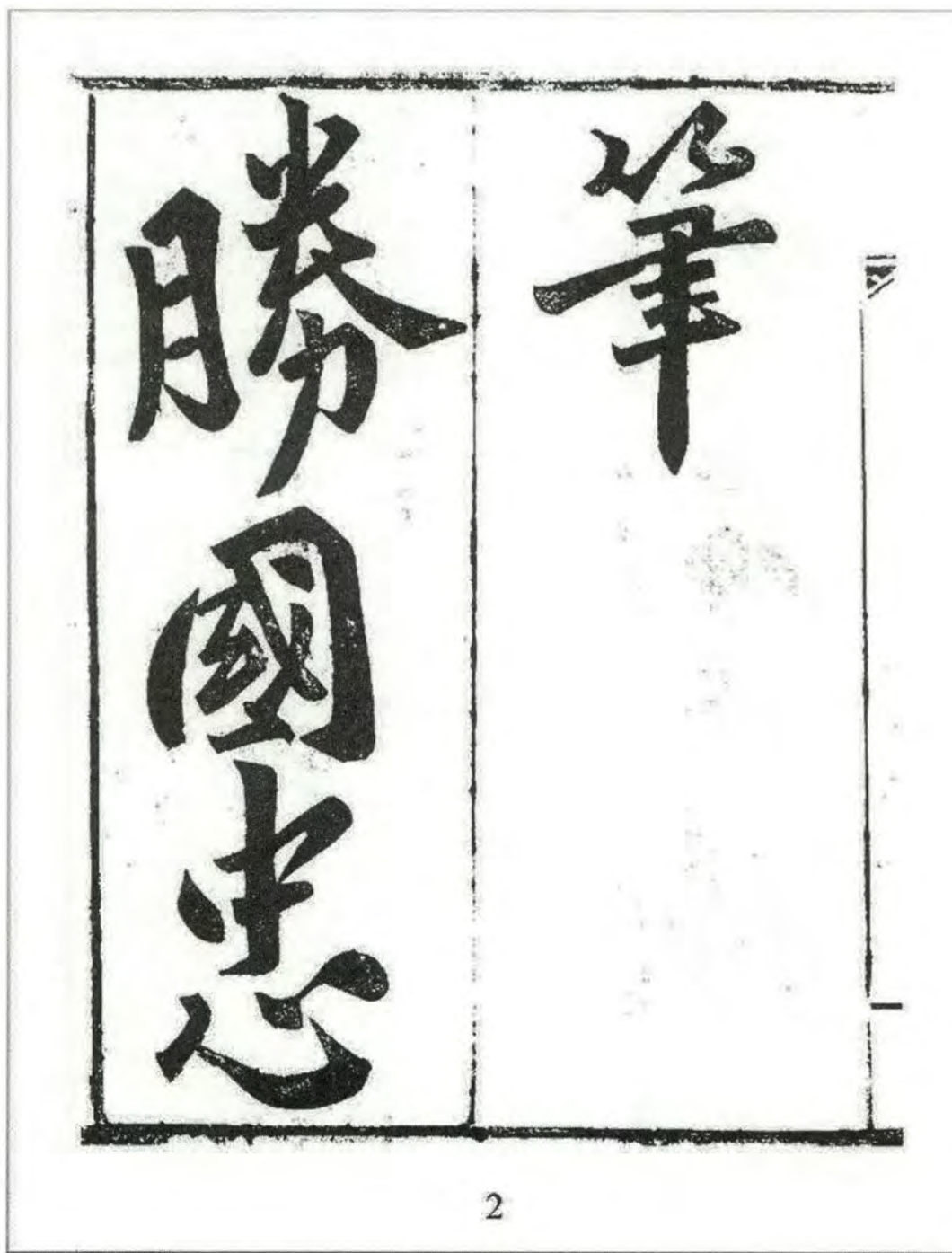
어필비각(두문동 서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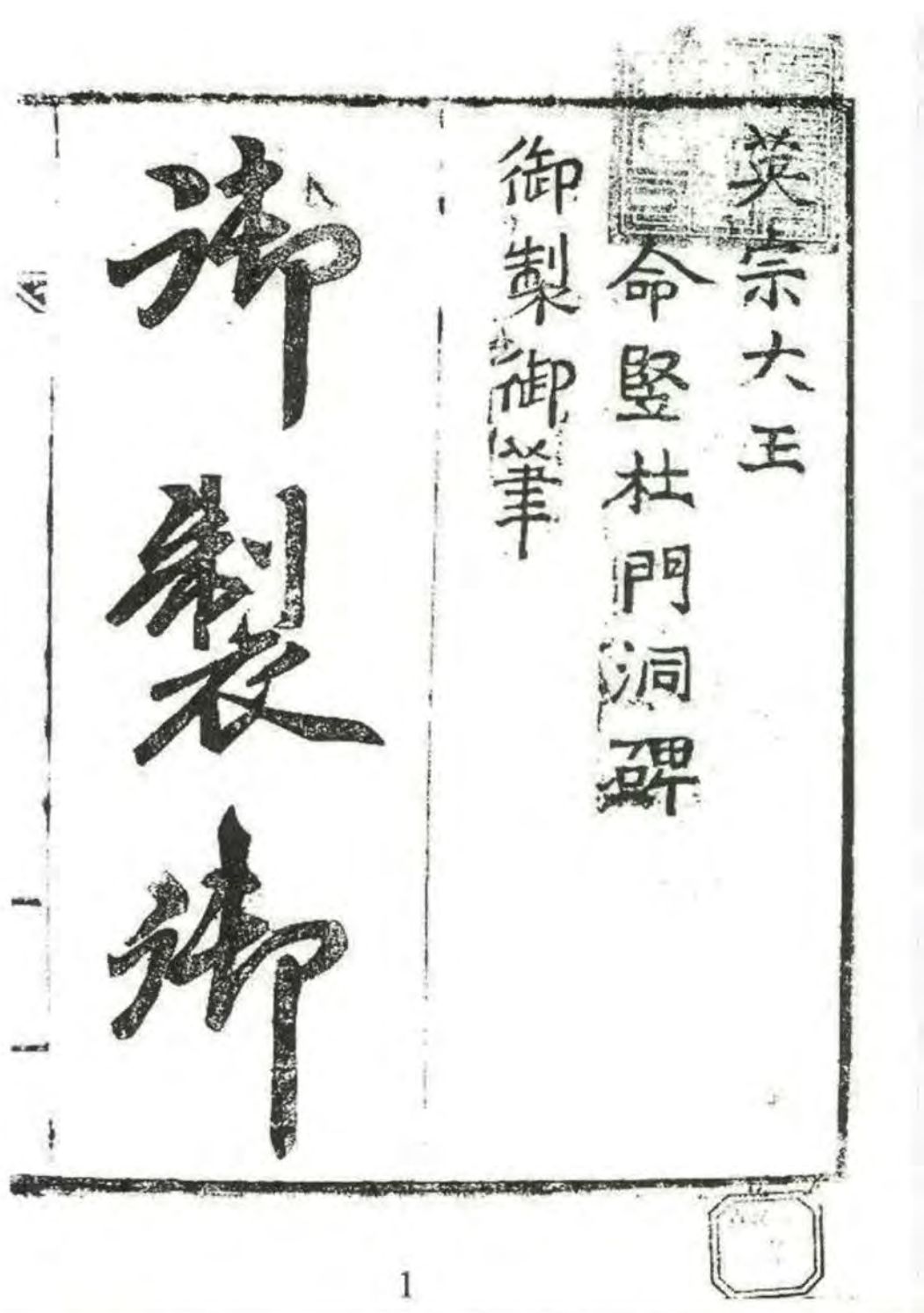
두문동실기 표지



영종대왕 어제 어필 두문동비(승국충신두문동사실)



영종대왕(어제어필)



영종대왕 어제 어필 두문동비(승국충신두문동사실)



영종대왕어필



15

개성 성균관 내에 있는 표절사 그림

제12회 학술회의

평양조씨 석실공 (諱 鐵山) 연구

인쇄 : 2015년 3월 20일

발행 : 2015년 3월 25일

발행인 : 김대진

편집인 : 김정진, 윤종준

발행처 : 성남문화원

주소 :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6926번지

전화 : 031-756-1082

팩스 : 031-756-1056

홈페이지 : www.seongnamculture.or.kr

조철산 인물소개

조철산(趙鐵山, 1404~1465)의 본관은 평양, 호는 석실(石室)이다. 정숙공(貞肅公) 조인규(趙仁規)의 현손이자 평양부원군 조덕유(趙德裕, 1314~1352)의 손자이며, 고려 말의 충신인 평간공(平簡公) 조건(趙狷, 1351~1425)의 아들이다. 高麗 말엽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빈시 소윤을 지냈으며, 사후에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되었다.

묘역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위치한 응봉(鷹峰)의 서쪽 구릉에 남향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맞은편에 아버지 조건(趙狷)의 묘소가 있다. 묘역은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쌍분(雙墳) 구조에 문인석, 장명등, 상석 등 조선 초기의 석물이 갖추어져 있다. 조철산의 묘표는 1468년(세조 14)에 그리고 정경부인 이씨 묘표는 1474년(성종 5)에 건립한 것으로 현재 성남지역에서 건립 연월이 뚜렷한 묘비 중 가장 오래된 묘표이다.



〈고려충신 송산조공 휘 견 묘지석〉



『명남루시』(한시 - 송산 작품)



제1회, 어린이 백일장 당선작품(윤소인-분당초6)

문의처

성남문화원 사무국 Tel. (031)756-1082